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병풍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최근 한 휴대폰 제조사에서 여러 번 접을 수 있는 병풍의 특징을 적용한 ‘병풍폰’을 개발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전통 공예품 중 병풍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병풍’은 바람을 막는다는 의미를 지니는데, 바람을 막는 기능 외에 무엇을 가리는 용도로도 사용되는 소품입니다. (㉠ 자료를 제시하며) 병풍은 이렇게 펼치고 접을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이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병풍을 펼쳐 공간을 분리하거나, 접어서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야외나 다른 공간으로 병풍을 옮겨 사용하기 편리하고, 접었을 때 보관하기에도 용이합니다.

병풍은 공간을 꾸며 상황에 맞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장식적 특징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병풍에 그림을 넣는 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병풍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그림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수를 기원할 때는 십장생울, 선비의 지조를 강조하고자 할 때는 사군자를 그린 그림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보시는 이 병풍에는 꽃과 새가 그려져 있는데, 결혼식 때 신랑 신부의 행복과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꽃과 새를 화려하게 그려 넣어 장식함으로써 결혼식의 경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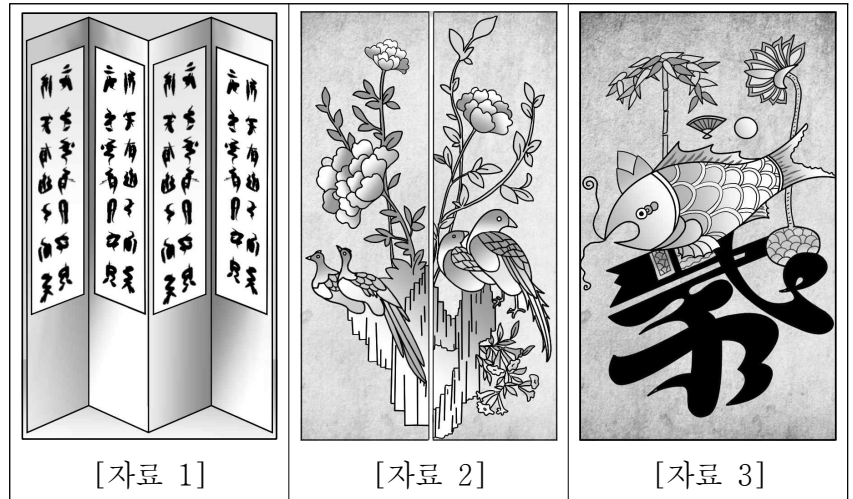
(㉢ 자료를 제시하며) 여러분, 이 병풍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맞습니다. 이 병풍은 글자와 그림이 어우러져 있는 ‘문자도 병풍’입니다. 문자도 병풍은 유교의 주요 덕목을 나타내는 글자를 그린 병풍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효’라는 한자와 다양한 소재들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각 소재들은 효자와 관련된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잉어를 예로 들자면, 추운 겨울에 물고기를 드시고 싶어 하는 부모님을 위해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잡은 효자의 설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도 병풍은 집안을 장식하고 유교적 덕목을 되새기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병풍은 우리 선조들의 생활 속에서 꾸준히 사랑받아 온, 실용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생활용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어디선가 병풍을 접했을 때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 내용을 떠올리면서 병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고, 그 아름다움도 느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 소재를 선정한 계기를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 ② 다른 대상과 대비하여 발표 소재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예를 들어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활용하여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 ⑤ 발표 소재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2.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자료 1]을 활용하여, 펼치고 접을 수 있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병풍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였다.
- ② ㉠에서 [자료 1]을 활용하여, 실내외 공간에 따라 그림이나 글자를 선택할 수 있는 병풍의 다양성을 설명하였다.
- ③ ㉡에서 [자료 2]를 활용하여, 기원하는 바를 그림에 담아 표현하는 병풍의 상징성을 설명하였다.
- ④ ㉡에서 [자료 2]를 활용하여, 공간을 꾸며 상황에 맞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병풍의 장식적 특징을 설명하였다.
- ⑤ ㉢에서 [자료 3]을 활용하여, 글자와 그림을 통해 유교적 덕목을 되새길 수 있는 병풍의 용도를 설명하였다.

3. 다음은 발표를 듣고 학생이 보인 반응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얼마 전 카페에서 전체를 접고 펼 수 있는 구조로 된 창문을 보았어. 날씨가 나쁠 때는 펼쳐서 외부와 차단하고, 날씨가 좋을 때는 접어서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었어. 발표 내용을 듣고 그 창문이 공간을 분리하고 확장하는 병풍의 구조적 특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옛날 물건이라고만 생각했던 병풍이 가지는 현대적 가치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어.

- ①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발표 소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 ② 발표 내용이 발표 주제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③ 발표를 듣기 전에 지녔던 의문을 발표 내용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 ④ 발표 내용 중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 ⑤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발표자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4~7] (가)는 생태 환경 동아리의 회의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안내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아리 회장: 지난 회의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려 식물 키우기 캠페인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오늘은 캠페인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협의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1: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반려 식물을 키워 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학생들에게 반려 식물 모종을 나누어 주고 직접 키워 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원 2: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모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까요?

부원 1: 예전에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학교에 생태 교육 예산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예산으로 반려 식물 모종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아리 회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서 여쭙어보았더니 선생님께서 그 예산으로 300개 정도의 모종을 준비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학생들이 키우기 좋은 반려 식물 세 가지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부원 1: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런데 모종의 수가 우리 학교 학생 수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걱정입니다.

부원 2: 그래도 3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반려 식물을 키우는 경험을 할 수 있고 반려 식물 키우기를 원치 않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 모종 300개로도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A]

부원 1: 말씀을 들어 보니 모종 수는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동아리 회장: 그런데 캠페인이 모종 나누어 주기만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누어 줄 식물의 이름, 특징, 키우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원 1: 좋은 의견이네요.

부원 2: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보를 제공하면 반려 식물을 더 잘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아리 회장: 반려 식물 모종 나누기와 함께 반려 식물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주자는 의견에 모두 공감하는 것 같은데요, 반려 식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만들어 모종과 함께 나누어 주면 어떨까요?

부원 2: 좋은 생각입니다. 모종 나누기 행사 전에 안내문을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면 캠페인의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아리 회장: 그렇네요. 그럼 안내문에는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제시할지 한 분씩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1: 먼저 반려 식물은 무엇인지, 반려 식물을 키우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밝히면 좋겠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캠페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부원 2: 그다음에 모종 나누기 행사를 안내하고, 반려 식물의 이름, 특징, 키우는 방법 등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부원 1: 하지만 안내문의 제한된 공간에 반려 식물을 키우는 방법까지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요? 나누어 주려는 반려 식물이 세 가지나 되는데, 이 세 가지 식물 키우는 방법을 모두 안내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B]

동아리 회장: 음, 각각의 반려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안내하는 홈페이지를 QR 코드로 연결해 두면 어떨까요?

부원 1: 그러면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반려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겠네요.

부원 2: 그리고 반려 식물을 키우며 수시로 생기는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우리 동아리 블로그를 안내해도 좋겠어요.

부원 1: 좋은 의견입니다. 고양이를 애지중지 키우는 사람을 뜻하는 '냥집사'처럼, 식물을 키우며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식집사'라는 용어를 쓰면 학생들이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동아리 회장: 재미있겠네요. 그럼 지금까지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문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나)

반려 식물을 키우는 '식집사'가 되어 보세요!

▶ 반려 식물이란?

생활공간에서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식물을 일컫는 말이에요.

▶ 반려 식물을 키우면?

생명을 키우는 성취감, 정서 안정, 공기 정화의 효과가 있어요.

▶ 반려 식물 모종 나누기 행사를 한다고요?

<3월 23일 하교 시간, 본관 앞>에서, 원하는 모종을 하나씩 나누어 드려요. (300개 한정)

<유칼립투스>



은은한 향기가 주는 마음의 평화

<아이비>



물만 주면 잘 자라는 공기 청정기

<칼라데아>



풍성한 잎이 전하는 싱그러움 생명감

▶ 반려 식물은 어떻게 키우나요?

반려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QR 코드로 확인하세요.

<유칼립투스>



<아이비>



<칼라데아>



▶ 반려 식물을 키우면서 궁금증이 생기면?

우리 동아리 블로그(blog.com/eco△△△)를 찾아 주세요.

생태 환경 동아리 '푸른누리'

4. (가)의 '동아리 회장'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난 회의 내용을 환기하며 협의할 내용을 밝히고 있다.
- ②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안하고 있다.
- ③ 서로 공감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발언을 유도하고 있다.
- ⑤ 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며 회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5.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는, [B]는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는 발화이다.
- ② [A]는 상대의 의견을 보완하는, [B]는 상대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발화이다.
- ③ [A]는 상대의 우려를 해소하는, [B]는 상대의 견해에 우려를 드러내는 발화이다.
- ④ [A]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요구하는, [B]는 문제 해결의 결과에 주목하는 발화이다.
- ⑤ [A]는 상대와 자신의 견해 차이를 확인하는, [B]는 상대와 자신의 공통된 견해를 확인하는 발화이다.

6. (가)의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반려 식물 모종 나누기 행사를 안내하자는 의견에 따라, (나)에서 행사의 일시와 장소를 밝히고 있다.
- ② (가)에서 반려 식물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의견에 따라, (나)에서 반려 식물의 이름, 특징 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가)에서 학생들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촉구하자는 의견에 따라, (나)에서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④ (가)에서 반려 식물을 키우며 생기는 궁금증을 해결하게 돕자는 의견에 따라, (나)에서 동아리 블로그를 소개하고 있다.
- ⑤ (가)에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식집사'라는 용어를 쓰자는 의견에 따라, (나)의 제목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7. (나)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나)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신문 자료]**  
 최근 반려 동물과 식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반려 동물의 경우 이미 동물 학대, 동물 유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려 식물과 관련한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반려 식물은 반려 동물에 비해 존재감이 미약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고, 버려지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 ① 반려 식물을 키우기 쉬운 이유를 밝히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겠어.
- ② 반려 식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반려 식물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 ③ 반려 식물의 유기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이를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 ④ 반려 동물과 구별되는 반려 식물의 장점을 언급하며 반려 식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겠어.
- ⑤ 반려 식물이 생명을 지닌 존재임을 언급하며 정성을 기울여 반려 식물을 키워 줄 것을 권유하는 문구를 추가해야겠어.

[8~10] 다음은 작문 상황에 따라 쓴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일상의 체험을 바탕으로 수필을 써 학급 문집에 싣고자 함.

**[초고]**  
 우리 집 마당 구석에 있는 창고에는 낡고 작은 배달용 오토바이가 한 대 서 있다. 아버지는 이 오토바이를 오랜 친구처럼 여기신다. 툼툼이 먼지를 털고, 경적을 빠방 울리기도 하고, 시동도 부르릉 걸어 보시고, 해진 안장을 툭툭 치며 환하게 웃으신다.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한 우리 학교는 인자한 미소를 띤 고목들이 오랜 전통을 말해 준다. 운동장을 발밑에 두고 중고등학교 건물이 다정히 서 있는데, 교실 유리창으로 내려다보이는 옛 시가지의 한적한 플라타너스 길은 운치가 있고 아름답다.

중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버지의 등 뒤에 꼭 붙어서 오토바이로 급히 등교한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교문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모퉁이에서 나를 내려 주셨다. 식당 일로 분주한 아침이지만, 내가 교문에 들어설 때까지 플라타너스 가로수 옆에 서 계시다가 어서 들어가라는 손짓을 보내시고 "부릉부릉 부루릉" 소리를 내며 돌아서셨다. 그 소리가 여느 오토바이의 것과는 조금 달라서였을까, 옆을 지나치던 학생들은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나는 아버지의 오토바이 소리를, 고요와 평안을 할키지 않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기억하고 있다.

중학교 때 점심시간이 끝나 갈 무렵 운동장 옆 산책길을 걷다가 아버지의 오토바이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우리 오토바이만의 음색이 내 마음속에 반가운 파문을 일으켰다. 저쪽 관공서 근처에 배달을 다녀오시나 보다. 매일 한두 번은 학교 교문 앞도 지나시나 보다. 아버지는 이 길을 지나실 때마다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실까 상상해 보았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오토바이가 교문을 지나 플라타너스 가로수 길로 향하는 오르막을 오를 때 들려왔던 그 소리는 왠지 내 어깨를 다독다독하는 인사말처럼 느껴졌다. '오후도 즐겁게!', '아빠, 지나간다.', '오늘 화창하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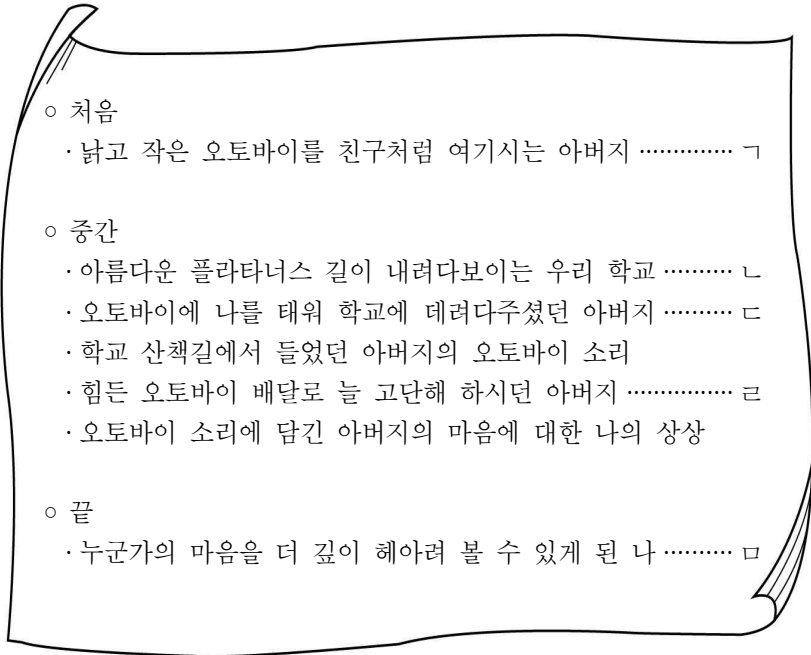
아버지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오토바이 소리에서 든든한 힘을 얻어서 그런지 내겐 누군가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보는 상상력이 생긴 것 같다.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귀가할 때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시는 "으흠" 헛기침 소리에서 '너무 늦었구나. 씻고 일찍 자렴.' 하는 깊은 사랑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있게 되었다.

내가 고등학생이 된 새봄. 아버지께서는 이제 오토바이 배달을 그만두셨다. 조금은 아쉽기도 하다.

8. 윗글에서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심 소재를 대하는 인물의 행동을 나열하며 시작한다.
- ② 의성어를 사용하여 중심 소재에 대한 인상을 부각한다.
- ③ 색채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공간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 ④ 의인법을 사용하여 자연물에서 느끼는 친밀감을 나타낸다.
- ⑤ 구체적 일화를 제시하여 중심 소재에 대한 정서를 드러낸다.

9. 다음은 글을 쓰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을 메모한 것이다.  
ㄱ~ㅌ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ㅌ

10. <보기>는 초고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초고에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글의 마지막 문장 뒤에,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배달을 그만두셨을 때 네가 아쉬움을 느낀 이유를 추가하고, 비유를 활용한 표현도 있으면 좋겠어.

- ① 다정한 인사처럼 들렸던 아버지의 오토바이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어서.
- ② 이제 고등학교 신입생이 되어 학교생활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겨서.
- ③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타고 함께 등교하는 소소한 즐거움을 더 이상 느낄 수 없어서.
- ④ 교문 앞을 지나 플라타너스 가로수 길을 오가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 ⑤ 중학교를 졸업하여 친구들과 함께했던 추억의 서랍장을 이제는 열어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언은 문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면서 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단어로,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어간이나 어미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고,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하여 용언을 이룬다. 가령 ‘떡다’는 어간 ‘떡-’의 뒤에 어미 ‘-고’, ‘-어’가 각각 결합하여 ‘떡고’, ‘떡어’와 같이 활용한다. 그런데 일부 용언에서는 활용할 때 어간의 일부가 탈락하기도 한다. ‘노는’은 어간 ‘놀-’과 어미 ‘-는’이 결합하면서 ‘ㄹ’이 탈락한 경우이고, ‘커’는 어간 ‘크-’와 어미 ‘-어’가 결합하면서 ‘-’가 탈락한 경우이다.

어미는 크게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로 구분된다. 어말 어미는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이며,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미이다. ‘가다’의 활용형인 ‘가신다’, ‘가겠고’, ‘가셨던’을 어간,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 활용형 | 어간 | 어미     |       |    |
|-----|----|--------|-------|----|
|     |    | 선어말 어미 | 어말 어미 |    |
| 가신다 | 가- | -시-    | -ㄴ-   | -다 |
| 가겠고 |    |        | -겠-   | -고 |
| 가셨던 |    | -시-    | -었-   | -던 |

어말 어미는 기능에 따라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구분된다. 종결 어미는 ‘가신다’의 ‘-다’와 같이 문장을 종결하는 어미이고, 연결 어미는 ‘가겠고’의 ‘-고’와 같이 앞뒤의 말을 연결하는 어미이다. 그리고 전성 어미는 ‘가셨던’의 ‘-던’과 같이 용언이 다른 품사처럼 쓰이게 하는 어미이다. ‘-던’이나 ‘-(으)ㄴ’, ‘-는’, ‘-(으)ㄹ’ 등은 용언이 관형사처럼, ‘-게’, ‘-도록’ 등은 용언이 부사처럼, ‘-(으)ㅌ’, ‘-기’ 등은 용언이 명사처럼 쓰이게 한다.

선어말 어미는 높임이나 시제 등을 나타낼 때 쓰인다. 활용할 때 어말 어미처럼 반드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한 용언에서 서로 다른 선어말 어미가 동시에 쓰이기도 한다. 위에서 ‘가신다’, ‘가셨던’의 ‘-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가신다’, ‘가겠고’, ‘가셨던’의 ‘-ㄴ-’, ‘-겠-’, ‘-었-’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각각 현재, 미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11.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용언은 어간의 앞뒤에 어미가 결합한 단어이다.
- ② 어간은 단독으로 쓰여 하나의 용언을 이룰 수 있다.
- ③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유지되는 부분이다.
- ④ 어말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⑤ 선어말 어미는 한 용언에 두 개가 동시에 쓰일 수 있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ㄱ~ㅍ의 밑줄 친 부분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너도 그를 아니?  
 ㄴ. 사과가 맛있구나!  
 ㄷ. 산은 높고 강은 깊다.  
 ㄹ. 아침에 뜨는 해를 봐.  
 ㅁ. 그녀는 과자를 먹었다.

- ① ㄱ: 어간 ‘알-’에 어미 ‘-니’가 결합하면서 ‘ㄹ’이 탈락하였다.
- ② ㄴ: 어간 ‘맛있-’에 종결 어미 ‘-구나’가 결합하여 문장을 종결하고 있다.
- ③ ㄷ: 어간 ‘높-’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하여 앞뒤의 말을 연결하고 있다.
- ④ ㄹ: 어간 ‘뜨-’에 전성 어미 ‘-는’이 결합하면서 용언이 부사처럼 쓰이고 있다.
- ⑤ ㅁ: 어간 ‘먹-’과 어말 어미 ‘-다’ 사이에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13. <보기>의 ‘학습 과제’를 바르게 수행하였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학습 자료]**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특정 언어에서 어떤 소리가 음운인지 아닌지는 최소 대립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소 대립쌍이란, 다른 모든 소리는 같고 단 하나의 소리 차이로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의 쌍을 말한다. 예를 들어, 최소 대립쌍 ‘감’과 ‘잠’은 [ㄱ]과 [ㅈ]의 차이로 인해 의미가 구별되므로 ‘ㄱ’과 ‘ㅈ’은 서로 다른 음운이다.

**[학습 과제]**  
 앞사람이 말한 단어와 최소 대립쌍인 단어를 말해 보자.

- ① 꿀
- ② 답
- ③ 들
- ④ 말
- ⑤ 풀

14. 다음 ‘탐구 학습지’ 활동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탐구 학습지]**

1. 문장의 중의성
  - 하나의 문장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
2. 중의성 해소 방법
  - 어순 변경, 삽입나 조사 추가, 상황 설명 추가 등
3. 중의성 해소하기
  - 과제: 빈칸에 적절한 말 넣기
  - ㄱ. (조사 추가) ..... a
    - 중의적 문장: 관객들이 다 도착하지 않았다.
    - 전달 의도: (관객 중 일부가 도착하지 않음.) ..... b
    - 수정 문장: 관객들이 다는 도착하지 않았다.
  - ㄴ. (어순 변경) ..... c
    - 중의적 문장: 우리는 어제 전학 온 친구와 만났다.
    - 전달 의도: (전학 온 친구와 만난 때가 어제임.) ..... d
    - 수정 문장: 우리는 전학 온 친구와 어제 만났다.
  - ㄷ. 상황 설명 추가
    - 중의적 문장: 민우는 나와 윤서를 불렀다.
    - 전달 의도: ‘나와 윤서’를 부른 사람이 ‘민우’임.
    - 수정 문장: (민우는 나와 둘이서 윤서를 불렀다.) ..... e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15.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위 - 아래’나 ‘앞 - 뒤’는 방향상 대립하는 반의어이다. ‘위 - 아래’나 ‘앞 - 뒤’가 단독으로 쓰이거나 다른 단어와 결합해서 쓰일 때, 문맥에 따라서 ㉠ ‘위’나 ‘앞’이 ‘우월함’의 의미를, ㉡ ‘아래’나 ‘뒤’가 ‘열등함’의 의미를 갖거나 강화하기도 한다.

- ① ㉠: 그가 머리 쓰는 게 너보다 한 수 위다.
- ② ㉠: 이 회사의 기술 수준은 다른 곳에 앞선다.
- ③ ㉡: 이번 행사는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되었다.
- ④ ㉡: 그녀는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고자 노력했다.
- ⑤ ㉡: 우리 팀의 승률이 조금씩 뒷걸음질 치고 있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발독에서 나는 바람과 놀고  
할머니는 메밀밭에서  
메밀을 꺾고 계셨습니다.

늦여름의 하늘빛이 메밀꽃 위에 빛나고  
메밀꽃 사이사이로 할머니는 가끔  
나와 바람의 장난을 살피시었습니다.

해마다 발독에서 자라고  
아주 커서도 덜 자란 나는  
늘 그러했습니다만

할머니는 저승으로 가버리시고  
나도 벌써 몇 년인가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후

오늘 저녁 명석을 펴고  
마당에 누우니

온 하늘 가득  
별로 피어 있는 어릴 적 메밀꽃

할머니는 나를 두고 메밀밭만 저승까지 가져가시어  
날마다 저녁이면 메밀밭을 매시며  
메밀꽃 사이사이로 나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 이성선, 「고향의 천정(天井) 1」 -

(나)

밥물 눈금을 찾지 못해 질거나 된 밥을 먹는 날들이 있더니  
이제는 그도 좀 익숙해져서 손마디나 손등,  
손가락 주름을 눈금으로 쓸 줄도 알게 되었다  
촉촉한 손등 주름 따라 밥맛을 조금씩 달리해본다  
손등 중앙까지 올라온 수위를 중지의 마디를 따라 오르내리  
다보면

물꼬를 트기도 하고 막기도 하면서  
눈에 물을 보러 가던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저녁때가 되면 한 끼라도 아껴보자  
친구 집에 마실을 가던 소년의 저녁도 떠오른다  
한 그릇으로 두 그릇 세 그릇이 되어라 밥국을 끓이던 ㉡ 문  
현동

가난한 지붕들이 내 손가락 마디에는 있다  
일찍 철이 들어서 슬픈 컷속으로  
봉지쌀 탈탈 터는 소리라도 들려올 듯,  
얼굴보다 먼저 늙은 손이긴 해도  
전기밥솥에는 없는 눈금을 내 손은 가졌다

- 손택수, 「밥물 눈금」 -

1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설의법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는 걱정적 어조를, (나)는 단정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상승의 이미지를, (나)는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대상의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17.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벗어나려는, ㉡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다.
- ② ㉠은 화자가 이질감을, ㉡은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③ ㉠은 화자의 슬픔이, ㉡은 화자의 그리움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 ④ ㉠은 화자의 동심이 허용되는, ㉡은 화자의 성숙함이 요구되는 공간이다.
- ⑤ ㉠은 화자가 경험한 적 없는 가상의, ㉡은 화자의 경험이 축적된 현실의 공간이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은 어떤 계기를 통해 되살아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의 화자는 할머니와의 기억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깨달음과 정서적 충만감을 얻고 있다. 한편 (나)의 화자는 일상적 행위의 반복 속에서 유년의 기억을 되살리고, 그 기억을 현재와 연결하며 자신의 현재 모습을 긍정하게 된다.

- ① (가)의 화자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자신이 여전히 ‘나’를 살피시는 할머니의 사랑 속에 있음을 깨닫고 있군.
- ② (나)의 화자는 유년의 기억을 통해 ‘전기밥솥에는 없는 눈금’을 지닌 ‘늙은 손’을 긍정하며 자기 위안을 얻고 있군.
- ③ (가)의 ‘커서도 덜 자랐다는 것과 (나)의 ‘밥맛을 조금씩 달리’하는 것은 현재의 화자에게 정서적 충만감을 주는군.
- ④ (가)에서 ‘마당에 누’워 하늘을 보는 행위와 (나)에서 ‘손가락 주름’으로 ‘밥물’을 맞추는 행위는 회상의 계기가 되는군.
- ⑤ (가)의 화자가 ‘별’에서 ‘메밀꽃’을 떠올리는 것과 (나)의 화자가 ‘가난한 지붕들이 내 손가락 마디에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억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기가 침체되어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면 시중의 제품이 팔리지 않아 기업은 생산 규모를 축소하게 된다. 그 결과 실업률이 증가하고 가계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소비는 더욱 위축된다. 이와 같은 악순환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국가는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 정책을 시행한다.

유동성이란 자산 또는 채권을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로, 현금과 같은 화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반면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다. 이처럼 유동성은 자산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흔히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 즉 통화량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된다. 가령 시중에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을 때 '유동성이 넘쳐 난다'고 표현하고, 반대로 통화량이 줄어들 때 '유동성이 감소한다'고 표현한다. 유동성이 넘쳐 날 경우 시중에 화폐가 혼해지는 상황이므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유동성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 이때 금리는 예금이나 빌려준 돈에 붙는 이자율로, 이는 기준금리와 시중 금리 등으로 구분된다. 기준금리는 국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하는 금리로, 한 나라의 금융 및 통화 정책의 주체인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 시중 금리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 중앙은행 이외의 시중 은행이 세우는 표준적인 금리로, 가계나 기업의 금융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가령 시중 금리가 내려가면 예금을 통한 이자 수익과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 가계나 기업에서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경향성이 늘어난다. 그 결과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수익과 대출 이자 부담이 모두 늘어나기 때문에 유동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금리와 유동성의 관계를 고려하여,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려고 한다. 만일 경기가 침체되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시중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그 결과 유동성이 증가하여 가계의 소비가 늘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또한 기업의 생산과 고용이 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된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어 자산 가격이나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물가가 안정되어 과열된 경기가 진정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통화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즉,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더라도, 증가한 유동성이 기대만큼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특히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경제 주체들은 쉽게 소비를 늘리지 못하거나 투자를 결정하지 못해 돈을 손에 쥐고만 있게 된다. 이 경우 충분한 유동성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해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데, 마치 유동성이 함정에 빠진 것 같다고 하여 케인스는 이를 **유동성 함정**이라 불렀다. 그는 이러한 유동성 함정을 통해 통화 정책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1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
- ②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예
- ③ 기준 금리와 시중 금리의 관계
- ④ 경기 침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 ⑤ 유동성에 대한 케인스 주장의 한계

20.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ㄱ~ㄷ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국가의 통화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 ㄱ ) 시중의 유동성이 ( ㄴ )하며, 화폐의 가치가 ( ㄷ )한다.

- |   |     |    |    |
|---|-----|----|----|
|   | ㄱ   | ㄴ  | ㄷ  |
| ① | 내리면 | 증가 | 하락 |
| ② | 내리면 | 증가 | 상승 |
| ③ | 내리면 | 감소 | 상승 |
| ④ | 올리면 | 증가 | 상승 |
| ⑤ | 올리면 | 감소 | 하락 |

21. 유동성 함정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중에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더라도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 ② 시중 금리의 상승으로 유동성이 감소하여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 ③ 기업의 생산과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어 유동성이 넘쳐 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 ④ 경기 과열로 인해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 ⑤ 유동성이 감소하여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상황을 의미한다.

22. 윗글을 바탕으로 경제 주체들이 <보기>의 신문 기사를 읽고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금융 당국 ‘빅스텝’ 단행**

금융 당국은 오늘 ‘빅스텝’을 단행하였다. 빅스텝이란 기준 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은 과도하게 증가한 유동성으로 인해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고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 ① 투자자: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 당분간 부동산 투자를 미루고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겠군.
- ② 소비자: 위축된 소비 심리가 회복되어 지금보다 물가가 오를 수 있으니, 자동차 구매 시기를 앞당겨야겠군.
- ③ 기업인: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으니, 공장을 확장하려던 계획을 보류해야겠군.
- ④ 공장장: 당분간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 수 있으니, 재고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야겠군.
- ⑤ 은행원: 시중 은행에 저축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으니,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고객을 유치해야겠군.

[23~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이럴망정 외방의 늙은 종이  
공물 바치고 돌아갈 때 하는 일 다 보았네  
① 우리 택(宅) 살림이 예부터 이렇던가  
전민(田民)\*이 많단 말이 일국에 소문이 났는데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종이 백여 명이 넘는데도  
무슨 일 하느라 텃밭을 묵혔는가  
농장이 없다던가 호미 연장 못 가졌나  
날마다 무엇하려 밥 먹고 다니면서  
열 나무 정자 아래 낮잠만 자는가  
아이들 탓이던가  
② 우리 택 종의 버릇 보노라면 이상하다  
소 먹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능욕하고  
오고 가는 어리석은 손님이 큰 양반을 기롱\*한다  
③ 그릇된 재산 모아 다른 피로 제 일하니  
큰 집의 많은 일을 뉘라서 힘써 할까  
곡식 창고 비었거든 창고지기인들 어찌하며  
세간이 흩어지니 질그릇인들 어찌할까  
내 잘못된 줄 내 몰라도 남 잘못된 줄 모르겠는가  
④ 풀어헤치거나 땀히거나, 혈뜬거나 뉘거나  
하루 열두 때 어수선을 핀 것인가  
(중략)

크게 기운 집에 상전님 혼자 앉아  
명령을 뉘 들으며 논의를 뉘와 할까

낮 시름 밤 근심 혼자 말아 계시거니  
옥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인가  
이 집 이리 되기 뉘 탓이라 할 것인가  
㉠ 생각 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려니와  
돌이켜 생각하니 상전님 탓이로다  
내 상전 그르다 하기에는 종의 죄 많건마는  
그렇다 세상 보며 민망하여 여쭙니다  
새끼 꼬는 일 멈추시고 내 말씀 들으소서  
[A] 집일을 고치려거든 종들을 휘어잡고  
종들을 휘어잡으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시려거든 어른 종을 믿으소서  
진실로 이리 하시면 **가도(家道)\*** 절로 일 겁니다  
- 이원익, 「고공답주인가」 -

- \* 전민: 농사짓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
- \* 기롱: 남을 속이거나 비웃으며 놀림.
- \* 가도: 집안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

(나)

“사람답게 살아라.”라는 말은 소설가 김정환이 평생을 두고 자주 한 말이다. 나는 그의 문장 가운데 다음의 구절을 좋아한다. “어딜 가도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살았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으레 나뭇가리가 있고 그 곁에는 코흘리개들이 놀곤 하였다. 조국이란 것이 점점 가슴에 느껴졌다.” 이 명료한 문장을 읽고 있으면 사람이 때를 이루어 사는 세상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만 같다. 그것도 느리고 큰 자연과 더불어.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도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다.

[B] 이래저래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별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사랑을 하고 있는 저 뜨거운 가슴도 짐작을 하게 된다. 조각돌처럼 까다롭고 별난 사람도 있고, 몽돌처럼 둥글둥글한 사람도 있고, 조각을 한 듯 잘생긴 사람도 있고, 마음에 태풍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4월의 봄별이 내리는 사람도 있다. 그들 모두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사는 것이 이 세상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중략)

나는 가끔 생각하기를 마당이 있는 집이 내게 있다면 주변의 돌들을 모아서 돌탑을 쌓고 싶다고 소망한다. 그리고 나의 아이들과 아내에게도 돌탑을 하나씩 쌓을 것을 부탁하고 싶다. 산사에 올라가다 보면 길가나 바위 위에 누군가 쌓아 올린 돌탑들처럼 나의 작은 마당 한쪽 한쪽에 돌탑을 쌓아 놓고 싶은 것이다. 아래에는 큰 돌이 필요하고 위를 향해 쌓아 갈수록 보다 작은 돌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장소에서 구해온 돌들은 각각의 크기와 모양과 빛깔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반듯한 것도 있고 움푹 팬 것도 있을 것이다. 마치 여러 종류의 꽃과 풀들이 자라나서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이 그 돌들은 서로 엮고 엮혀서 하나의 탑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돌탑을 쌓아 본 사람은 돌탑을 쌓는 데에는 잔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불안하게 기우똥하는 돌탑의 층을 바로잡아 주려면 이 잔돌을 피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잔돌을 줌으로써 탑은 한 층 한 층 수평을 이루게 된다. 못생긴 나무도 숲을 이루는 한 나무요, 쓸모없는 나무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보잘것없고 작은 잔돌이라도 탑을 올리는 데에는 꼭 필요하다. 돌탑을 쌓아 올리면서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잔돌의 소중함을 아는 일이다.

사람 사는 세상도 다를 바 없다. 잔돌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툴 때 그 대화의 매정한 분위기를 무너뜨려 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더러 있다. 잔돌처럼 작용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의견의 대립을 풀어 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부드러운 개입의 고마움을 우리는 간혹 잊고 사는 것이 아닐까 싶다.

봄 산이 봄 산인 이유는 새잎이 돋고 꽃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꽃은 자기의 존재감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냥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피어나 봄 산의 아름다움을 이룬다. 이 세세하고 능동적인 존재의 움직임은 보살폈으면 한다. 돌탑에 다시 비유하자면 잔돌과 같은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 문태준, 「돌탑과 잔돌」 -

2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채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순수한 자연 세계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부정적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실이나 세상에 대해 통찰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2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대조적 의미를 지닌 구절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는 [A]와 달리 자연물에 글쓴이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A]는 반어법을 활용하여, [B]는 역설법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전달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청자의 행동 변화를 호소하고 있다.

25. (나)의 글쓴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ㄱ.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한다.  
 ㄴ.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긍정한다.  
 ㄷ.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삶을 살았던 자신을 반성한다.  
 ㄹ. 세상에는 갈등을 중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6. <보기>를 참고할 때 (가)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고공답주인가」는 고공(종)이 상전에게 답을 하는 형식을 통해 국가 경영을 집안 다스리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상전은 왕, 종은 신하를 가리키는데, 화자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나라가 황폐해지고 위계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당과 싸움만 일삼으며 재물을 탐하는 신하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를 경영하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① ㉠: 나라가 황폐해진 상황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상하의 위계질서가 무너져 신하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나라를 돌보는 일을 외면한 채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탐하는 신하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시도 때도 없는 당과 싸움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조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나라가 어지러워진 책임이 신하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전체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체이다. 그러므로 전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그 자체로는 두드러지지 않을지라도 전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그리고 다양성을 지닌 구성 요소들은 각각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때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고 전체는 조화로운 모습을 이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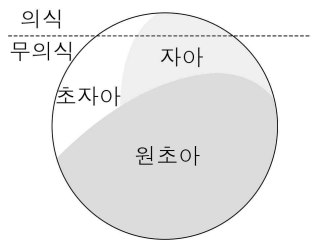
- ① (가)의 '가도'가 바로 선 집안은 구성 요소들이 어우러져 조화로운 모습을 갖춘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나)의 '탑'이 '수평을 이루게' 하는 '잔돌'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전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구성 요소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의 '낮잠만 자'는 종과 달리 (나)의 '스스로' 핀 꽃은 능동적으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한 구성 요소로 볼 수 있겠군.
- ④ (가)의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과 (나)의 '서로 업고 업혀서'는 다양성을 지닌 존재들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가)의 '크게 기운 집'은 구성 요소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결과로, (나)의 '기우뚱하는 돌탑'은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겠군.

[28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9세기에 분트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실험을 통해 인간의 정신 현상과 행동을 설명하는 실험심리학을 주창하였다. 이때 의식이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나 세계를 인식하는 모든 정신 작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정신 질환을 겪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인간에게 의식과는 다른 무의식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그는 인간을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비합리적 존재로 간주하고, **정신분석이론**을 통해 인간의 정신세계를 ㉠ **규명**하려 하였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세계 중 의식이 차지하는 영역은 빙산의 일각일 뿐, 무의식이 정신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는 무의식의 심연에는 '원초아'가, 무의식에서 의식에 걸쳐 '자아'와 '초자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원초아는 성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는 선천적 정신 요소이다. 반면 자아는 외적 상황으로 인해 충족되지 못하고 지연되거나 좌절된 원초아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충족하려는 정신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초자아는 도덕률에 따라 원초아의 욕구를 억제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정신 요소로, 어린 시절 부모의 종교나 가치관 등을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발달한다.



이러한 원초아, 자아, 초자아는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성격을 형성한다. 가령, 원초아가 강할 때는 본능적인 욕구에 집착하는 충동적인 성격이, 초자아가 강할 때는 엄격하게 도덕을 지키려는 원칙주의적 성격이 나타난다. 자아는 원초아와 초자아의 요구 사이에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아의 발달이 중요하다. 만일 자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정신 요소의 균형이 깨져 불안감이 생기는데, 자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된다. 대표적인 방어기제로는 억압이나 승화 등이 있다. 억압은 자아가 수용하기 힘든 욕구를 무의식 속으로 억누르는 것을, 승화는 그러한 욕구를 예술과 같이 가치 있는 활동으로 ㉡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어기제를 사용하느냐 또한 개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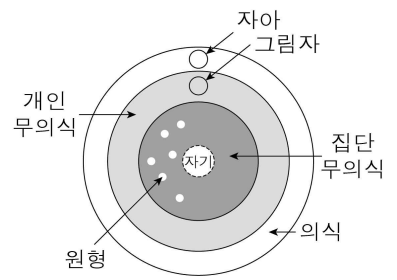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에 해소되지 않은 원초아의 욕구나 정신 요소 간의 갈등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그는 성인의 정신 질환을 어린 시절의 심리적 갈등이 재현된 것으로 보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과거의 상처를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이론은 기존의 이론에서 ㉢ **간과**한 무의식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인간 이해에 대한 지평을 넓혔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나)

융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에 반기를 들고, **분석심리학**을 주창하였다. 무의식을 단지 의식에서 수용할 수 없는 원초적 욕구나 해결되지 못한 갈등의 창고로만 본 프로이트와 달리, 융은 무의식을 인간이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때 필요한 창조적인 에너지의 샘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그의 분석심리학

은 프로이트의 이론과 구별된다.

융은 정신세계의 가장 바깥쪽에는 의식이, 그 안쪽에는 개인 무의식이, 그리고 맨 안쪽에는 집단 무의식이 순서대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다. 의식은 생각이나 감정, 기억과 같이 인간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영역으로, 여기에는 '자아'가 존재한다. 자아는 의식을 지배하는 동시에 무의식과 교류하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 무의식은 의식에 의해 ㉣ **배제**된 생각이나 감정, 기억 등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이곳에 존재하는 '그림자'는 자아에 의해 억압된 '또 하나의 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 무의식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원초적이며 보편적인 무의식이다. 거기에는 진화를 통해 축적되어 온 인류의 경험이 '원형'의 형태로 존재한다. 가령 어두운 상황에서 누구나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원형에 해당한다.



융에 따르면 집단 무의식의 가장 안쪽에는 '자기'가 존재한다. 이는 정신세계에 내재하는 개인의 근원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융은 자아가 성찰을 통해 무의식의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발견하면, 인간은 비로소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된다고 보고 이를 개별화라고 불렀다. 이는 의식에 존재하는 자아가 무의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으로 통합하는 과정, 즉 ㉤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자아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인 그림자와 ㉥ **대면**하게 되고,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러 원형들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자아가 무의식의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은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자아와 그림자, 그리고 여러 원형들이 대립에서 벗어나 하나의 정신으로 통합되면서 정신적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내면의 성숙을 이루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

28.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무의식을 주장한 이론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②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설명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③ 인간의 무의식을 설명한 이론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 ④ 인간의 정신 질환을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인간의 정신세계를 설명한 이론이 다른 학문 영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29.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분트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 ② 프로이트는 인간을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비합리적 존재로 여겼다.
- ③ 프로이트는 원초아가 강할 때 본능적인 욕구에 집착하는 성격이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 ④ 프로이트는 세 가지 정신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 ⑤ 프로이트는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를 구분하였다.

30. (가)의 ‘프로이트’와 (나)의 ‘융’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헤르만 헤세의 연보]**

- 1877 : 기독교인다운 엄격한 생활을 중시하는 경건주의 집안에서 태어남. .... ㉠
- 1881 ~ 1886 : 자유분방한 기질로 인해 엄한 아버지의 교육 방식에 반항하며 불안감을 느낌. .... ㉡
- 1904 ~ 1913 : 잠재된 문학적 재능을 발휘하여 왕성하게 작품 창작을 하며 불안에서 벗어남. .... ㉢
- 1916 ~ 1919 : 아버지의 죽음을 접하고 심한 우울증을 경험함. .... ㉣
- 1945 ~ 1962 : 성찰적 글쓰기 활동 속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며 여생을 보냄. .... ㉤
- 1962 : 몬타놀라에서 죽음.

- ① ㉠ : 프로이트는 엄격한 집안 분위기가 헤세의 초자아가 발달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보겠군.
- ② ㉡ : 프로이트는 헤세의 불안감을 원초아와 초자아의 요구를 자아가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겠군.
- ③ ㉢ : 프로이트는 헤세의 왕성한 창작 활동을 승화로, 융은 이를 무의식의 창조적 에너지가 발현된 것으로 보겠군.
- ④ ㉣ : 프로이트는 헤세의 우울증을 유년기의 불안이 재현된 것으로, 융은 이를 자아와 그림자가 통합된 것으로 보겠군.
- ⑤ ㉤ : 융은 헤세가 성찰하는 글쓰기 활동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 것으로 보겠군.

31. (가)의 [정신분석이론]과 (나)의 [분석심리학]에서 모두 동의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아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 걸쳐서 존재한다.
- ② 무의식은 성적 에너지로만 이루어진 정신 요소이다.
- ③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을 초월해 원형의 형태로 유전된다.
- ④ 무의식에는 자아에 의해 억압된 열등한 자아가 존재한다.
- ⑤ 정신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아의 역할이 중요하다.

32.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식의 확장을 통해 타인과의 경계를 허무는 과정이다.
- ② 자신의 근원적인 모습을 찾아 나가는 개별화의 과정이다.
- ③ 의식에 의해 발견된 무의식의 욕구가 억눌리는 과정이다.
- ④ 무의식이 의식에서 분화되어 정체성이 실현되는 과정이다.
- ⑤ 과거의 경험들을 반복함으로써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33.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힘.
- ② ㉡ : 주기적으로 자꾸 되풀이하여 들.
- ③ ㉢ :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김.
- ④ ㉣ :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 ⑤ ㉣ :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함.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국민학교 2학년생인 ‘나’는 걸기대(겉기대회)가 열릴 때마다 멧돼지를 서너 마리씩 미국 대통령이나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외국 귀인들에게 보낸다는 것을 알고 의아해 한다.

어린 소견에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었다. 그런 식으로 마구 보내 주다가는 오래지 않아 나라 안의 멧돼지는 깡그리 씨가 마를 판이었다. 그렇잖아도 가뜩이나 육고기가 부족한 가난뱅이 나라에서 서양 부자 나라의 지체 높은 양반들한테 뭇 때문에 특하면 그 귀한 멧돼지들을 보낸단 말인가. 또 보낸다면 그 멀고 먼 나라까지 무슨 수로,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그 짐승들을 보낸단 말인가.

멧돼지 보내기가 몇 번이나 되풀이된 다음, 마지막 순서로 헐서 쓰기가 시작되었다. 검정색 학생복 차림의 피 끓는 청년 학도들이 차례차례 연단에 올라 손가락을 깨물어 하얀 천 위

에다 붉게 혈서를 쓰고 있었다. 그쯤에서 진력이 날 대로 나버린 급우 녀석들이 나를 향해 자꾸만 눈짓을 보내왔다. 옆이면 코 닿을 자리에 집이 있는 내가 몇몇 친한 녀석들을 데리고 몰래 광장을 빠져나와 걸구대가 끝날 때까지 우리 식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 적이 종종 있었던 까닭이었다. 녀석들과 함께 걸구대에서 막 도망쳐 나오려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새롭게 연단에 오른 청년의 모습이 내 발목을 짝 붙잡았다. 그보다 앞서 혈서를 쓴 학생들과 달리 그는 학생복 차림이 아니었다. 검정물로 염색한 군복을 걸친 그 험수룩한 모습이 먼빛으로 봐도 어쩐지 많이 눈에 익어 보였다. 잠시 후에 열 손가락을 모조리 깨물어 혈서를 쓴, 참으로 보기 드문 열혈 애국 청년이 등장했음을 걸구대 사회자가 확성기를 통해 널리 알렸다. 곧이어 ‘북진통일’이라고 대문짝만 하게 적힌 혈서가 청중에게 공개되었다. 치솟는 박수갈채로 역전 광장이 갑자기 떠나갈 듯 요란해졌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혹시 내가 잘못 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몇몇 급우들과 함께 슬며시 광장을 벗어나고 말았다.

내가 결코 잘못 본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윽고 밝혀졌다. 창권이 형은 열 손가락에 빨갛게 핏물이 뻗 봉대를 친친 감은 채 식당에 돌아오으로써 어머니와 나를 기절초풍케 만들었다.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 나머지 어머니는 형이 돌아오면 퍼부으려고 잔뜩 벌려서 장만했던 욕바가지로 꺼내들 엄두조차 못낼 정도였다. 아프지 않더냐는 내 걱정엔 형은 마치 남의 살점 얘기하듯 심상하게 대꾸했다.

“팽기잖어. 어찌피 남겨도는 피니께.”

그 혈서 사건 이후부터 창권이 형은 자기 몸 안에 들끓는 더운 피를 덜어내기 위해 이따금 주먹으로 자신의 코뿔뿔을 후려쳐 일부러 코피를 쏟아 내야 하는 수고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어머니 말마따나 형은 정말 우리 식당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역전 광장에서는 사흘이 멀다 하고 크고 작은 걸구대가 잇달아 벌어졌다. 덕분에 형의 상처 난 손가락들은 좀체 아물 새가 없었다. 걸구대 때마다 단골로 혈서를 쓰는 열혈 애국 청년 노릇에 워낙 바쁘다 보니 식당 안에 진드근히 붙어 있을 겨를도 없었다. 어머니는 결국 역마살이 뻗쳐 하고많은 날들을 밖으로만 나대는 형의 발을 묶어 식당 안에 주저앉히려는 노력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형은 어느덧 장국밥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의 허드재비 심부름꾼에서 당당한 손님으로 격이 달라져 있었다.

중요한 일로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창권이 형이 해 질 녘에 다따가\* 고등학생으로 변해 돌아왔다. 그동안 형의 변모는 너무나 급격해서 그러잖아도 눈알이 팽팽 돌 지경이었는데, 방금 새로 사 입은 뽀뽀한 학생복에 어엿이 어느 학교의 교표까지 붙인 학생모 차림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라서 어머니와 나는 다시 한번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일트레면은 가짜배기 나이롱 고등과 학생인 심이지.”

언제 학교에 들어갔었느냐는 내 물음엔 형은 천연덕스레 대꾸하고 나서 한바탕 히히거렸다. 가짜 대학생 이야기는 더러 들어봤어도 가짜 고등학생은 형이 처음이었다.

“핵교도 안 땡기는 반거충이 청년이 단골 혈서가란 속내가 알려지는 날이면 녀들 보기에 모냥이 승척허다고, 날더러 당분간 고등과 학생 송내를 내고 땡기란다.”

형은 모자에 붙은 교표에 호호 입김을 불어 소맷부리로 정성스레 광을 내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새것임을 만천하에 광

고하듯 ㉠ 너무 번뜩여서 오히려 탈인 그 금빛의 교표를 형은 내친김에 아예 순금제로 바꿔 놓을 작정인 듯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삼아 닦고 또 닦아 댔다. 나는 국민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형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릴 때부터 남의집살이로 잔뼈를 굵혀 나온 형은 자신을 진짜배기 고등학생으로 착각하고 있는 기색이었다.

“요담번 켈기대회 때부터 나가 맥아더 원수에게 보내는 멧세지 낭독까장 말어서 허기로 결정이 나뿌렀다.”

형은 교표 닦기를 끝마친 후 호주머니에서 피난민 시체로부터 선사 받은 금장의 회중시계를 꺼내어 더욱더 공력을 들여 빼까번쩍 광을 내기 시작했다. 정말 갈수록 태산이었다. 형은 걸구대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 단골 혈서가 노릇 말고 다른 중요한 것이 더 있음을 자랑스레 밝히는 중이었다. 나는 멧돼지를 멧세지라 잘못 발음한 형의 실수를 부득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무식한 가짜 고등학생은, 멧돼지가 아니라고, 꼬부랑말로 멧세지가 맞다고 턱도 없는 우김질을 끝까지 계속했다.

(중략)

창권이 형의 마지막 활약상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그날도 형은 군산으로 원정을 떠나 적성중립국 감시위원들의 추방을 요구하는 시위대의 선두에 섰다. 시위 분위기가 무르익자 형은 그만 흥분을 가누지 못하고 미군 부대 철조망을 타넘는 만용을 부렸다. 바로 그때 경비병들이 송아지만 한 세퍼드들을 풀어놓았다. 형은 세퍼드들의 집중 공격을 받아 엉덩이 살점이 멧덩 뜯겨 나가고 왼쪽 발뒤꿈치의 인대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다. 형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이미 한쪽 다리를 저는 불구의 몸으로 변해 있었다.

퇴원한 뒤에도 창권이 형은 한동안 우리 집에 계속 머물렀다. 형의 그 가짜배기 애국 학도 행각을 애초부터 꼴같잖게 여기던 어머니는 쪼쪼쪼쪼 기우똥거리는 걸음걸이로 하릴없이 식당 안팎을 서성이는 먼촌불이 조카를 눈엣가시로 알고 노골적으로 박대했다. 우리 식당에 빌붙어 눈칫밥이나 축내며 지내던 어느 날, 형은 마침내 시골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굳혔다.

떠나기 전날 밤, 창권이 형은 보통이를 다 꾸린 다음 크게 선심이라도 쓰는 척하면서 내게 금장 회중시계를 만져 볼 기회를 딱 한 차례 허락했다. 행여 닳기라도 할까 봐 오래 구경시키는 것마저도 꺼려 하던 그 귀물 단지를 형이 내 손에 통째로 맡긴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피난민 시체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주장하던 그 회중시계가 내 작은 손바닥 위에 제법 묵직한 중량감으로 올라앉아 있었다. 등잔불 그늘 안에서 말갈고 은은한 광휘를 발산하는 금시계를 일삼아 들여다보고 있자니 마치 형의 금빛 찬란하던 한때를 그것이 재깅재깅 증언하는 듯한 느낌이 언뜻 들었다. 전쟁 기간을 통틀어 형의 수중에 남겨진 유일한 전리품이었다.

“형이 옳았어.”

회중시계를 되돌려 주면서 형의 호의에 대한 답례 삼아 뭐가 형에게 위로가 될 적당한 말을 찾느라 나는 복잡한 머릿속을 한참이나 뒤장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멧돼지가 아니었어. 멧세지가 맞는 말이여.”

내 말에 아무런 대꾸 없이 형은 그저 보일락말락 미소만 시부저기 흘리고 있을 따름이었다.

- 윤홍길,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멧돼지」 -

\* 다따가: 난데없이 갑자기.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내부 인물이 중심인물의 행동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이야기 내부 인물이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이야기 내부 인물이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하며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고 있다.
- ④ 이야기 외부 서술자가 특정 소재와 관련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 ⑤ 이야기 외부 서술자가 서로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다.

35.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나'는 쫓겨나기 전 친구들과 도중에 나온 적이 있었다.
- ② '나'는 창권이 형이 쫓겨나기 전 혈서를 쓴 사실을 어머니를 통해 전해 들었다.
- ③ 창권이 형은 열혈 애국 청년 노릇으로 바빠지게 되자 식당 심부름꾼으로 일할 겨를이 없었다.
- ④ 창권이 형은 퇴원 후 어머니에게 노골적인 박대를 받던 끝에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
- ⑤ 어머니는 창권이 형이 쫓겨나기 전 박수갈채를 받으며 애국 학도로 행세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3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빛나는 교표로는 오히려 창권이 형의 능청스러운 성격을 은폐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 ② 교표가 빛이 날수록 오히려 창권이 형이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③ 번뜩이는 교표로 인해 쫓겨나기 전 창권이 형이 맡는 역할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④ 교표를 정성스럽게 닦는 행위 때문에 오히려 창권이 형이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됨을 의미한다.
- ⑤ 지나치게 새것으로 보이는 교표 때문에 오히려 창권이 형의 학력 위조가 쉽게 탄로 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은 6·25 전쟁으로 인해 혼란해진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창권이 형은 쫓겨나기 전 애국 학도로 활약하게 되는 과정에서 권력층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중을 기만하는 권력층에 이용당하다 결국 몰락하게 되는 창권이 형을 통해 어리석은 인물이 가진 욕망의 허망함을 풍자하고 있다. 그리고 쫓겨나기 전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나'를 통해 쫓겨나기 전 사회가 회화된다.

- ① '멧세지'를 보내는 것을 '멧돼지 보내기'로 오해한 '나'를 통해 쫓겨나기 전 사회가 회화된다.
- ② '좀체 아물 새가 없'는 '손가락들'은 표면적으로는 애국심의 증거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창권이 형이 권력층에 이용당하는 인물임을 엿볼 수 있게 하는군.
- ③ '고등과 학생 승내를 내고 댕기'라고 지시하는 것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대중을 속이는 권력층의 부정적 면모가 드러나는군.
- ④ '시위대의 선두에 섰'다가 '중상을 입'은 비극을 통해 권력층에 편승하려는 창권이 형의 부질없는 욕망이 풍자되고 있군.
- ⑤ '유일한 전리품'이었던 '회중시계'는 전쟁 시기에 애국 학도로서의 신념을 지키지 못한 창권이 형의 고뇌를 상징하는군.

[38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맑고 화창한 날 밖에서 스마트폰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는 화면에 반사된 햇빛이 화면에서 나오는 빛과 많이 ㉠ 혼재될수록 야외 시인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야외 시인성이란, 빛이 밝은 야외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에는 야외 시인성 개선을 위해 어떠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까?

㉡ 스마트폰 화면의 명암비가 높으면 우리는 화면에 표현된 이미지를 선명하다고 인식한다. 명암비는 가장 밝은 색과 가장 어두운 색을 화면이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휘도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사람의 눈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나타내는 양이다. 가령,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가 2,000 cd/m<sup>2</sup>이고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가 2 cd/m<sup>2</sup>인 스마트폰의 명암비는 1,00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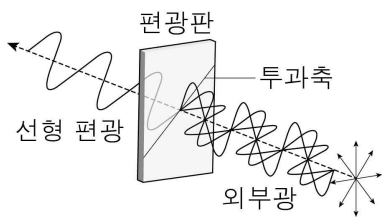
명암비는 휘도를 측정하는 환경에 따라 암실 명암비와 명실 명암비로 구분된다. 암실 명암비는 햇빛과 같은 외부광 없이 오로지 화면에서 나오는 빛만을 인식할 수 있는 조건에서의 명암비를, 명실 명암비는 외부광이 ㉢ 존재하는 조건에서의 명암비를 의미한다.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실 명암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화면에서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높이는 방법과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흔히 사용되는 OLED는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OLED는 화면의 내부에 있는 기관\*에서 빛을 내는 소자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조합하여 다양한 색을 ㉣ 구현한다. 이렇게 OLED가 색을 표현할 때, 출력되는 빛의 세기를 높이면 해당 색의 휘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강한 세기의 빛을 출력할수록 OLED의 수명이 ㉤ 단축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OLED 스마트폰에는 편광판과 위상지연필름을 활용하여, 외부광의 반사로 높아진,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낮추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그림>은 OLED 스마트폰에 적용된 편광판의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빛은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아간다. 빛이 편광판을 통과하면 그중 편광판의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아가는 선형 편광만 남고, 투과축의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차단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편광판을 통과한 빛의 세기는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OLED 스마트폰에서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기술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마트폰 화면 안으로 들어오는 외부광은 편광판을 거치면서 일부가 차단되고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선형 편광만 남게 된다. 그런 다음 이 선형 편광은 위상지연필름을 지나면서 회전하며 나아가는 빛인 원형 편광으로 편광의 형태가 바뀐다. 이 원형 편광은 스마트폰 화면의 내부 기관에 반사된 뒤, 다시 위상지연필름을 통과하며 선형 편광으로 바뀐다. 그런데 이 선형 편광의 진동 방향은 외부광이 처음 편광판을 통과했을 때 남은 선형 편광의 진동 방향과 수직을 이루게 되어 편광판에 가로막히게 된다. 그 결과 기관에 반사된 외부광은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다.

[A]



<그림>

이와 같은 기술은 OLED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편광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화면이 일정 수준의 명암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 OLED가 내는 빛의 세기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외부광이 화면의 외부 표면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야외 시인성의 저하도 ㉢ 방지하지 못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관: 전기 회로가 편성되어 있는 판.

38.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햇빛은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한다.
- ② OLED는 네 가지의 색을 조합하여 다양한 색을 구현한다.
- ③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으면 휘도는 낮아진다.
- ④ 야외 시인성은 사물 간의 크기 차이를 비교하는 기준이다.
- ⑤ OLED는 화면의 외부 표면에 반사되는 외부광을 차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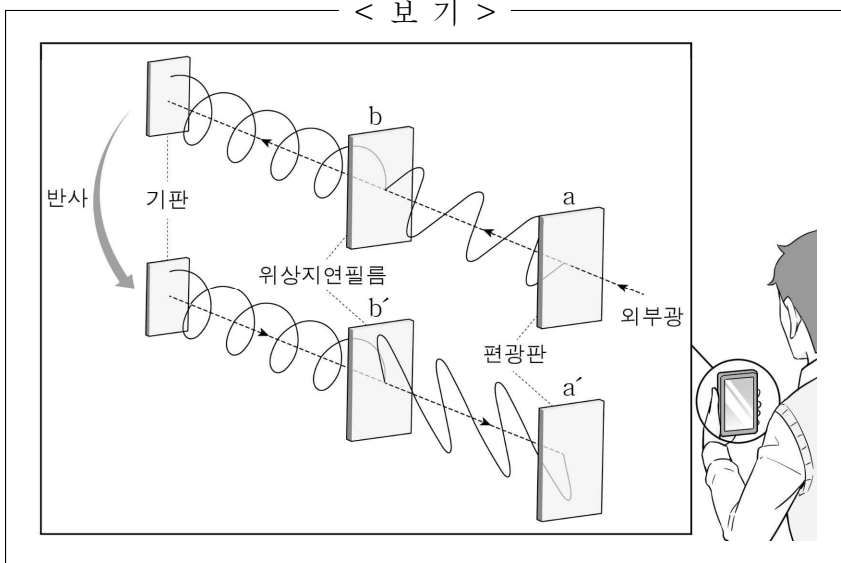
3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명실 명암비를 높이면 야외 시인성이 높아지게 된다.
- ②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가 낮아질수록 암실 명암비가 높아진다.
- ③ 휘도를 측정하는 환경에 따라 명실 명암비와 암실 명암비로 나뉜다.
- ④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로 나눈 값이다.
- ⑤ 화면에 반사된 외부광이 눈에 많이 들어올수록 명실 명암비가 낮아진다.

40.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OLED가 내는 빛의 휘도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② OLED가 내는 빛이 강할수록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 ③ OLED가 내는 빛 중 일부가 편광판에서 차단되기 때문이다.
- ④ OLED가 내는 빛이 약하면 명암비 계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 ⑤ OLED가 내는 빛의 세기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41. <보기>는 [A]의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외부광은 a를 거치면서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남게 된다.
- ②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은 진행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진동한다.
- ③ b를 거친 빛은 기판에 의해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과 같은 형태의 편광으로 바뀌게 된다.
- ④ b'를 거친 빛의 진동 방향은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의 진동 방향과 수직을 이룬다.
- ⑤ b'를 거친 빛은 진동 방향이 a'의 투과축과 수직을 이루므로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다.

42. 문맥상 ㉠ ~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뒤섞일수록
- ② ㉡: 있는
- ③ ㉢: 고른다
- ④ ㉣: 줄어드는
- ⑤ ㉣: 막지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전생에 부부였던 남해 용왕의 딸과 동해 용왕의 아들은 각각 금방울과 해룡으로 환생한다. 해룡은 피란 도중에 부모와 헤어져 장삼과 변 씨의 집에서 자라게 된다.

어느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내리치는 밤에 변 씨는 소룡과 함께 따뜻한 방에서 자고 해룡에게는 방아질을 시켰다. 해룡은 어쩔 수 없이 밤새도록 방아를 찧었는데, 얇은 홑옷만 입은 아이가 어찌 추위를 견딜 수 있겠는가? 추위를 이기지 못해 잠깐 쉬려고 제 방에 들어가니, 눈보라가 방 안에까지 들이치고 덮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해룡이 몸을 잔뜩 웅크리고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방 안이 대낮처럼 밝아지고 여름처럼 더워져

온몸에 땀이 났다. 놀라고 또 이상해 바로 일어나 밖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직 날이 밝지 않았는데 하얀 눈이 뜰에 가득했다. 방앗간에 나가 보니 밤에 못다 찧은 것이 다 찧어져 그릇에 담겨 있었다. 해룡이 더욱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방으로 돌아오니 방 안은 여전히 밝고 더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방 안을 두루 살펴보니, 침상 위에 예전에 없었던 북만 한 방울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해룡이 잡으려 했으나, 방울이 이리 미끈 달아나고 저리 미끈 달아나며 요리 구르고 저리 굴러 잡히지 않았다. 더욱 놀라고 신통해서 자세히 보니, 금빛이 방 안에 가득하고, 방울이 움직일 때마다 향취가 가득히 퍼져 코를 찔렀다. 이에 해룡은 생각했다. '이것은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어서 일어난 일일 테니, 좀 더 두고 지켜봐야겠다.'

해룡은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자리에 누웠다. 그동안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린 몸이 따뜻해지니, 마음이 절로 놓여 아침 늦도록 곤히 잠을 잤다. 이때 변 씨 모자는 추위 잠을 자지 못하고 떨며 앉아 있다가 날이 밝자마자 밖으로 나와보니, 눈이 쌓여 온 집 안을 뒤덮었고 찬바람이 얼굴을 깎듯이 세차게 불어 몸을 움직이는 것마저 어려웠다. 이에 변 씨는 생각했다.

'해룡이 틀림없이 얼어 죽었겠구나.'

해룡을 불러도 대답이 없자, 해룡이 얼어 죽었으리라 생각하고 눈을 헤치고 나와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다. 그랬더니 해룡이 벌거벗은 채 깊이 잠들어 있는데 놀라서 깨우려다가 자세히 살펴보니 하얀 눈이 온 세상 가득 쌓여 있는데, 오직 해룡이 자고 있는 사랑채 위에는 눈이 한 점도 없고 더운 기운이 연기처럼 일어나고 있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변 씨가 놀라 소룡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다.

"매우 이상한 일이니, 해룡의 거동을 두고 보자꾸나."

문득 해룡이 놀라 잠에서 깨어 내당으로 들어가 변 씨에게 문안을 올린 뒤 비를 잡고 눈을 쓸러 하는데, 갑자기 한 줄기 광풍이 일어나며 반 시간도 채 안 되어 눈을 다 쓸어버리고는 그쳤다. 해룡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나, 변 씨는 그 까닭을 전혀 알지 못해 더욱 신통히 여기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분명 해룡이 요술을 부려 사람을 속인 것이로다. 만약 해룡을 집에 오래 두었다가는 큰 화를 당하리라.'

변 씨는 어떻게든 해룡을 죽여 없앨 생각으로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한 가지 계교를 생각해 내고는 해룡을 불러 말했다.

"가군\*이 돌아가신 뒤 우리 가산이 점점 줄어들게 된 것은 너 또한 잘 알 것이다. 구호동에 우리 집 논밭이 있는데, 근래에는 호환이 자주 일어나 사람을 다치게 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묵혀둔 지 벌써 수십여 년이 되었구나. 이제 그 땅을 다 일구어 너를 장가보내고 우리도 네 덕에 잘살게 된다면,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다만 너를 그 위험한 곳에 보내면, 혹시 후회할 일이 생길까 걱정이구나."

해룡이 기꺼이 허락하고 농기구를 챙겨 구호동으로 가려 하니, 변 씨가 짐짓 말리는 체했다. 이에 해룡이 웃으며 말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어찌 짐승에게 해를 당하겠나이까?"

해룡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자, 변 씨가 문밖에까지 나와 당부하며 말했다.

"쉬이 잘 다녀오너라."

해룡이 공손하게 대답하고 구호동으로 들어가 보니, 사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사이에 작은 들판이 하나 있는데, 초목이 아주 무성했다. 해룡이 등나무 넝쿨을 붙들고 들어가니, 오직 호랑이와 표범, 승냥이와 이리의 자취뿐이요, 인적은 아예 없었다. 해룡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옷을 벗은 뒤 잠깐 쉬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려 할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두어 이랑 갈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고 모래가 날리면서 산꼭대기에서 이마가 흰 칙범이 주홍색 입을 벌리고 달려들었다. 해룡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손으로 호랑이를 내리치려 할 때, 또 서쪽에서 큰 호랑이가 벽력같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해룡이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금방울이 달려와 두 호랑이를 한 번씩 들이받았다. 호랑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으나, 금방울이 나는 듯이 뛰어서 연달아 호랑이를 들이받으니 두 호랑이가 동시에 거꾸러졌다.

해룡이 달려들어 호랑이 두 마리를 다 죽이고 돌아보니, 금방울이 번개같이 굴러다니며 한 시간도 채 안 되어 그 넓은 밭을 다 갈아 버렸다. 해룡은 기특하게 여기며 금방울에게 거듭 거듭 사례했다. 해룡이 죽은 호랑이를 끌고 산을 내려오면서 돌아보니, 금방울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었다.

한편, 변 씨는 해룡을 구호동 사지에 보내고 생각했다.  
‘해룡은 반드시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을 것이다.’

변 씨가 집 안팎을 들락날락하며 매우 기뻐하고 있는데, 문득 밖에서 사람들이 요란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와 급히 나아가 보니, 해룡이 큰 호랑이 두 마리를 끌고 왔다. 변 씨는 크게 놀랐지만 무사히 잘 다녀온 것을 칭찬했다. 또한 큰 호랑이를 잡은 것을 기뻐하는 체하며 해룡에게 말했다.

“일찍 들어가 쉬어라.”

해룡이 변 씨의 칭찬에 감사드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 보니, 방울이 먼저 와 있었다.

— 작자 미상, 「금방울전」 —

\* 가군: 남에게 자기 남편을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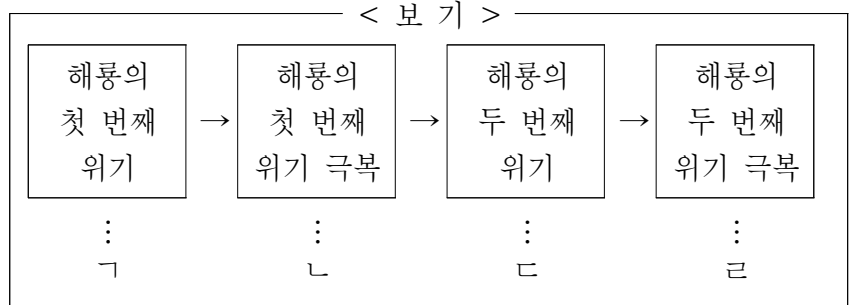
43.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변 씨는 소룡에게 잠자는 해룡을 깨우라고 지시했다.
- ② 변 씨는 해룡을 도운 것이 금방울이라는 것을 몰랐다.
- ③ 해룡은 밤에 방아질을 하다가 추워 방 안으로 들어갔다.
- ④ 해룡은 방 안에서 움직이는 금방울을 보고 신통해 했다.
- ⑤ 금방울은 구호동에서 사라진 후 해룡보다 먼저 방에 도착했다.

44.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난 일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며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② 상대방으로 인한 자신의 손해를 언급하며 요청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고 있다.
- ④ 자신이 제안한 바가 서로에게 이익이 됨을 근거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이 취하려는 행위를 만류하기 위해 상대방과 자신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45. <보기>는 윗글의 서사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ㄱ~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ㄱ은 집에서 얼어 죽게 될, ㄷ은 구호동에서 짐승에게 해를 입게 될 상황이다.
- ② ㄱ과 ㄷ은 모두 해룡에게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는 상황이다.
- ③ ㄴ은 장차 해룡에게 화를 입을 것을 염려한 변 씨가 ㄷ을 계획하는 계기가 된다.
- ④ ㄴ과 ㄹ은 신이한 능력을 지닌 금방울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된다.
- ⑤ ㄱ~ㄹ의 과정에서 해룡은 결과 속이 다르게 자신을 대하는 변 씨의 이중성을 눈치채고 반발하게 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험 활동 때 방문했던 트릭 아트 체험관 기억하시나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많이 기억하시는군요. 저는 특히 외나무다리 트릭 아트가 인상 깊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그림 위에 섰을 때 실제로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트릭 아트에 대해 관심이 생겨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트릭 아트는 주로 착시 현상을 활용하여 관람자에게 재미나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예술 장르입니다. (㉠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무엇을 그린 것일까요? (대답을 듣고) 네, 토끼라는 대답도, 오리라는 대답도 있네요. 이 그림에는 두 동물의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토끼로도, 오리로도 보입니다. (그림의 오른쪽 부분을 가리키며) 이쪽 둥근 부분에 시선을 두면 토끼로 보이고, (왼쪽 부분을 가리키며) 이쪽 길쭉한 부분에 시선을 두면 오리로 보입니다. 이 그림은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보이는 착시 현상을 활용하여 관람자에게 일상에서 접해 보지 못했던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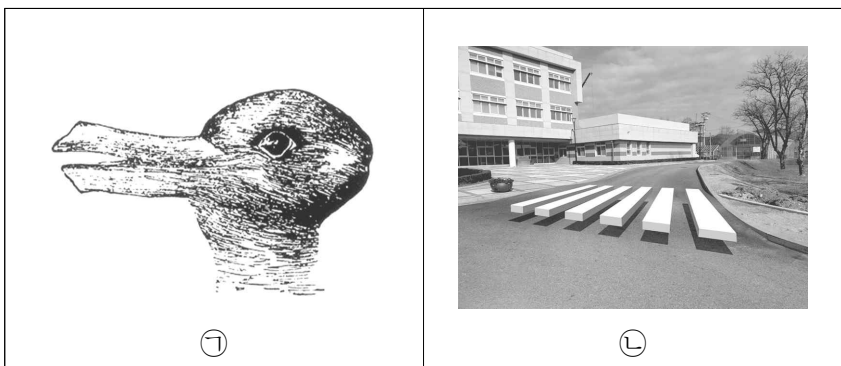
아, 질문이 있군요. (㉡ 질문을 듣고) 네, 눈은 외부의 시각 정보를 뇌에 전달하고, 뇌는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에 비추어 이를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각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해석에 혼선이 생길 때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방금 보셨던 그림은 이미지를 중첩시켜 불분명한 시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착시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대답을 듣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착시 현상을 활용하여 바닥에 그린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트릭 아트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 자료를 가리키며) 이 횡단보도는 표지선 아래에 음영을 넣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바닥에 그려진 것이지만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시각에서 볼 때 실제로 장애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감속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외에도 트릭 아트는 건물 외벽, 광고판, 관광지의 포토존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트릭 아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도서관에 있는 관련 책들을 찾아보거나 제가 보여 드리는 트릭 아트 누리집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② 화제와 관련된 역사적 일화를 소개하여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 ③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④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청중이 설명 대상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⑤ 청중에게 정보를 추가로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2.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통해 착시 현상의 방해 요인을, ㉢을 통해 착시 현상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을 통해 트릭 아트의 전시 환경을, ㉢을 통해 착시 현상의 이해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을 통해 트릭 아트의 긍정적 효과를, ㉢을 통해 트릭 아트의 부정적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④ ㉠을 통해 트릭 아트의 사회적 의의를, ㉢을 통해 트릭 아트의 예술적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 ⑤ ㉠을 통해 착시 현상의 시각적 효과를, ㉢을 통해 트릭 아트의 실용적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3. 위 발표의 흐름을 고려할 때,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트릭 아트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②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③ 트릭 아트의 대표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④ 트릭 아트를 만들 때는 착시 현상만 활용하나요?
  - ⑤ 착시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은 무엇이 있나요?

[4~7] (가)는 ‘활동 1’에 따라 실시한 독서 토론이고, (나)는 ‘활동 2’에 따라 ‘하연’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활동지]

- 활동 1: 1970년대 소설인 「자전거 도둑」을 읽고, 아래의 주제로 독서 토론을 해 보자.

[주제] 자전거를 들고 간 수남의 행동은 정당한가?

- 활동 2: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글을 써 보자.

(가)

지현: 먼저 소설의 상황에 대해 말해 볼게. 바람이 세게 부는 어느 날, 수남은 배달을 갔어. 배달을 끝내고 돌아가려는데 한 신사가 수남에게 너의 자전거가 바람에 넘어져 자신의 자동차에 흠집을 냈다고 말했지. 신사는 잘 보이지도 않는 흠집을 찾아 보상금을 요구해. 신사는 보상할 때까지 자전거를 묶어 두겠다고 하고 떠나버리는데 수남은 고민하다가 자전거를 들고 도망가 버렸어. 과연 수남의 행동은 정당할까?

민준: 수남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봐. 바람 때문에 자전거가 넘어져 흠집이 난 거잖아?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질 의무가 없으니까, 수남이 피해를 보상할 책임은 없어.

하연: 하지만 바람이 세게 불었다면 수남이 자전거를 잘 묶었어야 해. 자전거가 쓰러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으니 자전거를 관리하지 않은 수남에게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어.

지현: 둘의 입장이 다르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소설 내용을 근거로 이야기해 보는 게 어때?

민준: ‘바람이 유난해서’라는 구절이 나오니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자전거가 쓰러질 걸 예상할 수 있었다고? 소설에는 그걸 알 수 있는 단서가 없어.

하연: 바람이 유난해서 수남이 배달할 물건을 꼼꼼하게 묶는 장면이 있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거지. 그런데도 자전거는 잘 안 묶어 두었잖아.

지현: 정리하면, 민준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니까 수남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고, 하연은 수남이 피해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대처가 없었기에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구나.

하연: 그래, 맞아.

지현: 그러면 수남의 책임 여부 말고 다른 쟁점은 없을까?

하연: 보상에 대한 합의 여부로도 행동이 정당한지 판단해 볼 수 있어. 합의가 이뤄졌는데 수남이 보상금을 주지 않고 자전거를 들고 도망간 건 정당하지 않아.

민준: 합의가 이뤄진 건 아니야. 신사는 보상금을 요구하고 수남이 동의하기 전에 가 버렸잖아. 일방적으로 제안하고 갔는데 합의라고 볼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수남이 자전거를 가져간 건 문제가 없어.

하연: 일방적 제안은 아닌 거 같아. 신사는 수남이 울어서 보상금을 반으로 줄여 주잖아. 그리고 수남이 잘못했다는 대답도 해. 신사는 수남의 처지를 고려해 줬

[A]

고, 수남도 잘못을 인정했으니 합의가 이뤄진 거야.

민준: 신사가 수남의 처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부유한 어른이 잘 보이지도 않는 흠집을 일부러 찾아서 배달원 소년에게 5천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엄청 큰돈을 요구했어.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매정한 행동이야.

지현: 같은 소설을 읽고도 상황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독서 토론의 주제로 ‘활동 2’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

(나)

수남의 행동은 정당하지 않다. 수남은 신사의 자동차에 난 흠집을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바람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옳지 않다. 수남은 배달 물건을 꼼꼼하게 묶었지만, 자전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실제로 태풍에 의해 주택 유리창이 떨어져 주차된 차가 파손되었을 때 예보를 듣고도 시설물 관리에 소홀한 주택 소유자가 그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진 사례가 있다.

다음으로 신사와 수남은 보상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남의 행동은 정당하지 않다. 신사가 일방적으로 제안하고 떠났다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겠지만, 신사는 수남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줄여 주었다. 또한 수남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합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1970년대 배달원 소년의 입장에서 5천 원이 큰 돈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신사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수남은 신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수남은 도둑이 되어 버렸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합의된 것도 수행하지 않았다. 제목에서 말하는 ‘자전거 도둑’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자전거를 자신이 훔친 수남인 것이다.

4. (가)의 독서 토론에서 ‘지현’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설 내용을 제시한 후 토론 주제를 언급하고 있다.
- ② 소설의 내용을 근거로 발언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 ③ 토론자들이 언급한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고 있다.
- ④ 토론자들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있다.
- ⑤ 토론자들이 다른 쟁점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5. [A]의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준은 하연의 주장에 일반적인 상식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 ② 민준은 하연의 말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하고 있다.
- ③ 민준은 하연이 고려해야 하는 시대적 정보를 나열하고 있다.
- ④ 하연은 민준이 사용한 단어의 중의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⑤ 하연은 민준이 이해하지 못한 자신의 발언을 부연하고 있다.

6. (가)를 바탕으로 '하연'이 세운 '활동 2'의 글쓰기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토론 쟁점에 대한 나의 주장을 토론에서 다룬 순서대로 서술해야겠어.
- ② 토론 주제와 관련된 수남의 고민을 소설 속 구절에서 찾아 언급해야겠어.
- ③ 토론에서 언급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나의 주장을 강화해야겠어.
- ④ 토론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례를 찾아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야겠어.
- ⑤ 토론에서 내세운 나의 주장을 바탕으로 제목에 담겨 있는 의미를 밝혀야겠어.

7.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나)의 초고를 보완하고자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법률 전문가의 뉴스 인터뷰]**

“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에게 물건이 담보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323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된 물건은 타인이 물건을 점유하게 되거나 타인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때 해당 물건을 가져가거나 숨겨 타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없게 한다면 권리행사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수남이 자전거를 가져간 행위는 신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② 수남이 잘못을 인정한 행위는 신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③ 수남의 자전거가 담보로 잡힌 것은 신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수남이 자신의 자전거를 묶어둔 행위는 신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신사가 수남에게 보상금을 요구한 행위는 수남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8~10] 다음은 작문 상황에 따라 쓴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초고]**  
우리 할머니 댁은 남쪽 바다의 작은 섬에 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연휴나 방학이 되면 매년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나는 할머니 댁이 있는 섬에 가면 바다에서 헤엄을 치거나 바위틈에서 고등과 게를 잡기도 했고 산에서 신나게 쌀 포대로 눈썰매를 타기도 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할머니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다.

할머니 댁은 섬 서쪽 바닷가의 큰 등대 근처에 있었다. 검정 바위로 만들어진 거북이 조각상이 새하얀 등대를 이고 있어서 동생과 나는 그 등대를 '거북이 등대'라고 불렀다. 아버지 차를 타고 가다가 거북이 등대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반기면 할머니 댁에 가까워진 것이라서 할머니를 곧 뵙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곤 했다. 할머니는 늘 우리를 마중 나오셨고, 나는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뛰어가서 할머니 품에 안겼었다.

할머니는 마당 텃밭에서 옥수수를 기르셨다. 늦봄에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와 같이 옥수수 씨를 뿌렸고, 여름 방학에는 점점 자라는 옥수수에 물 주는 일을 도와드렸다. 그러다 참지 못하고 옥수수 껍질을 살짝 열어서 얼마나 익었는지 들여다보다가 할머니께 꾸중을 듣기도 했다. 꾸중을 듣고 시무룩해 있는 나에게 할머니는, “뭘든지 다 때가 있고 시간이 필요한 법이란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해.”라며 토닥여 주셨다. 나는 익어가는 옥수수를 보며 기다림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늦여름에는 연두색 옥수수수염이 점점 갈색빛으로 물들며 옥수수가 여물었다. 가을에는 기다림의 결실인 샛노란 옥수수를 수확하며 나는 한 뼘 더 성장했다.

할머니께서 끓여 주신 갈치국을 먹었던 기억도 있다. 서울에서 갈치로 만든 음식을 먹다 보면 갈치국을 끓여 주시던 할머니 생각이 나서 할머니가 그리워진다. 갈치국은 양념장을 넣어 칼칼하게 졸인 갈치조림과 달리 갈치, 늙은 호박, 배추를 넣어서 맵지 않도록 맑게 끓인 요리이다. 내가 갈치국이 먹고 싶다고 하면 할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어시장에서 싱싱한 갈치를 사 오셔서 갈치국을 해 주셨다. 할머니의 갈치국에서는 시원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났다. 지금도 그 맛이 혀끝에 맴돈다. 갈치국을 맛있게 먹는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할머니를 떠올리면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해진다.

지금은 어렸을 때만큼 할머니를 자주 뵈러 가지 못해 할머니와의 추억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

8. 초고에서 활용한 글쓰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인법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의성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④ 다른 대상과의 대비를 통해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9. 다음은 글을 쓰기 전 학생이 구상한 내용이다.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   |
|----|---|
| 처음 | 할머니 댁이 있는 섬에서의 어릴 적 기억  |
| 중간 | <b>[거북이 등대]</b><br>○ 할머니 댁에 도착할 때쯤 거북이 등대를 본 경험<br>○ 할머니를 곧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렘. …… ㄱ |
|    | <b>[옥수수]</b><br>○ 옥수수 때문에 할머니께 꾸중 들은 경험 …… ㄴ<br>○ 옥수수를 통해 기다림의 소중함을 깨달음. …… ㄷ     |
|    | <b>[갈치국]</b><br>○ 할머니가 끓여 주신 갈치국을 먹은 경험 …… ㄹ<br>○ 요리하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며 보람을 느낌. … ㅁ     |
| 끝  | 소중하게 느껴지는 할머니와의 추억  |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10. <보기>는 초고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초고에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 글이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 들어. 글의 마지막에 할머니와의 추억이 너에게 주는 의미를 직유법을 사용하여 표현한 문장을 추가하면 더 좋겠어.

- ① 할머니 댁이 있는 섬의 풍경은 그림같이 아름다웠다. 그 풍경을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 ② 섬에서 자란 나는 푸른 바다를 늘 그리워한다. 운슬이 넘실거리는 바다는 내 마음의 고향이다.
- ③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그리워진다. 이번 방학에는 아버지께 말씀드려 할머니를 뵈러 가야겠다.
- ④ 할머니 손길로 익어 가는 옥수수처럼 나는 할머니의 사랑으로 물들었다.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은 나를 채운 운기였다.
- ⑤ 할머니의 넘치는 사랑 덕분에 나의 어린 시절이 찬란하게 빛난다. 소중한 시간을 내게 선물해 주신 할머니께 감사드린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어근과 접사가 있다. 어근은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 중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며, 접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어근에 특정한 의미를 더하거나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는 부분이다. 접사는 어근의 앞에 위치하는 접두사와 어근 뒤에 위치하는 접미사로 나뉘는데, 항상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기에 홀로 쓰이지 못함을 나타내는 붙임표(-)를 붙인다. 예를 들어 ‘했-, 덧-, 들-’과 같은 말은 접두사이고, ‘-지기, -음, -게’와 같은 말은 접미사이다.

단어는 그 짜임에 따라 단일어와 복합어로 구분된다.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를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복합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와,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파생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가령 ‘밤’이나 ‘문’과 같이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는 단일어이며, 어근 ‘밤’, ‘문’이 각각 또 다른 어근과 결합한 ‘밤나무’, ‘자동문’은 합성어이다. 또한 어근 ‘밤’과 접두사 ‘했-’이 결합한 ‘햇밤’, 어근 ‘문’과 접미사 ‘-지기’가 결합한 ‘문지기’는 파생어이다.

복합어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나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에 어근이나 접사가 다시 결합하여 형성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복잡한 짜임의 단어를 이해할 때 활용되는 방법으로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이 있다.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은 단어를 둘로 나누는 방법으로, 나뉜 두 부분 중 하나가 접사일 경우 그 단어를 파생어로 보고, 두 부분 모두 접사가 아닐 경우 합성어로 본다.

[A] 가령 단어 ‘코웃음’은 직접 구성 성분을 ‘코’와 ‘웃음’으로 보기에 합성어로 분류한다. 이는 ‘코’가 어근이며, ‘웃음’이 어근 ‘웃-’과 접미사 ‘-음’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임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코웃음’의 직접 구성 성분을 ‘코웃-’과 ‘-음’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코웃-’은 존재하지 않고 ‘코’와 ‘웃음’만 존재하며, 의미상으로도 ‘코+웃음’의 분석이 자연스럽게 직접 구성 성분을 ‘코’와 ‘웃음’으로 분석한다. 이처럼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은 단어의 짜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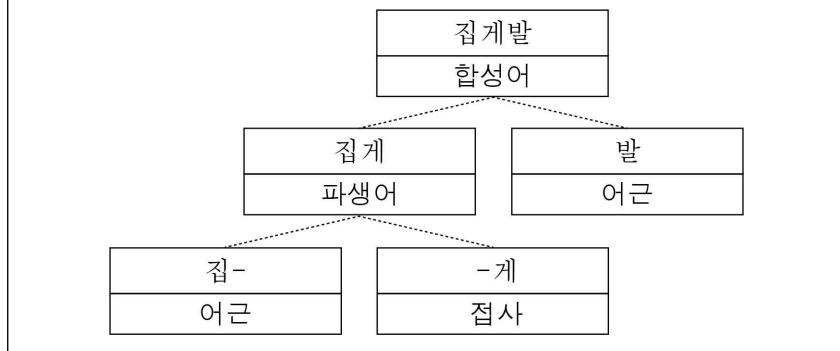
11.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다.
- ② 합성어나 파생어는 모두 복합어에 포함된다.
- ③ 접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기에 붙임표(-)를 붙인다.
- ④ 복합어는 접사가 어근과 결합하는 위치에 따라 둘로 나뉜다.
- ⑤ 접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어근에 특정한 의미를 더하거나 어근의 의미를 제한한다.

12.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에 해당하는 짜임을 가진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가재의 집게발’에서 ‘집게발’은 아래와 같이 ㉠ 직접 구성 성분이 ‘[어근+접사]+어근’으로 분석되는 합성어이다.



- ① 뷰음밥                      ② 덧버선                      ③ 문단속
- ④ 들고양이                  ⑤ 창고지기

13. <보기>는 수업의 일부이다. ‘학습 활동’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 단어를 발음할 때, 어떤 음운이 앞이나 뒤의 음운의 영향으로 바뀌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조음 방법만 바뀌거나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가 모두 바뀝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해 ‘학습 활동’을 수행해 봅시다.

|         |       |      |        |         |
|---------|-------|------|--------|---------|
|         | 조음 위치 |      |        |         |
| 조음 방법 \ | 입술소리  | 잇몸소리 | 센입천장소리 | 여린입천장소리 |
| 파열음     | ㅂ     | ㄷ    |        | ㄱ       |
| 파찰음     |       |      | ㅈ      |         |
| 비음      | ㅁ     | ㄴ    |        | ㅇ       |
| 유음      |       | ㄹ    |        |         |

|                                 |                        |                  |
|---------------------------------|------------------------|------------------|
| 영향의 방향                          | 음운이 바뀌는 양상             |                  |
| 달 <sup>ㄹ</sup> 님<br>(앞 음운의 영향)  | 달 <sup>ㄹ</sup> 님[달림]   | 조음 방법의 변화        |
| 작 <sup>ㄷ</sup> 문<br>(뒤 음운의 영향)  | 작 <sup>ㄷ</sup> 문[장문]   | 조음 방법의 변화        |
| 해 <sup>ㄹ</sup> 돋이<br>(뒤 음운의 영향) | 해 <sup>ㄹ</sup> 돋이[해도지] |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의 변화 |

**[학습 활동]**  
뒤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앞 음운이 조음 방법만 바뀌는 단어를 ㄱ~ㄹ에서 골라 보자.

|           |           |
|-----------|-----------|
| ㄱ. 난로[날로] | ㄴ. 만이[마지] |
| ㄷ. 실내[실래] | ㄹ. 톱날[툰날] |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보기>의 ‘탐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탐구 과제]**  
‘작다/적다’ 중 적절한 말이 무엇인지 온라인 사전에서 ‘작다’를 검색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말해 보자.

ㄱ. 민수는 진서에 비해 말수가 (작다/적다).  
ㄴ. 키가 커서 작년에 구매한 옷이 (작다/적다).  
ㄷ. 오늘 일은 지난번에 비해 규모가 (작다/적다).  
ㄹ. 그는 큰일을 하기에는 그릇이 아직 (작다/적다).  
ㅁ. 백일장 대회의 신청 인원이 여전히 (작다/적다).

\* →: ‘a→b’는 a를 b로 바꿔 써야 함을 나타냄.

- ① ㄱ: ‘작다’의 「1」을 고려할 때 ‘작다’가 맞겠군.  
② ㄴ: ‘작다’의 「2」를 고려할 때 ‘작다’가 맞겠군.  
③ ㄷ: ‘작다’의 「3」을 고려할 때 ‘작다’가 맞겠군.  
④ ㄹ: ‘작다’의 「4」를 고려할 때 ‘작다’가 맞겠군.  
⑤ ㅁ: ‘작다’, ‘작다<sup>2</sup>’와 ‘적다<sup>2</sup>’를 고려할 때 ‘적다’가 맞겠군.

15. <보기>의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학습 자료]**  
○ 직접 인용: 원래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큰따옴표(“ ”)에 넣어 인용하는 것. 조사 ‘라고’를 사용함.  
○ 간접 인용: 인용된 말이나 글을 자신의 관점에서 다시 서술하여 표현하는 것. 조사 ‘고’를 사용함.

**[학습 과제]**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하여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어 보자.

ㄱ. 지아가 “꽃이 벌써 꺾구나!”라고 했다.  
→ 지아가 꽃이 벌써 꺾다고 했다.  
ㄴ. 지아가 “버스가 벌써 갔어요.”라고 했다.  
→ 지아가 버스가 벌써 갔다고 했다.  
ㄷ. 나는 어제 지아에게 “내일 보자.”라고 했다.  
→ 나는 어제 지아에게 오늘 보자고 했다.  
ㄹ. 전학을 간 지아는 “이 학교가 좋다.”라고 했다.  
→ 전학을 간 지아는 그 학교가 좋다고 했다.  
ㅁ. 지아는 나에게 “민지가 너를 불렀다.”라고 했다.  
→ 지아는 나에게 민지가 자기를 불렀다고 했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잠깐 초록을 본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다.  
 초록에 붙잡힌 마음이  
 초록에 붙어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는 마음이  
 종일 떨어지지 않는다  
 여리고 연하지만 불길처럼 이글이글 휘어지는 초록  
 땅에 박힌 심지에서 끝없이 솟구치는 초록  
 나무들이 온몸의 진액을 다 쏟아내는 초록  
 ㉠ 지금 저 초록 아래에서는  
 얼마나 많은 잔뿌리들이 발끝에 힘주고 있을까  
 초록은 수많은 수직선 사이에 있다  
 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며 번져가고 있다  
 직선과 사각에 밀려 꺼졌다가는 다시 살아나고 있다  
 흙이란 흙은 도로와 건물로 모조리 딱딱하게 덮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초록이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잘리고 갠 것들이  
 자투리땅에서 이렇게 크게 세상을 덮을 줄은 몰랐다  
 콘크리트 갈라진 틈에서도 솟아나고 있는  
 저 저돌적인 고요  
 단단하고 건조한 것들에게 옮겨 붙고 있는  
 저 촉촉한 불길

[A]

- 김기택, 「초록이 세상을 덮는다」 -

(나)

어저 내 일이야 무슨 일 하다 하고  
 굳은 이 다 빠지고 검던 털이 희었네  
 어우와 소장불노력하고 노대에 도상비로다\*  
 <제1수>

셋 넷 다섯 어제인 듯 열 스물 열пят 지나  
 서른 마흔 한 일 없이 쉰 예순 넘는단 말인가  
 장부의 허다 사업을 못 다 하고 늙었느냐  
 <제2수>

생원이 무엇인가 급제도 헛일이니  
 밭 갈고 논 매더면 설마한들 배고프리  
 이제야 아무리 애달픈들 몸이 늙어 못하올쇠  
 <제3수>

너희는 젊었느냐 나는 이미 늙었구나  
 젊다 하고 믿지 마라 나도 일찍 젊었더니  
 젊어서 흐느적흐느적하다가 늙어지면 거짓 것이\*  
 <제4수>

㉡ 재산인들 부디 말며 과갑인들 마다 할까  
 재산이 우수하고 과갑은 재천하니\*  
 하오면 못할 이 없기는 착한 일인가 하노라  
 <제5수>

내 몸이 못하고서 너희더러 하라기는  
 내 못하여 애달프니 너희나 하여라  
 청년의 아니하면 늙은 후 또 내 되리  
 <제6수>  
 - 김약련, 「두암육가」 -

\* 소장불노력하고 노대에 도상비로다: 젊어서 노력하지 않고, 늙어서  
 상심과 슬픔뿐이로다.  
 \* 거짓 것이: 거짓말처럼 허망한 것이.

\* 재산이 우수하고 과갑은 재천하니: 재산은 운수가 있어야 하고 과거 급제는 하늘에 달렸으니.

16.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일부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③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④ 명령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⑤ 감탄사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고 있다.

17.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사물을 바라보거나 삶을 되돌아보며 사색하는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가)의 화자는 도시 공간에서 마주한 ‘초록’에 사로잡혀 초록을 들여다보며 그것이 지닌 생명력을 깨닫고, 이에 대한 감탄과 놀라움을 드러낸다. (나)의 화자는 자신의 백발을 바라보며 현재의 처지를 한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깨달은 바를 젊은이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① (가)의 ‘잠깐 초록을 본’ 것과 (나)의 ‘검던 털’이 하얗진 모습  
을 본 것은 사색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군.
- ② (가)의 ‘초록에 붙잡힌 마음’은 ‘초록’에 매료된 심리를, (나)  
의 ‘밭 갈고 논 매더면 설마한들 배고프리’는 넉넉지 않은 현  
실을 초래한 지난 삶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군.
- ③ (가)의 ‘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며’를 통해 ‘초록’이 도시 공  
간과 균형을 이루기를, (나)의 ‘늙은 후 또 내 되리’를 통해  
젊은이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고 있군.
- ④ (가)의 ‘밀려 꺼졌다가는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에서 ‘초록’  
의 끈질긴 생명력을, (나)의 ‘급제도 헛일’에서 출세를 위한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있군.
- ⑤ (가)의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는 ‘초록’의 새로운 모습  
을 발견한 놀라움을, (나)의 ‘이미 늙었구나’는 현재의 처지  
에 대한 탄식을 드러내고 있군.

18.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대상이 갖는 역동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점층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하나의 문장을 두 개의 시행으로 나누어 대상의 순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모순된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9.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의 '어저 내 일이야'에 담긴 한탄은, <제2수>의 '장부의 허다 사업'을 못 다 한 데서 비롯되는군.
- ② <제1수>의 '노대에 도상비로다'에 담긴 애상감은, <제4수>의 '늙어지면 거짓 것이'로 이어지는군.
- ③ <제2수>의 '서른 마흔 한 일 없이'에 담긴 반성은, <제4수>의 '젊어서 흐느적흐느적'하지 말라는 당부로 나타나는군.
- ④ <제3수>의 '이제야 아무리 애달픈들'과 <제6수>의 '내 못하여 애달프니'에는 세월의 무상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가 드러나는군.
- ⑤ <제5수>의 '하오면 못할 이 없기는 착한 일'은, <제6수>의 '너희더러 하라'에서 권유하는 내용이겠군.

20. 시상의 흐름을 고려하여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대상을 향한 화자의 애정이, ㉡에는 청자를 향한 화자의 원망이 나타나 있다.
- ② ㉠에는 대상과 화자 사이의 이질감이, ㉡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이 드러나 있다.
- ③ ㉠에는 감춰진 진실에 대한 화자의 회의가, ㉡에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의문이 나타나 있다.
- ④ ㉠에는 힘의 근원에 대한 화자의 상상이, ㉡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⑤ ㉠에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화자의 성찰이, ㉡에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수용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 초 유럽에서 일어난 과학 문명의 발전은 현실을 이루는 법칙을 하나씩 부정하였다. 절대적이라고 믿어 왔던 시간마저 상대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기존에 당연시 되어 온 인식에 의문을 품었다. 이는 서양의 회화에도 영향을 미쳐 큐비즘이라는 새로운 미술 양식을 탄생시켰다.

큐비즘은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 집중했던 전통 회화와 달리, 대상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그 근원적 형태를 그려 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대상의 본질과 관련 없는 세부적 묘사를 배제하고 구와 원기둥 등의 기하학적 형태로 대상을 단순화하여 질감과 부피감을 부각하였다. 색채 또한 본질 구현에 있어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몇 가지 색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큐비즘은 하나의 시점으로는 대상의 한쪽 형태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하나의 시점에서 대상을 보고 표현하는 원근법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대상의 전체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다중 시점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여러 시점에서 관찰한 대상을 한 화면에 그려 내고자 한 기법이다. 예를 들어, 한 인물을 그릴 때 얼굴의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대상의 전체 형태를 관람자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큐비즘은 사실적 재현에서 벗어나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표현하려 하였으며,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미적 인식을 환기하였다.

대상의 형태를 더 다양한 시점으로 보여 주려는 시도는 다중 시점의 극단화로 치달았는데, 이 시기의 큐비즘을 ㉠ 분석적 큐비즘이라고 일컫는다. 분석적 큐비즘은 대상을 여러 시점으로 해체하여 작은 격자 형태로 쪼개어 표현했고, 색채 또한 대상의 고유색이 아닌 무채색으로 한정하였다. 해체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대상은 부피감이 사라질 정도로 완전히 분해되었다. 이로 인해 관람자는 대상이 무엇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제목이나 삽입된 문자를 통해서만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

㉡ 대상이 극단적으로 해체되어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큐비즘은 화면 안으로 실제 대상 혹은 대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화면 밖의 재료들을 끌어들었다. 이것을 ㉡ 종합적 큐비즘이라고 일컫는다. 종합적 큐비즘의 특징을 보여 주는 대표적 기법으로는 '과피에 콜레'가 있다. 이는 화면에 신문이나 벽지 등의 실제 종이를 오려 붙여 대상의 특성을 표현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나무 탁자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화면에 나뭇결무늬의 종이를 직접 붙였다. 화면에 붙인 종이의 색으로 인해 색채도 다시 살아났다.

큐비즘은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 대상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다. 큐비즘이 대상의 형태를 실제에서 해방한 것은 회화 예술에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가져다주었다. 이는 표현 대상을 보이는 세계에 한정하지 않는 현대 추상 회화의 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1.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큐비즘이 사용한 표현 기법
- ② 큐비즘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
- ③ 큐비즘에 대한 다른 화가들의 논쟁
- ④ 큐비즘의 작품 경향이 변화된 양상
- ⑤ 큐비즘이 현대 추상 회화에 미친 영향


22.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본질을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 다중 시점에 집착한 결과이겠군.
- ② 인식의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대상의 변화를 무시한 결과이겠군.
- ③ 화면의 공간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대상의 형태를 희생한 결과이겠군.
- ④ 기하학적 형태에서 탈피하기 위해 대상의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표현한 결과이겠군.
- ⑤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미적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 결과이겠군.

23.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와 달리 고유색을 통해 대상을 그려 낸다.
- ② ㉠는 ㉡와 달리 삽입된 문자로만 대상을 드러낸다.
- ③ ㉡는 ㉠와 달리 작은 격자 형태로 대상을 해체한다.
- ④ ㉡는 ㉠와 달리 화면 밖의 재료를 활용해 대상을 표현한다.
- ⑤ ㉠와 ㉡는 모두 질감과 부피감을 살려서 대상을 형상화한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브라크의 「에스타크의 집들」은 집과 나무를 그린 풍경화이다. 그런데 회화 속 풍경은 실제와 다르다. 집에 당연히 있어야 할 문이 생략되어 있으며, 집들은 부피감이 두드러지는 입방체 형태로 단순화되어 있다. 그림자의 방향은 일관성 없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광원이 하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집과 나무는 모두 황토색과 초록색, 회색으로 칠해져 있다. 큐비즘의 시작을 알린 이 풍경화는 처음 공개되었을 때 평론가로부터 “작은 입방체(cube)를 그렸다.”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는 ‘큐비즘(Cubism)’이라는 명칭의 기원이 되었다.

- ① 집이 입방체 형태로 단순화된 것은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겠군.
- ② 풍경의 모습이 실제와 다른 것은 관찰한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③ 그림자의 방향이 일관성 없이 다양하게 표현된 것은 하나의 시점을 강제하는 원근법을 거부한 것이겠군.
- ④ 집에 당연히 있어야 할 문이 없는 것은 세부적 묘사는 대상의 본질과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겠군.
- ⑤ 색이 황토색, 초록색, 회색으로 제한된 것은 색채는 본질을 구현하는 데 부차적인 요소라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겠군.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설령탕집 주인 ‘달팽 씨’는 선행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인물이다. 그러나 우연히 신문 기자들에 의해 선행이 과장되어 세상에 알려지면서 달팽 씨는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본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죽음을 맞게 된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달팽 씨에게서 자꾸 멀어져가고 있었다. 그것을 눈치 못 챌 마스크들이 아니었다. 달팽 씨의 미담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부쩍 줄어들었다.

그러나 달팽 씨는 거기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다. 그가 입을 더 크게 벌렸다.

“나는 전과잡니다. 용서 못 받을 죄를 수없이 지고도 뻔뻔스럽게 살아온 흉악무도한 죄인입니다.”

달팽 씨는 듣기에 끔찍한 지난날 자기의 악행을 요목요목 들추어 만천하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치한, 사기, 모리배, 폭력..... 등등, 그는 초빙되어 간 그 강단에 서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의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쳐든 얼굴에 공포를 끼얹었다. 그다음에 그가 보여 주는 연기는 참회하는 자의 흐느낌과 손수건을 적시는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결론짓곤 했다.

“여러분은 이제 내가 어째서 내 식구의 배를 굶겨 가면서 나보다 못사는 사람, 나보다 불우한 이웃을 위하는 일에 몸을 던졌는가를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청중들이 떠나갈 듯 박수를 치며 고개를 크게 주억거렸다.

“어머니, 그게 사실입니까? 아버지가 신문에 난 것처럼 그렇게 나쁜 죄를 많이 진 분입니까?”

달팽 씨의 아들딸이 숨 가쁘게 달려와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제야 어머니의 얼굴에 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늘이 깔려 있음을 발견했다. 그네의 입에서 나온 대답 역시 전과는 달리 남편이 밖에서 한 말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아니다, 느 아버진 결코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어른이 아니다.”

“그럼, 뭐니까? 아버진 왜 당신의 입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달팽 씨의 부인은 더 대답하지 않고, 신문을 보고 부쩍 늘어난, 얼굴이 험악한 사람들의 식당 방문을 맞기 위해 일어서고 있었을 뿐이다. 어쨌든 달팽 씨의 그러한 ㉠ 폭탄선언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다시 달팽 씨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얼굴이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찾아와 손을 벌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만든 무슨 친선 단체의 회장직 감투가 여지없이 달팽 씨에게 씌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날 샌 원수 없고 밤 지난 은혜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너무나 쉽게 잊었다. 세상 사람들은 달팽 씨를 다시 그들의 관심 밖으로 내동댕이쳤다. 보은식당의 종업원들은 식당 안에서 나폴레옹처럼 초조하게 서성거리는 달팽 씨의 모습을 더욱 자주 보게 되었다.

“오늘 A 주간 신문 기자가 왔다 갔지?”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들어온 달팽 씨가 그의 부인한테 물었다.

“예, 왔었어요.”

“와서 뭘 물어보니까?”

“당신이 정말 옛날에 그런 나쁜 짓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모른다고 했지요, 제가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후우 가슴이라도 쓸어내릴 듯 숨을 내쉬던 달팽 씨가 손가락을 동그랗게 해 보이며 물었다.

“그래, 얼마나 쥐여 보냈소?”

“아무것도요, 마침 돈이 집에 하나도 없어서.”

“뭐라구? 그래, 그 사람을 빈손으로 보냈단 말이야?”

“아무래도 식당 문을 닫아야 할까 봐요. 지난 기 세금도 아직.....”

“뭐야? 도대체 여편네가 장살 어떻게 하길래 그따위 소릴

하는 거야?”

그러나 달평 씨의 부인은 사자처럼 포효하는 남편한테 맞서 대들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조용한 얼굴로 식당에 찾아온 손님을 맞았을 뿐이다.

이때 식당에 와 있던 달평 씨의 **아들딸들이** 어머니 대신 우, 하고 일어섰던 것이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우리 집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거나 계신 겁니까?”

“아빠, 아빠보다 열 배, 아니 백 배, 천 배, 만 배도 더 잘사는 사람들도 못하는 일을 아빠가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 생각 안 나세요?**”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자식들이 내놓는 그 공박에 속수무책으로 멍청히 듣고만 있던 달평 씨가 벌떡 일어나 종업원들도 다 있는 그 자리에서 **㉠ 폭탄선언**을 한 것이 바로 그때였다.

그것은 정말 대형 폭탄이었다. 어쩌면 달평 씨가 가진 마지막 카드였을 것이다.

“내 이 말은 더 있다가 하려 했었지만..... 기왕 아무 때고 알아야 할 일..... 올 것은 빨리 오는 게 피차.....”

여느 때와 달리 말까지 더듬어 대는 달평 씨의 목소리는 사뭇 비장한 느낌까지 드는 것이었다. 종업원들까지 숨을 죽였다.

“너희 셋은 모두 내 핏줄이 아냐. 기철이 년 호남선 기차간에서 주웠고, 기수 년 서울역 광장에 버려진 걸 주워온 거고, 애숙이 년 파주 양갈보촌이 네 고향이지. 물론 남들한테야 저기 있는 느털 어머니 배 속으로 난 것처럼 연극을 해왔다만.....”

얼굴이 하얗게 질린 달평 씨의 세 남매가 서로 얼굴을 마주본 다음 황황히 눈길을 피하며, 구원이라도 청하듯 카운터에 앉은 그들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때 달평 씨의 부인이 이제까지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분연한 얼굴 표정으로 일어섰던 것이다. 그녀가 소리쳤다.

“여보, 이제 당신 자식들까지 팔아먹을 작정이예요?”

가속으로 무너져 내려 더 어찌할 길 없는 남편의 그 두 번째 죽음의 순간에 이처럼 거연히 부르짖고 일어선 **그네의 외침**은 우리의 **달평 씨를 다시 한번 살려 낼 오직 한 가닥의 빛**이었던 것이다.

- 전상국, 「달평 씨의 두 번째 죽음」 -

2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②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 ③ 대화를 통해 인물들 간의 갈등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순차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26.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들은 달평 씨의 강연을 듣고 나서 심드렁해 했다.
- ② 달평 씨의 아들딸은 어머니의 발언으로 인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 ③ 종업원들은 달평 씨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 ④ 달평 씨는 A 주간 신문 기사를 만나 새로운 선행을 알릴 수 있었다.
- ⑤ 달평 씨의 부인은 어려워진 식당 운영에 대해 화를 내는 남편에게 맞서 대들지 않았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주인공인 ‘달평 씨’가 대중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서 몰락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순수한 의도로 선행을 베풀어 오던 달평 씨는 언론에 의해 유명세를 치르게 된 후 그것에 중독되어, 자극적인 정보에만 반응하는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보여 주기식 선행을 베풀고 거짓을 지어낸다. 그러한 허위의식으로 인해 그는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끝내 가족까지 파탄에 이르게 한다.

- 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부쩍 줄어들’자 ‘입을 더 크게 벌’리는 달평 씨의 모습에서 대중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인물의 욕심이 드러나는군.
- ② ‘끔찍한 지난날 자기의 악행’을 공개하자 ‘다시 달평 씨를 입에 올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자극적인 정보에만 반응하는 대중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③ ‘달평 씨에게 씌워’진 ‘친선 단체의 회장직 감투’를 거부하지 않은 것은 불우한 사람들까지도 철저하게 속이려는 달평 씨의 허위의식을 보여 주는군.
- ④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 생각 안 나’느냐고 묻는 ‘아들딸들’의 말을 통해 달평 씨가 보여 주기식 선행을 베풀고 있음이 드러나는군.
- ⑤ ‘달평 씨를 다시 한번 살려 낼 오직 한 가닥의 빛’인 ‘그네의 외침’은 달평 씨가 더 이상 파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아내의 저항이겠군.

28. ㉠,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사건의 초점을 다른 인물로 전환시키려는 행위이다.
- ② ㉡은 다른 인물들이 과거에 벌인 일들을 폭로하는 행위이다.
- ③ ㉠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은 상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다.
- ④ ㉡은 ㉠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의 전말을 드러내려는 행위이다.
- ⑤ ㉠과 ㉡은 모두 반향을 일으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어 보려는 행위이다.

[29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춘풍 아내 곁에 앉아 하는 말이

[A] “마오 마오 그리 마오. 청루미색\* 좋아 마오. 자고로 이런 사람이 어찌 망하지 않을까? 내 말을 자세히 들어보소. 미나리골 박화진이라는 이는 청루미색 즐기다가 나중에는 굶어 죽고, 남산 밑에 이 패두는 소년 시절 부자였으나 주색에 빠져 다니다가 늙어서는 상거지 되고, 모시전골 김 부자는 술 잘 먹기 유명하여 누룩 장수가 도망을 다니기로 장안에 유명터니 수만금을 다 없애고 끝내 똥 장수가 되었다니, 이것으로 두고 볼지라도 청루잡기 잡된 마음 부디부디 좋아 마소.”

춘풍이 대답하되,

[B] “자네 내 말 들어보게. 그 말이 다 옳다 하되, 이 앞집 매갈쇠는 한잔 술도 못 먹어도 돈 한 푼 못 모으고, 비우고개 이도명은 오십이 다 되도록 주색을 몰랐으되 남의 집만 평생 살고, 탁골 사는 먹돌이는 투전 잡기 몰랐으되 수천 금 다 없애고 나중에는 굶어 죽었으니, 이런 일을 두고 볼지라도 주색잡기\* 안 한다고 잘 사는 바 없느니라. 내 말 자네 들어보게. 술 잘 먹던 이태백은 호사스런 술잔으로 매일 장취 놀았으되 한림학사 다 지내고 투전에 으뜸인 원두표는 잡기를 방탕히 하여 소년부터 유명했으나 나중에 잘되어서 정승 벼슬 하였으니, 이로 두고 볼진대 주색잡기 좋아하기는 장부의 할 바라. 나도 이리 노닐다가 나중에 일품 정승 되어 후세에 전하리라.”

아내의 말을 아니 듣고 수틀리면 때리기와 전곡 남용 일삼으니 이런 변이 또 있을까? 이리저리 놓고 나니 집안 형용 볼 것 없다.

㉠ “다 내 몸에 정해진 일이요, 내 이제야 허물을 뉘우치고 책망하는 마음이 절로 난다.”

아내에게 지성으로 비는 말이

“노여워 말고 슬피 마소. 내 마음에 자책하여 가끔 말하기를, ‘오늘의 옳음과 어제의 잘못을 깨달았노라’고 한다오. 지난 일은 고사하고 가난하여 못 살겠네. 어이 하여 살잔 말인고? 오늘부터 집안의 모든 일을 자네에게 맡기나니 마음대로 치산하여 의식이 염려 없게 하여 주오.”

춘풍 아내 이른 말이,

㉡ “부모 유산 수만금을 청루 중에 다 들이밀고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이후에는 더욱 근심이 많을 것이니, 약간 돈냥이나 있다 한들 그 무엇이 남겠소?”

춘풍이 대답하되,

“자네 하는 말이 나를 별로 못 믿겠거든 이후로는 주색잡기 아니하기로 결단하는 각서를 써서 줘세.”

[중략 부분 줄거리] 춘풍 아내가 열심히 품을 팔아 집안을 일으키자 춘풍은 다시 교만해지고, 아내의 만류에도 호조에서 이천 냥을 빌려 평양으로 장사를 떠나게 된다. 춘풍이 평양에서 기생 추월의 유혹에 넘어가 장사는 하지 않고 재물을 모두 탕진한 채 추월의 하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춘풍의 아내가 통곡한다.

이리 한참 울다가 도로 풀고 생각하되, ‘우리 가장 경성으로 데려다가 호조 돈 이천 냥을 한 푼 없이 다 갚은 후에 의식 염려 아니하고 부부 둘이 화락하여 백 년 동락하여 보자. 평생의 한이로다.’

마침 그때 김 승지 덕이 있으되 승지는 이미 죽고, 만자제가 문장을 잘해 소년 급제하여 한림 옥당 다 지내고 도승지를 지낸 고로, 작년에 평양 감사 두 번째 물망에 있다가 올해 평양 감사 하려고 도모한단 말을 사환 편에 들었었다. 승지 덕이 가난하여 아침저녁으로 국록을 타서 많은 식구들이 사는 중에 그 덕에 노부인 있다는 말을 듣고, 바느질품을 얻으려고 그 덕에 들어가니, 후원 별당 깊은 곳에 도승지의 모부인이 누웠는데 형편이 가난키로 식사도 부족하고 의복도 초췌하다. 춘풍 아내 생각하되,

‘이 덕에 붙어서 우리 가장 살려내고 추월에게 복수도 할까.’

하고 바느질, 길쌈 힘써 일해 얻은 돈냥 다 들여서 승지 덕 노부인에게 아침저녁으로 진지를 올리고, 노부인에게 맛난 차담상을 특별히 간간히 차려드리거늘, 부인이 감지덕지 치사하며 하는 말이,

“이 은혜를 어찌할꼬?”

주야로 유념하니, 하루는 춘풍의 처더러 이르는 말이,

㉢ “내 들으니 네가 집안이 기울어서 바느질품으로 산다 하던데, 날마다 차담상을 차려 때때로 들여오니 먹기는 좋으나 불안하도다.”

춘풍 아내 여쭙되,

“소녀가 혼자 먹기 어렵기로 마누라님 전에 드렸는데 칭찬을 받사오니 오히려 감사하여이다.”

대부인이 이 말을 듣고 춘풍의 처를 못내 기특히 생각하더라.

하루는 도승지가 대부인 전에 문안하고 여쭙되,

“요사이는 어머님 기후가 좋으신지 화기가 얼굴에 가득하옵니다.”

대부인 하는 말씀이,

“기특한 일 보았도다. 앞집 춘풍의 지어미가 좋은 차담상을 매일 차려오니 내 기운이 절로 나고 정성에 감격하는구나.”

승지가 이 말을 듣고 춘풍의 처를 귀하게 보아 매일 사랑하시더니, 천만 의외로 김 승지가 평양 감사가 되었구나. 춘풍 아내, 부인 전에 문안하고 여쭙되,

“승지 대감, 평양 감사 하였사오니 이런 경사 어디 있사오리까?”

부인이 이른 말이,

㉣ “나도 평양으로 내려 갈 제, 너도 함께 따라가서 춘풍이나 찾아보아라.”

하니 춘풍 아내 여쭙되,

“소녀는 고사하옵고 오라비가 있사오니 비장\*으로 데려가 주시길 바라나이다.”

대부인이 이른 말이,

㉤ “네 청이야 아니 들겠느냐? 그리하라.”

허락하고 감사에게 그 말을 하니 감사도 허락하고,

“회계 비장 하라.”

하니 좋을시고, 좋을시고. 춘풍의 아내 없던 오라비를 보낼 쏬가? 제가 손수 가려고 여자 의복 벗어놓고 남자 의복 치장한다.

- 작자 미상, 「이춘풍전」 -

\* 청루미색: 기생집의 아름다운 기녀.

\* 주색잡기: 술과 여자와 노름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비장: 감사를 따라다니며 일을 돕는 무관 벼슬.

2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춘풍은 호조 돈 이천 냥을 빌려 평양으로 떠났다.
- ② 춘풍 아내는 바느질품을 팔며 생계를 이었다.
- ③ 춘풍 아내는 춘풍의 잘못에도 가정의 화목을 바라고 있다.
- ④ 도승지는 평양 감사직을 연이어 두 번 맡게 되었다.
- ⑤ 대부인은 도승지에게 춘풍 아내의 정성을 칭찬하였다.

30.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권위를 내세워 행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B]는 상대의 주장을 수용하여 태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 ③ [A]는 [B]의 내용을 예측하여 반박의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 ④ [B]는 [A]의 반례를 들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영웅의 행적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31.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있다.
- ② ㉡: 앞으로의 상황이 악화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 ③ ㉢: 상대방의 호의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 ④ ㉣: 상대의 처지를 고려해 동행을 권유하고 있다.
- ⑤ ㉤: 신의를 바탕으로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고 있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남편이 저지른 일을 아내가 수습하는 서사가 중심이 된다. 춘풍은 가장이지만 경제관념 없이 현실적 쾌락만을 추구하며 자신이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반면, 춘풍 아내는 적극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주도면밀하게 목적을 달성한다. 이러한 두 인물의 대비되는 특징으로 인해 무능한 가장의 모습과 주체적인 아내의 역할 및 능력이 부각된다.

- ① 춘풍이 가난을 불평하며 아내에게 집안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기는 것에서 무책임한 가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② 춘풍이 전곡을 남용하고 주색잡기에 빠져 있는 것에서 경제관념 없이 현실적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③ 춘풍 아내가 사환에게 정보를 얻고 김 승지 덕 대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에서 주도면밀한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④ 춘풍 아내가 춘풍을 구하기 위해 비장의 지위를 획득하고 남장을 하는 것에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엿볼 수 있군.
- ⑤ 춘풍이 각서를 쓰고, 춘풍 아내가 차담상을 차리는 것에서 신분 상승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군.

[33~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기원전 3세기경 중국의 전국시대 말기는 침략과 정벌의 전쟁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혼란의 시대였다. 이와 동시에 국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 모색한 여러 사상들이 융성한 시대이기도 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순자는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악(惡)이라고 규정하고 악은 온전히 인간의 성(性)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다. 성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동물적인 경향성을 일컫는 말로 욕망과 감정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 중에서 이익을 좋아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성이 악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자원과 재화는 한정적인데 사람들이 모두 이기적인 욕망을 그대로 좇게 되면 그들 사이에 다툼과 쟁탈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 성뿐만이 아니라 심(心)도 타고났기에 인간다워질 수 있고, 성에서 비롯된 사회 문제의 해결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심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뜻하는데, 인간의 감각 기관이 가져온 정보를 종합해서 인식하고 판단한다. 즉, 심은 성이 합리적인지 판단하여 성을 통제한다. 이러한 심의 작용을 통해 인간은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인간의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 또는 그것의 산물을 위(偽)라고 한다.

순자는 성을 변화시키는 위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특히 위의 핵심으로서 예(禮)를 언급하고 그것을 실천할 것을 주문한다. 예란 위를 ㉡ 추적하여 완전한 인격체가 된 성인(聖人)이 일찍이 사회의 혼란을 우려해 만든 일체의 사회적 규범을 말한다. 이는 개인의 도덕 규범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으로, 개인의 모든 행위의 기준이자 사회의 위계 질서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하는 것인데 이는 인간의 욕망 추구를 긍정하되 그 적절한 기준과 한계를 설정함을 의미한다.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위치에 맞게끔 욕망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다툼과 쟁탈이 없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때 순자는 ㉣ 군주(君)를 예의 근본으로 규정하고 그의 역할을 중시한다. 군주는 계승되어 온 예의 공통된 원칙을 지키고, 당대의 요구에 맞춰 예를 제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군주는 백성들의 직분을 정해 주고 그들을 가르쳐 예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백성들의 성은 교화되고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善)한 사회에 다다를 수 있다.

순자는 당대의 사상가들과 달리 사회 문제의 원인을 외적 상황에서 찾지 않고 인간의 타고난 성향에서 찾음으로써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순자는 인간의 후천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인간과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 신뢰한 사상가라 할 수 있다.

(나)

홉스가 살던 17세기는 종교 전쟁과 내전을 겪으며 혼란스러웠다. 이에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왕권신수설에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홉스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자 신이 아닌 인간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다.

홉스는 국가 성립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집단적 삶인 자연 상태를 가정한다. 그는 인간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또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데, 이를 자연권이라고 말한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데 그는 전쟁과도 같은 이 상황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 ㉠ 명명한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인간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평화와 안전을 바라게 하는 감정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때 인간의 이성은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법칙을 발견하는데 홉스는 이를 자연법이라 일컫는다. 자연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평화를 추구하고 따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간의 이성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그것을 양도하는 ㉡ 사회 계약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회 계약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 개인과 개인은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하고자 자연권의 대부분을 포기하는 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이 계약은 누군가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 그것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 쉽게 파기될 수 있다. 이 계약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약 위반을 제재할 강제력과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의 소유자를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이에 개인은 계약 위반을 제재할 공동의 힘을 지닌 ㉢ 통치자(통치자)와 두 번째 단계의 계약을 맺고 자신들의 권리를 그에게 양도한다.

이러한 계약의 과정을 거치며 ‘리바이어던’이라 불리는 국가가 탄생한다. 리바이어던은 본래 성서에 등장하는 무적의 힘을 가진 바다 괴물의 이름으로, 홉스는 이를 통해 계약으로 탄생한 국가의 강력한 공적 권력을 강조한 것이다. 통치자는 국가 권력의 실질적인 행사 주체로서 국가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대신에 개인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책무를 갖는다. 그는 강력한 처벌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개인들이 이에 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통치자가 개인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개인들 간의 투쟁을 해소함으로써 비로소 평화로운 사회가 ㉣ 구현된다.

홉스의 사회 계약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국가가 성립하게 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가 지닌 힘의 원천을 신이 아닌 자유로운 개인들에게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주권 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3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 ② 현실을 개선하려는 사상가의 견해와 그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종교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성립된 권력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 ④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야기한 사상의 탄압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지도자의 위상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34. (가)의 [군주]와 (나)의 [통치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군주는 사회 구성원의 내면의 변화를 전제로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를 만든다.
- ② 통치자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평화로운 사회를 만든다.
- ③ 군주는 백성을 사회적 위치에 맞게 행동하도록 인도하고, 통치자는 개인들의 상호 적대적인 행위의 중지를 요구한다.
- ④ 군주는 예를 바탕으로 한 교화를 통해, 통치자는 강력한 공적 권력을 바탕으로 한 처벌을 통해 사회의 질서를 도모한다.
- ⑤ 군주와 통치자는 모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사회적 역할을 이행해야 할 책무를 갖는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의 욕망보다 사회의 요구를 강조하여 심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 ② 인간의 성과 심의 차이를 구분하여 새로운 도덕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 ③ 사회 구성원이 심을 체득하게 하여 혼란한 사회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④ 개인의 도덕 규범과 나라의 통치 규범을 구분하여 사회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것이다.
- ⑤ 한정적인 사회적 자원과 재화를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회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36.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맺은 것이다.
- ②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포기는 자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다.
- ③ 개인은 첫 번째 단계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공동의 힘을 제재할 수 있다.
- ④ 첫 번째 단계의 계약은 두 번째 단계의 계약과 달리 위반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다.
- ⑤ 두 번째 단계의 계약은 첫 번째 단계의 계약과 달리 개인의 권리 양도가 이루어진다.

37. (가)의 '순자'와 (나)의 '홉스'의 입장에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생물학자인 개릿 하딘은 공유지에서의 자유가 초래하는 혼란한 상황을 '공유지의 비극'이라 일컬었다. 그는 한 목초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예로 들어 이를 설명하였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다. 한 목동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많은 소 떼들을 목초지에 풀어 놓는다. 다른 목동들도 같은 방법을 취하게 되고 결국 목초지는 황폐화된다.

- ① 순자는 목동들이 '위'를 행하였다면 목초지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군.
- ② 홉스는 목동들이 처한 상황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욕망이 발현된 '자연 상태'라고 생각하겠군.
- ③ 순자는 완전한 인격체가 만든 규범이, 홉스는 강력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겠군.
- ④ 순자는 '성'을 그대로 좇는 모습으로, 홉스는 '자연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목동들의 이기적 행동을 이해하겠군.
- ⑤ 순자와 홉스는 모두 목동들이 공포를 느끼게 되면 문제 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군.

38.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
- ② ㉣: 지식, 경험, 자금 따위를 모아서 쌓음.
- ③ ㉤: 자기의 주장을 굽혀 남의 의견을 좇음.
- ④ ㉢: 사람, 사물, 사건 등의 대상에 이름을 지어 붙임.
- ⑤ ㉤: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함.

[39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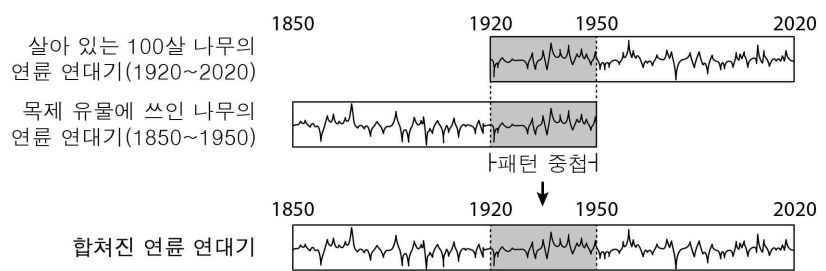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매해 하나씩 나이테를 만들기 때문에 나이테를 세면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나이테는 단순히 나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만 활용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나이테는 현재 남아 있는 다양한 목재 유물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제작 연도를 ㉠ 규명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나무의 나이테는 위치에 따라 크게 심재, 변재로 구분된다. 심재는 나무의 성장 초기에 형성된 안쪽 부분으로 생장이 거의 멈추면서 진액이 내부에 갇혀 색깔이 어둡게 변한 부분이다. 변재는 심재의 끝부터 껍질인 수피 전까지의 바깥 부분으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성장 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어 밝은 색상을 띠는 부분이다. 나무의 나이는 이 심재와 변재의 나이테 수를 합한 것이 된다.

그런데 나무의 나이테 너비를 살펴보면 매해 그 너비가 동일하지 않다. 그 이유는 '제한 요소의 법칙'에 의해서 나무의 성장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 빛, 온도, 이산화 탄소 등의 다양한 환경 요소가 필요한데 환경 요소들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도 변하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환경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 환경 요소 중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 요소의 법칙이다.

나무가 가장 부족한 요소에 모든 생물학적 활동을 맞추는 것은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한 전략이다. 만일 나무의 생장이 가장 풍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이뤄진다면 성장에 필요한 생물학적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아져 ㉡ 고사할 위험이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한 요소의 법칙은 모든 나무의 성장에 예외 없이 적용되며, 그 결과로 동일한 수종이 유사한 성장 환경에서 자라면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이 유사하다. 하지만 수종이 같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성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은 달라지게 된다.

나이테를 활용하여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나 환경 조건을 추정하는 것을 연륜 연대 측정이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 연륜 연대기가 있어야 한다. 수천 년 살 수 있는 나무는 많지 않으나 아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수천 년에 달하는 연륜 연대기 작성은 가능하다.



살아 있는 나무에서 나이테 너비를 ㉣ 측정하면 정확한 연도가 부여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오래지 않은 과거에 제작된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하여 이미 작성된 연륜 연대기와 비교하면 패턴이 겹치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기간은 지금 살아 있는 나무와 과거 유물에 사용된 나무가 함께 성장하던 기간이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보다 과거의 목재 유물로 작성된 연륜 연대기와 패턴 비교를 반복하면 수백, 수천 년에 달하는 나무의 연륜 연대기

작성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작성된 장기간의 연륜 연대기를 표준 연대기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의 표준 연대기를 ㉤ 보유하고 있다. 연륜 연대 측정은 이 표준 연대기와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작성한 유물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진행되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목재 유물의 나이테에 변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나무를 가공할 때는 벌레가 먹거나 쉽게 썩는 변재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잘려 나가기도 하는데 만일 유물의 나이테에 변재가 없는 경우에는 벌채 연도를 추정할 수 없게 된다.

변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에는 목재 유물의 각 부분에서 나이테를 채취해 패턴이 중첩되는 부분을 비교하여 유물 연대기를 만든 다음, 비교 대상으로 사용할 표준 연대기를 정해야 한다. 이때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상관도를 나타내는 t값과 일치도를 나타내는 G값을 고려해야 하는데 100년 이상의 기간을 상호 비교할 때 t값은 3.5 이상, G값은 65% 이상의 값을 가져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 간주된다.

[A] 표준 연대기를 정한 후에는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하여 중첩되는 부분의 시작 나이테의 연도부터 마지막 나이테의 연도를 확정하여 절대 연도를 부여한다. 유물의 나이테가 변재를 완전하게 갖고 있을 경우에는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벌채 연도가 된다. 하지만 변재의 바깥쪽 나이테 일부가 잘려 나갔다면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잘려 나간 변재 나이테 수를 더한 값이 벌채 연도가 되는데 이때는 수령별 평균 변재 나이테 수를 참고한다. 비슷한 수령의 나무가 갖는 평균 변재 나이테 수에서 유물에 남아 있는 변재 나이테 수를 빼, 나무를 가공할 때 잘라 낸 변재 나이테 수를 구한다. 그리고 이를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더해 벌채 연도를 확정한다. 그 다음, 벌채한 후 가공할 때까지 나무를 건조하는 일반적인 기간인 1~2년을 더해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를 추정한다.

\* 벌채: 나무를 베어 냄.

39. 밑글에서 사용된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대상의 특성을 관련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③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④ 어려운 개념을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 ⑤ 반대 상황을 가정하여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40.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심재는 생장이 거의 멈춘 나이테로 수피에 인접하여 있다.
- ② 변재는 성장 세포에 있는 진액으로 인해 밝은 색상을 띤다.
- ③ 나무의 수령은 변재 나이테의 개수로 파악할 수 있다.
- ④ 나이테의 너비는 가장 풍족한 환경 요소로 결정된다.
- ⑤ 심재 나이테만 남아 있다면 연륜 연대 측정은 불가하다.

4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수종이라도 환경이 다르면 패턴이 달라진다.
- ② 패턴 비교를 반복하면 장기간의 연대기 작성이 가능하다.
- ③ 나이테의 너비가 일정하면 패턴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제한 요소의 법칙에 따라 나무가 성장한 결과를 보여 준다.
- ⑤ 현재 국내에는 3종의 나무에 대한 표준 연대기가 존재한다.

42.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연륜 연대 측정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소나무 서랍장에 대한 연륜 연대 측정]**

**I. 측정 참고 자료**

- 두 곳의 서랍에서 같은 나무의 나이테를 채취하였고, 이 중 서랍2에서는 좁은 나이테 모양으로 보아 바깥쪽 나이테가 거의 수피에 근접한 것을 확인하였음.
- 서랍1, 2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하여 유물 연대기를 작성한 후 표준 연대기와 비교하여 절대 연도를 부여함.

**II. 유의성 및 수령별 평균 변재 나이테 수 자료**

| 표준 연대기 | t값  | G값  | 평균 변재 나이테 수 |         |
|--------|-----|-----|-------------|---------|
|        |     |     | 수령 100년     | 수령 150년 |
| a산 소나무 | 3.7 | 69% | 60개         | 77개     |
| b산 소나무 | 3.2 | 60% | 58개         | 65개     |

**III. 소나무 서랍장 유물 연대기 및 절대 연도 부여 자료**

- ① t값과 G값을 고려할 때 표준 연대기는 a산 소나무의 연대기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 ②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이 중첩되는 기간은 1700년부터 1800년까지일 것이다.
- ③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를 고려할 때 서랍장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는 1802년일 것이다.
- ④ 비슷한 수령의 소나무가 갖는 평균 변재 나이테 수를 참고하면 가공할 때 잘려 나간 변재 나이테 수는 3개일 것이다.
- ⑤ 벌채한 나무의 건조 기간을 고려하면 서랍장의 제작 연도는 1804년에서 1805년 사이일 것이다.

43. ㉠ ~ ㉣를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밝히는
- ② ㉡: 말라 죽을
- ③ ㉢: 헤아리면
- ④ ㉣: 가지고
- ⑤ ㉤: 여겨진다

[44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동물원의 코끼리들이 도심으로 탈출했다. 근처 선거 유세장에서는 정치인이 부상을 당하였고, 일대는 쑥대밭이 되었다. 조련사는 유세를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코끼리를 풀어 준 혐의로 경찰서에 붙잡혀 와 조사를 받는다. 참고인 자격의 의사와 아들의 면회를 온 어머니도 함께 있다.

**조련사:** 정말인데. 코끼리들은 공연하면서 많이 우는데. 답답하다고 우는데. 슬퍼서 우는데. 난 다 알고 있었는데. 코끼리들이 며칠 전서부터 도망갈 조짐을 보인 것도 알았는데. 도망가려고 의논하는 소릴 들었는데. 그리고 그날은 공원에 갈 때 다른 날과 다르게 빨리 걸었는데. 난 눈치를 챘는데. 오늘이구나. 다른 조련사들이 나한테 다 말기고 매점에 갔을 때, 코끼리들이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거위들이 꺽꺽댈 때 서로 눈을 마주쳤는데. 나도 코끼리랑 눈이 마주쳤지만 휘파람을 불었는데. 못 본 척 휘파람만 불었는데. 도망가라고. 가서 가족들 애인들 만나라고 일부러 못 본 척했는데.

**어머니:** 겁을 많이 먹었어요. 두려우면 말이 많아져요.

어머니가 손수건을 꺼내 조련사를 닦아 주려 하나 조련사가 피한다.

**의사:** (조련사에게) 도망치지 마세요. 선생님은 지금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그리로 도망가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직면하세요. 직면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정정당당하게 직접 부딪치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조련사가 외면한다.

**형사:** (담배를 비벼 끄고) 야, 인마! 나 똑바로 쳐다봐. 너 아까 시인했지? 시켜서 했다고. 그들이 널 1년 전부터 코끼리 조련에 투입했잖아.

조련사가 외면한다.

**어머니:**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 난 그저 착한 마음에 코끼리들을 풀어주고 싶었잖아. 네가 그랬잖니? 동물들이 밧줄에 묶여 있는 것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꼭 네가 묶인 것처럼 마음이 아프다고. 왜 말을 못 해? 왜 그렇게 말을 못 해?

조련사는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 너무 답답하다. 그는 발을 구르고 팔을 휘두르고 고개를 흔들며 몸으로 그 답답함을 호소한다.

**조련사:** 진짜 그랬는데. 왜 내 말을 안 믿는데.

**형사:** (소리를 지른다) 가만히 앉아!

**의사:** 직면하기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어머니:** 애야, 정신 차려.

(중략)

**조련사:** (꽤 지쳐 있다) 내가 했는데. 다 내가 했는데.

**형사:** (조련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만, 그만. 진정해. 거기 까지. 잘했어. 오후에 기자단이 오면 나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하면 돼. 그러면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음모가 드러나는 거지. 걱정 마. 너 가벼운 문책을 받는데 그치도록 손씨 줄게.

이때, 친절한 노크 소리. 느닷없이 코끼리가 들어온다. 코끼리는 오로지 조련사에게만 보인다. 따라서 조련사와 코끼리의 대화는 아무도 들을 수 없다.

**조련사:** 삼코!

코끼리가 조련사에게 다가와 그를 일으켜 세운 후 가슴에 번호표를 달아준다.

**코끼리:** 57621번째 코끼리가 된 걸 축하해.

코끼리가 조련사의 목에 화환을 걸어 준다. 코끼리가 조련사를 형사가 있는 쪽으로 보낸다. 이때부터 말하는 사람에게만 차례로 조명이 비춰진다. 조련사에게 조명이 비춰질 때마다 그는 조금씩 코끼리로 변해 있다.

**형사:** (조련사에게) 넌 톱기사로 다뤄질 거야. 다른 애긴 집 어치우고 유세장 얘기만 해. 어떻게 유세장으로 코끼리를 유인했는지. 고생했다. 배고프지? 좀 이따 따뜻한 국밥이라도 먹자. 기자 회견 때는 김창건 의원 이름을 분명히 말해. 그래야 네 혐의가 쉽게 풀릴 테니까.

조련사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오른손을 올려 이마에 경례를 붙인다. 조련사가 어둠으로 사라지면 어둠 속에 있던 코끼리가 그에게 조끼를 입힌다. 코끼리가 그를 의사에게 보낸다.

**의사:** 고백한 내용, 모두 녹음했어요. 코끼리를 사랑할 순 있지만 그건 병이에요. 병을 고치는 건 문제점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죠. 선생님의 인정은 정말 용감한 일입니다. 고비를 넘기셨어요. 선생님께도 곧 진짜 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코끼리가 아닌 진짜 여자.

조련사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인사를 정중하게 한다. 조련사가 어둠으로 사라지면 코끼리가 그에게 화려한 벨벳 모자를 씌운다. 코끼리가 그를 어머니에게 보낸다.

**어머니:** 어찌됐니. 순진하기만 한 걸. 그렇게 생겨 먹은 걸. 인생 뭐 있니? 생긴 대로 사는 거지. 그래도 넌 여전히 착하고 멋지다. 그럼, 누구 아들인데. 누가 너처럼 용감할 수 있니? 그래, 다 풀어 줘. 다 초원으로 데리고 가. 개구리도 코끼리도, 엄마도 아빠도 다, 다 데리고 가. 사람들이 나중엔 알 거야. 네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혹시 아니? 노벨 평화상이라도 줄지.

조련사가 어머니를 살짝 포옹했다 풀다. 조련사가 어둠으로 사라지면 코끼리가 그에게 커다란 코가 붙어 있는 머리를 씌워 준다. 어느새 조련사는 코끼리와 똑같은 형상을 갖췄다. 조

명이 서서히 무대 전체를 비춘다. 형사, 의사, 어머니는 자신의 의지가 관철된 듯, 결의에 찬 박수를 친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져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된다. 마치 서커스를 보려고 몰려든 관중의 박수 소리처럼. 조련사와 코끼리는 형사, 의사, 어머니 사이를 돌며 쇼를 시작한다.

- 이미경, 「그게 아닌데」 -

44.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련사는 코끼리들이 동물원에서 탈출하려는 모습을 보고도 방관했다고 말했다.
- ② 형사는 조련사에게 배후 세력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 하라고 다그쳤다.
- ③ 어머니는 조련사가 한 행동의 원인을 조련사의 심리나 성품에서 찾았다.
- ④ 의사는 조련사의 말과 행동을 병과 연관 지어 해석했다.
- ⑤ 형사, 의사, 어머니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조련사를 설득할 방법을 모색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은 사람들 사이의 소통 단절의 문제를 조련사가 코끼리로 변해 가는 과정을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조련사는 상대가 자신만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낀다. 결국 조련사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타인의 의지에 맞추어 순응하는 수동적인 처지가 된다. 조련사가 코끼리가 되는 결말은 그가 회복 불가능한 단절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① 조련사가 어머니의 손길을 피하고, 의사와 형사의 말을 외면하는 것에서 소통이 단절된 상황을 엿볼 수 있군.
- ② 조련사가 꽤 지쳐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했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에서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자포자기의 심정을 엿볼 수 있군.
- ③ 조련사가 코끼리로 조금씩 변하면서 형사, 의사의 말에 미소를 짓는 것에서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벗어났음을 엿볼 수 있군.
- ④ 조련사가 코끼리의 형상을 갖춘 뒤 형사, 의사, 어머니가 결의에 찬 박수를 치는 것에서 자신들의 의지가 관철된 만족감을 엿볼 수 있군.
- ⑤ 조련사가 코끼리가 되어 형사, 의사, 어머니 사이를 돌며 쇼를 하는 것에서 동물원의 코끼리와 다를 바 없는 수동적인 처지로 전락했음을 엿볼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릴 적 종이비행기를 접어 하늘 높이 신나게 날렸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 종이비행기 날리기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세계 대회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자료 1을 제시하며) 바로 이 비행기가 세계 종이비행기 대회 오래 날리기 종목에서 29.2초의 신기록을 세운 주인공인데요. 오늘은 이 세계 1등 종이비행기의 비밀을 파헤쳐 어떻게 접어야 비행기를 더 오래 날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자료 1을 가리키며) 이렇게 날개 면적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날개 면적이 넓을수록 양력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양력은 종이비행기가 공중에 뜰 수 있게 하는 힘으로, 비행기의 날개 윗면과 아랫면을 지나는 공기 흐름의 압력 차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날개 면적이 넓으면 날개와 접촉하는 공기량이 많아져 더 큰 양력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 종이비행기가 공중에 더 오래 떠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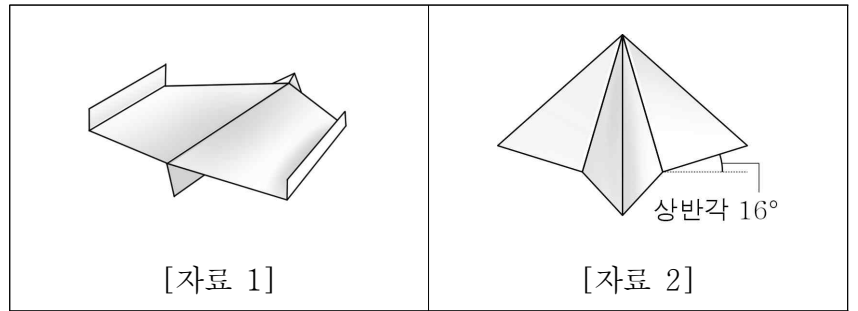
두 번째 비밀은, 날개의 모양과 각도에 있습니다. 종이비행기가 오래 날려면 공기 소용돌이 현상을 줄여야 하는데, (자료 1을 가리키며) 이렇게 날개 끝부분을 위로 접으면 소용돌이가 줄어들어 좌우 균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팔을 벌려 Y자 모양을 취하며) 날개를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 접는 게 좋습니다. (자료 2를 가리키며) 날개가 수평선에서 위로 들린 각을 상반각이라 하는데, 종이비행기의 상반각은 이렇게 약 16°가 적합합니다. 그래야 비행 중 기울거나 흔들리는 현상이 줄어 더 오래 날 수 있거든요.

종이비행기를 오래 날리고 싶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날개 면적을 넓혀 양력을 크게 하고, 날개 끝을 위로 접고 상반각을 적절하게 만들어 비행기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질문이 있군요. (청중의 질문을 듣고)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에 다른 종목은 없느냐고요? 멀리 날리기 종목과 곡예 비행 종목 등이 있습니다. 멀리 날리기용 비행기는 날개를 길고 좁게 접어 앞부분이 뾰족한 형태가 많은데, 이는 비행을 방해하는 힘인 항력을 줄여 비행 거리를 늘립니다. 그리고 곡예용 비행기를 접을 때는 좌우 날개의 모양에 다양한 변화를 주어서 공중에서 방향 전환이나 회전을 쉽게 하도록 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참고해서 나만의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끝없는 상상력과 도전 정신을 펼쳐 보세요. 다음 세계 종이비행기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②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질문을 던져 청중의 내용 이해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 ④ 청중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청중에게 발표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2.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료 1]을 활용하여 비행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자료 1]을 활용하여 비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종이의 두께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자료 2]를 활용하여 날개의 방향에 따른 공기 흐름의 압력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 ④ [자료 2]를 활용하여 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날개 각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여 날개의 길이와 비행 거리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3. 다음은 발표를 들으며 학생이 정리한 내용의 일부이다. ㄱ ~ ㄴ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오래 날리기용 종이비행기
  - 날개를 넓게 만들기 → 양력 증가 ..... ㄱ
  - 날개 끝을 위로 접기 → 양력 감소 ..... ㄴ
  - 날개의 상반각을 적절히 설정 → 균형 유지 ..... ㄷ
- 멀리 날리기용 종이비행기
  - 날개를 길고 좁게 접기 → 항력 감소 ..... ㄹ
- 곡예용 종이비행기
  - 날개 모양을 다양하게 접기 → 방향 전환, 회전 용이 ..... ㅁ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ㄹ
- ⑤ ㅁ

[4~7] (가)는 또래 상담부 학생들의 회의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동아리 부장'이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아리 부장: 오늘은 학생들의 고민에 대해 조언하는 글을 동아리 소식지에 실기 위해 회의하기로 했잖아. 누리집에 올라온 사연 중 학생들이 공감할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

부원 1: 나는 '진로를 찾는 과정이 어렵고 막막해요.'라는 고민에 공감이 되더라고. 진로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소개해 주면 어떨까.

부원 2: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나도 '내 희망 진로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막연하게 느껴지더라.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부원 3: 혹시 '커리어넷' 들어 봤어? 난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다양한 진로와 관련된 정보들이 많더라고. 무료로 진로 검사를 받아볼 수도 있고.

부원 1: 나는 선배들을 통해 '어디가'라는 진학 관련 누리집을 알게 되었는데 거기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꽤 많아.

동아리 부장: 정리하면, 진로나 진학과 관련된 정보는 '커리어넷'과 '어디가'를 참고하면 된다는 거구나. 친구들이 두 누리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면 좋겠다.

부원 2: 나는 '공부해도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 불안해요.'라는 고민이 눈에 띄더라. 뭘가를 성취하기 전에는 정체기가 와 힘들다던데, 나도 1학년 때 그런 시기를 겪었어.

부원 1: 그래?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 줄래?

부원 2: 목표를 크게 세워 노력해 보았지만 잘 안 되어서 지치더라고. 그래서 하루에 할 수 있는 만큼으로 목표를 작게 쪼개 보았어.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끼며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실력도 목표한 만큼 늘어 있더라.

부원 3: 네 경험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소개해 주면 좋겠다.

동아리 부장: 진로, 학업 이외에 다룬 만한 사연이 또 있을까? 친구 관계와 관련된 고민도 많던데, 이에 대해 다뤄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부원 3: 그럼 '친했던 친구와 사이가 멀어져서 속상해요.'라는 고민을 다루면 좋겠어. 어떤 조언을 해 줄까?

부원 1: 왜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는지 상황을 먼저 되짚어 본 다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눠 봐야 할 것 같아.

부원 2: 내 생각에 이미 멀어진 친구와 진솔한 대화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부원 3: 친구를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가능할 것 같아. 친구와 관계가 멀어져서 속상하고, 친구의 생각도 듣고 싶다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지. [A]

부원 2: 그렇구나. 멀어진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어렵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말대로 하면 어렵지 않게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다. 대화할 때 참고할 만한 좋은 방법은 없을까?

부원 1: 대화할 때는 공감하며 듣는 태도가 중요해. 친구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친구의 말에 공감하고 있다는 걸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동아리 부장: 논의해 보니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 그럼 내가 학생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오늘 논의한 고민의 순서대로 소제목을 달아 글을 구성해 볼게. 혹시 추가로 넣을 만한 내용이 있을까?

부원 3: 우리 동아리에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 주면 좋겠어. 아직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더라고.

동아리 부장: 좋아. 다음 회의 때는 내가 쓴 글을 읽고 같이 고쳐 보자.

(나)

답답한 고민, 시원하게 풀어 드려요!

설렘으로 가득 찼던 3월도 거의 지나고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래 상담부 부원들이 이번 달에 선정된 사연 세 가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해 조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진로를 찾는 과정이 어렵고 막막해요.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커리어넷>에 접속하여 진로 심리 검사를 받아 보고, 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직업 관련 정보를 추가로 탐색해 보면 좋아요. 그리고 해당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진학 정보는 <어디가>에 있으니 접속해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2. 공부해도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 불안해요.

'동트기 전 새벽이 제일 어둡다.'라는 말을 들어 본 적 있나요?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전에는 때때로 마음처럼 되지 않는 정체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사연의 주인공 또한 동트기 직전의, 가장 어둡고 추운 정체기 상황일 수 있어요. 당장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 답답하다면 목표를 작게 쪼개서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해 있을 거예요.

3. 친했던 친구와 사이가 멀어져서 속상해요.

관계를 회복하려면 왜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는지 상황을 차분히 되짚어 본 후에 친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게 좋습니다.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너와 관계가 멀어져서 속상해. 네 생각은 어떤지 말해 주면 좋겠어."라며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친구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에 공감하고 있음을 표현해 주세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친구도 그 손을 마주 잡아 줄 거예요.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싶은 순간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흔들리며 피어나는 꽃'입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3층 또래 상담부 동아리실이나 또래 상담부 누리집에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4. '동아리 부장'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회의 참여자에게 회의의 목적을 상기시키고 있다.
- ② 회의 참여자의 발언 내용을 요약해 정리하고 있다.
- ③ 회의 참여자에게 이어서 논의할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 ④ 회의의 결과에 대한 회의 참여자의 소감을 묻고 있다.
- ⑤ 다음 회의의 화제를 예고하며 회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5. [A]에 나타난 회의 참여자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원 1’은 ‘부원 3’의 질문에 답변하며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정정하고 있다.
- ② ‘부원 2’는 ‘부원 1’이 언급한 해결책이 다른 상황에 더 적절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 ③ ‘부원 3’은 ‘부원 2’의 의견에 수긍하며 자신의 의견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④ ‘부원 2’는 ‘부원 3’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기존 생각이 바뀌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⑤ ‘부원 1’은 ‘부원 2’의 질문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하고 있다.

6. (가)에서 언급된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동아리 부장’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회의 내용 순서에 따라 글을 구성하고 고민 내용을 소재목으로 제시해야겠어.
- ② 동아리 부원의 진로 탐색 경험과 유사한 또 다른 사연을 추가로 수집해 제시해야겠어.
- ③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한 동아리 부원의 발언을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제시해야겠어.
- ④ 멀어진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제시해야겠어.
- ⑤ 고민이 있는 학생들이 또래 상담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겠어.

7. 다음은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신문 칼럼]

새로운 사람, 사건, 지식 등이 우연히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익숙한 것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 ①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자신과 맞는 진로를 선택할 기회를 우연히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② 진로를 선택할 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보다 실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③ 자신의 공부 방법에 대한 믿음을 갖고 끈기 있게 노력하다 보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④ 학습 과정에서 우연히 겪는 정체기를 극복하려면 수립한 계획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친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진솔한 대화를 시도하고 친구의 입장에 공감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8~10]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학생의 초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가득한 동네를 떠나 이사 준비를 하며 거실 한구석에 있던 ‘은재의 성장 일지’를 발견했다. 끄트머리가 누렇게 변한 책자를 펼쳐 보니 나의 어렸을 적 사진과 함께, 엄마의 메모가 눈에 띄었다. ‘유치원 등원 첫날, 씩씩하게 손 흔드는 은재, 언제 저렇게 컸나…….’ 한 글자씩 눌러 적은 메모에서 엄마가 하루하루 커 가는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가 느껴져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 내 수첩이 떠올랐다. 방에 가서 ‘2022년’이라고 적힌, 중학생 때 쓴 수첩을 집어 들었다. 펼쳐 본 수첩 속 달력에는 매일의 주요한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스로 챙겨야 할 일정이 많아지다 보니 처음에는 쏟아지는 일정에 압도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다. ‘오늘, 도서관 책 반납’ 같은 간단한 일정부터 여행 같은 긴 일정까지 하나하나 메모로 써 놓고 보면 앞으로의 일정들을 모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샘솟고는 했다.

일상 속 소중한 추억도 짙막한 메모로 남아 있었다. 3월의 어느 날에 적힌 ‘우쿨렐레 연습, 손가락이 아파, 힘들어.’라는 메모를 보고는 음악 수행평가를 위해 잠 못 이루고 손가락이 퉁퉁 부르들 때까지 우쿨렐레 연주를 연습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5월의 어느 날에 적힌 ‘우쿨렐레 완벽, 기분 최고!’라는 메모를 보고는 수많은 연습 끝에 곡을 완벽히 연주했을 때의 뿌듯함이 되살아났다. 이렇게 내 삶을 차곡차곡 쌓아 둔 추억의 서랍장을 열어, 발전해 온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나 자신이 기특하게 여겨졌다.

수첩 속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민재랑 싸웠다, 민재는 왜 그랬지? 속상해..., 내 잘못도 있지...’라는 메모가 눈에 띄었다. 동생과 다툰 후 동생이 나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것 같아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썼던 메모였다. 그때 메모를 적으면서, 나는 동생의 입장을 헤아려 볼 수 있었고, 내 감정에만 매몰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보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파도처럼 요동치던 나의 마음은, 메모를 하며 햇살에 반짝이는 푸른 물결같이 잔잔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책장 한 칸을 차지한 수첩들에 적힌 메모에는 하루하루 나아지는 나의 모습들이 가득 차 있다. 지금도 메모들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8. ‘학생의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화를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② 직유법을 사용하여 내면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 ③ 감정을 이입하여 자연과의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의태어를 사용하여 경험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색채어를 사용하여 소재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9.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쓰기 전에 구상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ㄱ~ㄴ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1) 처음  
○ 엄마의 메모를 발견함. .... ㄱ

2) 중간  
○ 메모를 통해 일정을 계획했던 일.  
→ 일정을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김. .... ㄴ

○ 메모를 통해 추억을 되돌아 본 일. .... ㄷ  
→ 연습으로 발전해 온 나에게 기특함을 느낌. .... ㄸ

○ 메모를 통해 감정을 추슬렀던 일.  
→ 내 감정을 헤아려 준 동생에게 고마움을 느낌. .... ㄹ

3) 끝  
○ 나의 모습을 간직한 메모가 쌓이고 있음.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ㄸ      ⑤ ㄹ

10. <보기>는 '학생의 초고'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초고에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 글이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 들어. 마지막 문단의 맥락을 고려해서 메모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의인법을 사용한 문장을 추가하면 좋겠어.

- ① 메모는 나를 과거로 데려다주는 타임머신이다.
- ② 메모하는 습관을 유지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 ③ 메모는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함께 커 가는 내 삶의 소중한 짝꿍이다.
- ④ 메모는 언제나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환하게 밝혀 주는 등대이다.
- ⑤ 메모는 밝게 웃으며 상상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 주는 친절함 안내원이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본용언은 문장의 주어를 주되게 서술하는 용언이고, 보조 용언은 본용언의 의미를 보충하는 용언이다. 보조 용언은 홀로 서술어로 쓰일 수 없으며, 본용언의 뒤에 위치하여 본용언만으로는 나타내기 어려운 의미를 덧붙인다.

- ㄱ. 나는 그녀의 그림을 보고 싶다.
- ㄴ. 그녀가 사과를 한번 먹어 보다.

위에서 ㄱ의 '보다'와 ㄴ의 '먹다'는 주어의 특정한 행위를 주되게 서술하는 본용언이고, ㄱ의 '싶다'는 희망의 의미를 덧붙이는, ㄴ의 '보다'는 시도의 의미를 덧붙이는 보조 용언이다. '보다'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용언으로, 문장에서 그 쓰임을 잘 구별해서 이해해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의미를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구별할 수 있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는 다른 문장 성분을 넣거나, 행위나 작용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인 '-아서/어서', '-고서'를 붙이면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다. 예를 들어 ㄴ의 '먹어 보다'에 '먹어 아주 보다'와 같이 부사어를 넣거나 '먹어서 보다'나 '먹고서 보다'와 같이 연결 어미를 붙이면 보조 용언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

1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보조 용언만으로 서술어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보조 용언의 바로 앞에 부사어가 올 수 있다.
- ③ 보조 용언은 본용언의 의미를 대체할 수 있다.
- ④ 보조 용언은 본용언 앞에 위치하여 의미를 덧붙인다.
- ⑤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모두 쓰이는 용언이 존재한다.

12. 윗글을 참고하여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 오고 가다.  
○ 이번 생일에는 선물을 ㉡ 받고 싶다.  
○ 새로운 가수의 노래를 ㉢ 들어 보다.  
○ 친구가 아프니까 곁에 ㉣ 남아 주다.  
○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 열어 놓다.

- ① ㉠의 '가다'는 본용언에 진행의 의미를 덧붙이므로 보조 용언으로 볼 수 있군.
- ② ㉡의 '싶다'는 본용언에 희망의 의미를 덧붙이므로 보조 용언으로 볼 수 있군.
- ③ ㉢의 '보다'는 본용언에 시도의 의미를 덧붙이므로 보조 용언으로 볼 수 있군.
- ④ ㉣에서 '남아'를 '남아서'로 바꾸어 쓰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의 '주다'는 보조 용언으로 볼 수 있군.
- ⑤ ㉤에서 '열어'와 '놓다' 사이에 '아주'를 넣으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의 '놓다'는 보조 용언으로 볼 수 있군.

13. <보기>에서 제시된 단어의 의미 자질을 분석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의미 자질이란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의미 구성 요소를 말한다. 대립되는 의미 자질은 [+], [-]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의미 자질을 분석하면 의미 관계 파악이 가능하다.

상하 관계에서 하의어는 상의어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상의어의 의미 자질을 모두 가지며 상의어보다 의미 자질이 하나 이상 많다.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하나의 의미 자질만 대립되고 나머지 의미 자질은 동일하다.

| 단어 | 의미 자질               |
|----|---------------------|
| 사람 | [+인간]               |
| 여자 | [+인간], [+여성]        |
| 숙녀 | [+인간], [+여성], [+성숙] |
| 신사 | [+인간], [-여성], [+성숙] |
| 소녀 | [+인간], [+여성], [-성인] |

- ① '사람'의 의미 자질이 '숙녀'의 의미 자질에 포함되므로 '사람'은 '숙녀'의 상의어이다.
- ② '여자'의 의미 자질은 '사람'의 의미 자질에 [+여성]을 더 갖고 있으므로 '여자'는 '사람'의 하의어이다.
- ③ '소녀'는 '여자'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의미 자질의 개수가 '여자'보다 많다.
- ④ '신사'는 '숙녀'와 하나의 의미 자질만 대립을 이루고, 나머지 의미 자질은 같으므로 '숙녀'와 반의 관계에 있다.
- ⑤ '소녀'는 '사람'과 두 개의 의미 자질이 대립을 이루므로 '사람'과 상하 관계에 있다.

14. <보기>의 밑줄 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재귀 대명사는 문장 내에서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내는 3인칭 대명사로, '저', '저희', '자기', '당신' 등이 있다. 한편 명사 '스스로', '서로'는 재귀 대명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ㄱ. 정우는 동생에게 자기 사탕을 주었다.  
 ㄴ. 막내는 엄마에게 저도 모르게 달려갔다.  
 ㄷ. 아이들은 선생님 몰래 저희끼리 속삭였다.  
 ㄹ. 할머니께서는 손님을 당신께서 직접 맞이하셨다.  
 ㅁ. 신입생에게 선배들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 ① ㄱ: '자기'는 '동생'을 나타내는 재귀 대명사이다.
- ② ㄴ: '저'는 '막내'를 나타내는 재귀 대명사이다.
- ③ ㄷ: '저희'는 '아이들'을 나타내는 재귀 대명사이다.
- ④ ㄹ: '당신'은 '할머니'를 나타내는 재귀 대명사이다.
- ⑤ ㅁ: '스스로'는 '선배들'을 나타내는 재귀 대명사처럼 쓰인다.

15. <보기>의 선생님이 제시한 '학습 과제'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고유어 A, B가 합쳐져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때, A의 받침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탐구 과정을 참고하여 학습 과제를 탐구해 봅시다.

A + B

예

A + ㅅ + B

ㄱ~ㄷ 중 하나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가?

아니요

A + B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조건>

ㄱ. B의 초성이 예사소리에서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  
 ㄴ. A의 종성에 'ㄴ' 소리가 생기는 경우  
 ㄷ. A의 종성과 B의 초성에 각각 'ㄴ' 소리가 생기는 경우

■ 학습 과제: a~e에 들어갈 올바른 표기를 탐구해 보자.

- 비 + 길 → a [비길]
- 위 + 쪽 → b [위쪽]
- 코 + 날 → c [콘날]
- 이 + 몸 → d [인몸]
- 배 + 일 → e [뱃일]

- ① a: ㄱ에 해당하므로 '빗길'로 표기해야겠군.
- ② b: ㄱ에 해당하므로 '윗쪽'으로 표기해야겠군.
- ③ c: ㄴ에 해당하므로 '콧날'로 표기해야겠군.
- ④ d: ㄴ에 해당하므로 '잇몸'으로 표기해야겠군.
- ⑤ e: ㄷ에 해당하므로 '뱃일'로 표기해야겠군.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리주의는 공리의 실천을 통한 ㉠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한다. 공리란 이익과 효용을 뜻하는 것으로 공리주의에서 행복이란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 즉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행복은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모든 쾌락이 측정 가능하고 그 원천에 상관없이 동질적이므로 단지 양에서만 차이가 난다는 양적 쾌락주의의 입장을 가졌다.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하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과 인간의 고등 정신 능력인 지성, 도덕 감정, 상상력 등에서 비롯하는 정신적 쾌락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쉽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기에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성과 ㉡ 상충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 밀은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밀은 쾌락은 본래부터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는 질적 쾌락주의를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저급 쾌락이고, 정신적 쾌락은 고급 쾌락이다. 고급 쾌락은 저급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우월성을 지닌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고급 쾌락의 추구를 통해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 추구하고 이기심이 상충할 때 법률, 여론 등과 같은 외적 제재가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 제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밀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밀에 따르면 외적 제재가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는 있지만,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힘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내적 제재인 양심을 강조했는데, 양심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으로 이를 어기면 내면에 고통을 준다. 양심은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타고난 사회적 감정에 토대를 두고,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 함양된다. 이를 통해 비로소 인간은 자기 이익 지향성을 극복하고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르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밀은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를 통해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하여 사회 구성원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고, 그러한 점에서 공리주의가 인간 윤리의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나)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 충족하기에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은 유한하다.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보고, 합리적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효용 이론을 제시하였다.

효용이란 의사 결정자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으로, 경제학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라고 보았다.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한계 효용이란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을 말한다. 그런데 한계 효용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재화를 선택하여 소비할 때 총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은우가 1개에 각각 1,000원인 튀김과 초밥을 한 개씩 추가로 소비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은우의 튀김과 초밥에 대한 한계 효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튀김과 초밥의 한계 효용>

|    |    |   |   |   |   |
|----|----|---|---|---|---|
| 번째 | 1  | 2 | 3 | 4 | 5 |
| 튀김 | 16 | 8 | 4 | 2 | 1 |
| 초밥 | 5  | 4 | 3 | 2 | 1 |

[A]

만약 은우가 5,000원의 예산을 지출할 때,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해 각각의 총효용을 계산해 보면 은우는 튀김 3개와 초밥 2개를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은우가 얻을 수 있는 총효용이 37로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때 5,000원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인 튀김 3개와 초밥 2개의 한계 효용이 4로 일치한다. 위의 상황과 같이 경제학자들은 각 상품의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소비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 방법이라고 보았고, 이를 ㉦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정의하였다.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한정된 재화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여러 상품의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은 개인이 효용의 수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효용 이론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은 고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보다 더 큰 효용을 ㉧ 창출한다. 이때 고소득층의 소득 10,000원을 세금으로 걷어 저소득층에게 배분하면 고소득층의 효용 감소분보다 저소득층의 효용 증가분이 더 커져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경제학적 원리에 의거하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적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누진적 소득세로 얻은 재정 수입을 통해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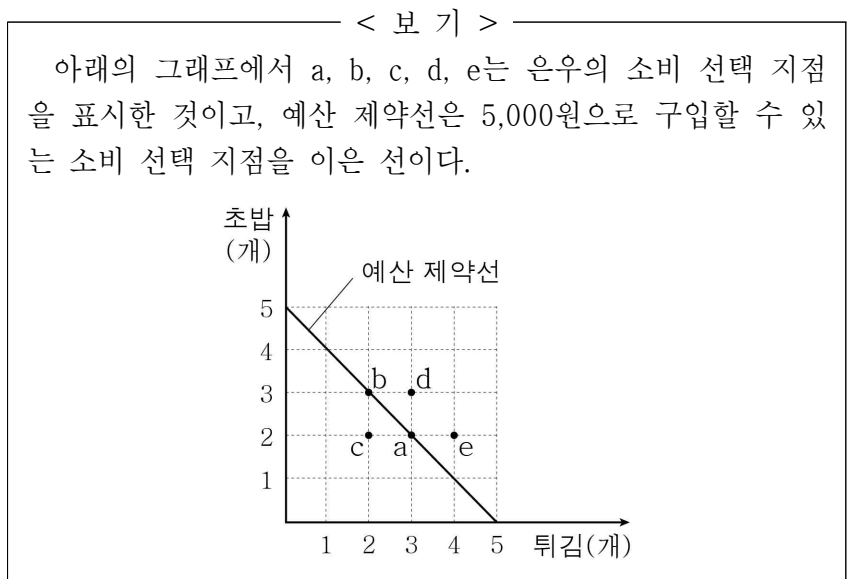
1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효율적으로 재화를 선택하는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서 쾌락의 유효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인간의 자기 이익 지향성을 고찰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⑤ 개인의 선택을 방해하는 여론 형성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17. ㉠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쾌락의 개념을 수정하고 그것의 효용을 계량화하여 이론을 체계화하였기 때문이다.
- ② 쾌락의 질적 차이와 내적 제재를 연구하여 최대 행복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 ③ 쾌락의 원천들을 밝히고 그것의 동일성을 규명하여 쾌락의 개념을 정교화하였기 때문이다.
- ④ 쾌락의 경험이 인간의 동물적 욕망 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도화하였기 때문이다.
- ⑤ 저급 쾌락의 개념을 거부하고 고급 쾌락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학문을 개척하였기 때문이다.

18.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는 5,000원의 예산으로 총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비 선택 지점이다.
- ② 소비 선택 지점이 a에서 b로 달라지면 동일한 예산에서 총효용이 작아진다.
- ③ 소비 선택 지점이 b에서 c로 달라지면 1,000원을 덜 소비하고 총효용이 작아진다.
- ④ 소비 선택 지점이 c에서 a로 달라지면 1,000원을 더 소비하고 총효용이 커진다.
- ⑤ d, e 모두 6,000원의 예산으로 가능한 소비 선택 지점으로서 e는 d보다 총효용이 크다.

19.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는 교육적 경험을 쌓아 실행될 수 있다.
- ② ㉢는 개인에 따라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이 달라진다.
- ③ ㉡는 의사 결정의 판단 근거가 개인의 이익이고, ㉢는 의사 결정의 판단 근거가 사회의 이익이다.
- ④ ㉡는 윤리적 판단의 기준으로, ㉢는 소비 선택의 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
- ⑤ ㉡와 ㉢는 모두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 (가)의 '밑[㉠]'과 (나)의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기부의 경제학 실험**

**[실험 내용]**

- 실험에 참여한 5명에게 10만 원씩 나눠 주고 참가자는 이 돈을 갖거나 기부할 금액을 결정함.
- 기부한 금액은 공공재 생산에 쓰여 2배의 효용을 창출하고 그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1/5만큼씩 돌아간다는 것을 참가자들에게 알려 줌.

**[실험 참가자의 예상 행동에 따른 효용 비교]**

- 아무도 기부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누리는 효용은 10만 원
- 모두가 기부하면 한 사람이 누리는 효용은 20만 원
- 4명이 10만 원을 기부하고 1명이 기부를 하지 않으면 기부한 사람의 효용은 16만 원, 기부하지 않은 1명의 효용은 26만 원

**[실험 결과]**

- 실험 참가자 대부분은 40~60% 정도 기부하였고, 일부는 기부하지 않았음.
- 기부한 실험 참가자들은 이타적인 마음, 기부 행위에서 얻는 자부심 등이 기부의 이유였음을 밝힘.

- ① ㉠는 기부 행위를 고등 정신 능력을 발휘해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행위로 보겠군.
- ② ㉢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기부자와 기부하지 않은 자가 같은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르다고 보겠군.
- ③ ㉠는 기부하지 않은 자의 행동을 양심을 위반한 행동으로, ㉢는 기부하지 않은 자가 참가자들의 예상 행동에 따른 효용을 비교해 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이해하겠군.
- ④ ㉠는 이타적인 마음을 동료들 자신과 같이 여기는 사회적 감정으로, ㉢는 자부심을 기부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이해하겠군.
- ⑤ ㉠는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는 누진적 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구성원 전체의 효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개인이 기부하는 행위와 공통점이 있다고 보겠군.

21.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남.
- ② ㉡: 감정, 충동, 생각 따위를 막거나 누름.
- ③ ㉢: 능력이나 품성 따위를 길러 쌓거나 갖추.
- ④ ㉣: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함.
- ⑤ ㉤: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냄.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황씨는 바빴다. 필목\* 잇맺음이 나는 대로 손수 둘러메고 장돌뱅이로 나섰다. 대전, 광천, 홍성, 화성, 청라, 남포, 응천..... 인근에 장이 서는 대로 매장치기를 했다. 그 무렵 한철은 그럭저럭 나가고도 남은 돈이 있게 되기도 했다.

“그 조시\*로만 나갔더라면 시방은 흰목 젓혀 가메 살어 볼텐디..... 그 방정맞은 놈으 까시미룡!” 방금 한 소리지만 소창직\* 직조 공장은 잘돼 나갔었다. 봉당에 들인 공장이 초협해 헛간마저 털어 늘어 가며 쓸락쓸락 재미가 들랑거렸다. 오래잖아 선출이한테 빚으로 쓴 돈도 이자부터 본전까지 깨끗이 밀뉘울 수 있으리라 싶은 판세로 돼 있던 거였다. 그리 돼 가는 판에다 대고 누가 그 사업이 기울어지리라고 생각이나 해봤겠느냐 말이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인근 읍내에 공업 단지라는 것이 생긴다더라 소문이 왔다. 측량을 끝냈다더라더니 벌써 탱크같이 생긴 것들이 내를 메워 가고 있었다. 공장이 두어 채 서고 이어 사람이 달린다는 기별이 잇달았다. ㉠ 직공으로 부리던 열다섯 명의 계집애들이 들고일어났다. 공임을 배로 올려주든가 새로 선 공장으로 가게 놓아주든가 하라는 것이었다. 노임을 배로 인상해 가며까지 버틸 만한 사업은 아니었다. 또 노임을 배로 올린대도 직공들은 ‘장래성’ ‘희망성’ 따위가 전혀 없었다면서 무슨 핑계로든 빠져나갈 눈치를 보이고 있었다. 이를 동안 쟁의도 벌어졌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그 계집애들 입에서 그만두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미 들어갈 자리를 미리 마련해 놓은 뒤였던 것이다. 새로 생긴 제과 공장과 전기 기구 조립 공장은 첫 달 임금부터가 황씨네 소창직 공장의 두 달치 품삯에 맞먹고 있었다. 인건비의 앙등으로 치명상을 입을 줄은 더구나 예측할 수도 없던 일이었다. 직공들이 장래의 희망성이 없다는 말에만,

“호이망성? 첫 미쳐두 곱게들 못 미치구..... 지집년덜이 알실을 때가 돼야서 시집이나 갖버리면 구만인디. 시집가서두 블어다 서방 공대 헐라간디? 그러구 무에던지 배워 두면 지술이지 지술이 워디 따루 있을께미.....” 해 가며 그렇게 무심했던 것이 탈이라면 탈이랄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치명적인 상처가 미처 아물기도 전이었다. 황씨로서 정말 뜻하지 않은 팔매가 또 한 번 날아와 그의 뒤통수를 갈겨 버린 것이다. 결정타였다. 그건 자기네가 앉아서 손으로 일하고 있던 사이 세상은 기계로 기계를 만들며 일하고 있는 걸 모른 체한 결과였다.

카시미론\*의 물결이 쥐구멍 같은 벽촌에도 회오리쳐 대기 시작했던 것이다. 무엇이든 새로운 물건이 나왔을 때 그 물자의 효용에 현혹되는 촌사람들의 안목은 무서운 것이었다. 카시미론의 위력도 날로 그랬다. 어느덧 황씨네 기계들도 거미줄을 쓰는 날이 찾아졌다. 젓먹이 어린애의 기저귀감으로밖엔 쓰임새가 없는 백소창이나 한 장 토막에 두서너 필 내는 정도의 어처구니없는 사태로 급전된 것이었다. 황씨는 문을 닫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 보기도 했지만 도리 없었다.

“찌끔 늦었던 겨, 다 시절 돌아가는 걸 보야 가메 눈치로 허야는 것을.” 황씨는 비로소 유행이란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크게 밀진 것도 없고 번 것도 없이, 그러나 들인 시설비는 한 푼 못 건진 채 세상 물정에 어두웠음이나 한탄하며 조용히 문을 닫게 되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소창직 직조 사업을 실패하게 된 황씨는, 암소를 키워 선출이에게 빚을 갚기로 한다. 황씨와 선출이는 함께 지극정성으

로 암소를 키우고, 그 암소가 송아지를 배게 된다. 황씨 집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고사가 있던 날, 황씨의 아내 고랏댁은 무심코 술지게미를 소 여물통에 놓아둔다. 이것을 맛본 암소는 광으로 들어가서 술독을 몽땅 비워 버린다.

고랏댁이 두 눈을 뒤집어쓰며 소란 떠는 바람에 황씨가 뛰어나왔고 이어 선출이와 수송이, 광서방, 철호가 머슴방에서 뛰쳐나왔다. 외양간이 비워져 있는 걸 발견한 것도 양순이었다. “얼라, 엄니 소 워디 갔다?” “소?” 사람들은 광을 버리고 외양간 앞으로 몰려 법석거리기 시작했다. “소가?” “소여.....” “큰일 났네.” “소 죽이졌는다.” 그들은 같은 순간에 각기 한마디씩 내뱉으며 대문 밖으로 내달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도둑이 들었다기보다 술지게미로 목을 축인 소가 거나해지자 계속 술내가 풍기는 광을 곁에 두고 더 참질 못해 고삐 줄을 끊었는지 풀었는지 하고 나와 대가리와 뿔로 비벼 광으로 들어가곤 술 한 독을 다 먹어 치운 것으로 추측한 것이다. 고랏댁 가느스른 쌀 한 말을 담아 거르면 보통 막걸리 옛 말이 났다. 그러니까 소는 줄잡아 막걸리 너 말 가웃치를 단숨에 먹어 치운 셈이었다.

선출이와 황씨는 눈이 뒤집혀 있었다. 아니 간이 뒤집혔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소는 황씨네 발마당 가 우물 도랑 건너 타작마당에서 주정하는 중이었다. 주정이 아니라 속에서 난 불을 끄는 꼴이었다. 펄펄 뛰다 나뉘고 비칠거리 일어났다 대가리를 처박고 엉덩춤이 한창인가 하면 무릎을 꿇다 모로 나자빠져 버둥대곤 했는데 사람들은 그저 한갓 장승이 달리 없었다. 선출이와 황씨가 뛰어들며 고삐를 잡으려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두 사람을 붙잡고 늘어졌다.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그랬나 소가 탈진해 버리자 황씨는 내 소 살리라고 울부짖기에도 지쳐 두 다리를 뺏고 주저앉았고, 선출이는 푸닥거리 끝난 뒤 떡 못 얻어먹은 사람마냥 싱거운 얼굴에 허수아비 옷 벗겨 입힌 등신이 돼 있었다. 속으로 황씨가 생시 아니 몽유 중이기를 바랄 즈음 선출은 차라리 사람 죽는 꼴을 봄이 낫겠다 생각을 하고 난 뒤의 일이지만, 모두들 녀 나가는 사이 누군가가 소리 질렀다.

“짚토매 점 가져와. 소 얼어 죽겠다.”

누군가가 짚누리를 헐고 짚 몇 단을 가져왔다. 이윽고 마당 한복판엔 때 아닌 모닥불이 화롱화롱 타올랐다. 또 누군가는 먹은 걸 토악질시켜 게워 내도록 해야 산다고 양순이에게 멧돌에 녹두를 타 오도록 재촉했다. 부랴부랴 멧돌에 녹쌀 낸 녹두가루를 멍근한 물에 타서 소 주둥이에 한 대야나 들어갔지만 워낙 의식 불명인 판이라 시간이 가도 별 효과가 없었다. 이런 경우엔 수의가 박사래도 소용없겠다 소리만이 잦아질 무렵 소는 잠이 들어 버렸다. 깊은 잠이었다. 아주 실신한 게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날씨는 선달 날씨였고 얼어 달아나는 바람은 삼경을 넘었는데 소가 어른인 마당 한가운데선 불티만이 하늘 높이로 치솟고 치솟곤 했다.

그리고 거기서 그만이였다. 아무런 보람이 없었다. 암소는 제 한 몸만 믿고 걸었던 기대와 희망을 헛 명에 벗어던지듯 하고 결국 가족만 남지게 된 것이었다.

“배신을 해도 유만부동이다. 이 쾌썸한 놈아, 이 쾌썸한 놈.....”

황씨가 소에게 달려들어 털미를 꼬집어 뜯으며 혀를 깨무는 뒤에서, 고랏댁은 어서 날이 새어 소 배를 가르고 태중의 새끼를 꺼내면 폭신 고아 남편 몸보신이나 시키리란 생각과 함께

모닥불에 짚단을 더 얹었다.

밤이 깊어 가면서 ㉠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속으로 죽은 고기는 반값이니 몇 근 사두면 그름 대목까지 곰국을 내먹겠다고 치부하면서도 걸으론 하늘 아래 이 동네 서고 소가 술 취해 죽었다는 건 듣고 보기 처음이라고 탄식이 거듭이었다.

- 이문구, 「암소」 -

\* 필목: 필로 된 무명천.

\* 조시: 무엇이 처음 시작됨.

\* 소창직: 무명실로 만든 면직물.

\* 카시미론: 캐시미어의 감축을 재현한 저가 합성 섬유.

2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전해 들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③ 주인공이 회상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 ④ 이야기 안의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장면마다 서술자를 바꿔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23.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씨는 소창직 직조 사업이 어려워지자 매장치기를 했다.
- ② 촌사람들은 카시미론이라는 새로운 물건에 마음을 빼앗겼다.
- ③ 고랏땃은 암소가 송아지를 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④ 양순이는 외양간에서 암소가 사라진 것을 처음 발견했다.
- ⑤ 선출이는 암소가 술에 취해 날뛰는 것을 제지하지 못했다.

2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은 ㉠과 달리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③ ㉠은 인정에 호소하는 방법을 통해, ㉡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상황의 반전을 꾀하고 있다.
- ④ ㉠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은 당면한 상황에 대한 죄책감이 동기가 되어 특정 행위를 행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자신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결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5. 윗글의 서사 전개 과정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할 때, [A],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              |        |
|------------|--------------|--------|
| [서사 전개 과정] |              |        |
| [A]        | ... (중략) ... | [B]    |
| 황씨의 사업 실패  |              | 암소의 죽음 |

- ① [A]는 사회의 변화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고, [B]는 개인의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다.
- ② [A]는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의 회한이, [B]는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의 원망이 나타나 있다.
- ③ [A]는 장기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과정이, [B]는 단기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과정이 나타나 있다.
- ④ [A]는 문체 상황에 대한 중심인물의, [B]는 문체를 해결하려는 주변 인물의 행동이 나타나 있다.
- ⑤ [A]는 세태에 대한 중심인물의 관심을, [B]는 공동체에 대한 중심인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떨리는 손으로 풀죽은 김밥을  
입에 쑤셔넣고 있는 동안에도  
기차는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넣었다.  
㉠ 연듯빛 벼들이 눈동자를 찢었다.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  
아니다. 푸르다는 말은 적당치 않다.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연두는 내게 좀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다.  
거기엔 아직 고개 숙이지 않은  
출렁거림, 또는 수런거림 같은 게 남아 있다.  
저 순연한\* 벼포기들.  
그런데 내 안은 왜 이리 어두운가.  
㉡ 나를 빛바래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도  
결국 어두워지면 빛바랄 거라고 중얼거리며  
김밥을 네 개째 삼키는 순간  
갑자기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이 마치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조건이라도 되는 듯.  
눈에 습처럼 괴는 연두.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기차는 여름 들판 사이로 오후를 달린다.

- 나희덕, 「연두에 울다」 -

\* 순연한: 다른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온전한.

(나)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계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현 샷을 깬,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용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쪼며 재 우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엔 나가지두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세김질  
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짝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  
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뭇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섬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  
였다.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 권을 붙이었다: 주인집에 세 들었다.

\* 북덕불: 짚이나 풀 따위가 뒤섞여 엉클어진 뭉텅이에 피운 불.

26.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③ 소재의 나열을 통해 역동적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 ④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27. (가)의 '기차[A]'와 (나)의 '방[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화자가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는 공간이다.
- ② B는 A와 달리 화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이다.
- ③ A는 화자가 애상감을, B는 자족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④ A는 화자가 즐거움을, B는 고독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⑤ A와 B는 모두 화자가 내적 갈등을 경험하는 공간이다.

28. 시상의 흐름을 고려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연듯빛 벼들이 눈에 들어온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햇빛이 자신을 성숙하게 만드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③ ㉢: 가족들과 떨어진 채 방황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④ ㉣: 자기 한 몸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⑤ ㉤: 자신의 지난 삶을 성찰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29.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의 화자는 투병으로 생기를 잃은, (나)의 화자는 객지에서 홀로 힘겨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가)와 (나)의 화자는 유사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무기력한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절망적으로 인식하다가, 특정한 계기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특정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 ① (가)의 ‘떨리는 손으로 풀죽은 김밥’을 먹는 것에서, (나)의 ‘문밖에 나가지두 않고 자리에 누워’ 있는 것에서 화자의 무기력한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② (가)의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에서, (나)의 ‘바람은 더욱 세계’ 분다는 것에서 자신과 대비되는 특정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가)의 ‘내 안은 왜 이리 어두운가’에서, (나)의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서 화자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절망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가)의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조건’으로서 ‘울음’이 터진 것에서, (나)의 ‘나를 이끌어 가는’ 운명으로서 ‘더 크고, 높은 것’을 인식한 것에서 정서적 변화의 계기를 알 수 있군.
- ⑤ (가)의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에서 생명력 회복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나)의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에서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엿볼 수 있군.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하여 생장에 필요한 포도당을 생산한다. 광합성의 과정은 대부분의 식물이 동일한데, 식물이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 그 효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식물들은 일반적인 식물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도록 진화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의 광합성 방식은 일반적인 식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은 잎에 있는 엽육 세포에서 주로 일어난다. 광합성의 과정은 ①명반응과 ②암반응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명반응은 빛 에너지로 물을 분해하여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하는 단계로,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산소가 발생한다. 명반응으로 발생하는 화학 에너지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많이 생성되는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해져도 생산량이 더 증가하지는 않는다. 명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는 포도당을 생성하는 데 불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식물은 잎 뒤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기공을 열어 산소를 배출한다. 기공은 산소를 배출할 때뿐만 아니라 암반응에 필요한 이산화 탄소를 흡수하거나 체내의 수분을 배출해야 할 때에도 열린다.

암반응은 명반응에서 생성된 화학 에너지와 기공을 통해 흡수한 이산화 탄소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생성하고, 부산물로 물이 생기는 단계이다. 암반응 과정은 캘빈 회로를 통하여 진행되는데 대기로부터 흡수된 이산화 탄소는 RuBP와 결합하며, 이 결합은 루비스코라는 촉매를 통하여 촉진된다. 이 결합으로 3개의 탄소가 결합한 3탄당이 형성되고, 3탄당은 화학적 변환 과정을 거쳐 포도당을 생성하며, 포도당 생성에 쓰이고 남은 화합물은 RuBP로 재생되어 이산화 탄소와 결합되는 과정이 다시 진행된다. 이러한 순환 과정을 캘빈 회로라고 하는데, 캘빈 회로로 포도당이 생성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산화 탄소 농도, 적절한 온도 등의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RuBP가 이산화 탄소와 결합하는 비율이 낮아져 포도당 생산의 효율이 떨어진다. 지구상 대부분의 식물은 이와 같은 과정으로 광합성을 하며, 이산화 탄소와 RuBP가 결합하여 생성되는 첫 화합물이 3탄당을 고려하여 C3 식물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③C3 식물은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광합성의 효율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다. 기온이 높거나 날씨가 건조할 때 기공을 열면 체내의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되므로 식물은 기공을 열지 않는다. 이로 인해 포도당의 생산이 어려워지면 식물은 잘 성장하지 못한다. 가령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고온의 기후가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위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C3 식물이자 대표적인 식량 작물인 쌀과 밀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C3 식물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여 고온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C4 식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옥수수, 조, 수수 등 고온의 열대 지방에서도 잘 자라도록 진화한 C4 식물은 두 개의 공간에서 광합성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첫 번째 공간인 엽육 세포는 C3 식물과 같은 방식으로 명반응이 일어나는 곳이자, 암반응의 첫 번째 단계로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 식물의 엽육 세포에는 이산화 탄소와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PEP가 존재한다. PEP와 이산화 탄소가 결합되면 4개의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인 4탄당이 형성되는데, C4 식물은 이를 고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탄당은 엽육 세포에 저장되어 있다가 유관속초 세포라는 두 번째 공간으로 이동한 후 분해되어 포도당 생성에 필요한 이산화 탄소를 배출한다. 그리고 배출된 이산화 탄소는 유관속초 세포 속에 농축되었다가 캘빈 회로를 통하여 포도당을 형성하는 데 쓰이는데, C3 식물과 C4 식물의 캘빈 회로의 작동 방식은 동일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C4 식물은 유관속초 세포 속의 이산화 탄소 농도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C3 식물에 비해 높은 광합성 효율을 보인다.

C4 식물의 비율은 전체 생물량의 5%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의 광합성량은 전체 광합성량의 23%에 달한다. 이러한 C4 식물에 대한 연구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0.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목적은?
  - ② C3 식물과 C4 식물의 이름에 담긴 의미는?
  - ③ C4 식물의 광합성 방식이 진화되는 과정은?
  - ④ C4 식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까닭은?
  - ⑤ C4 식물이 C3 식물보다 광합성 효율이 높은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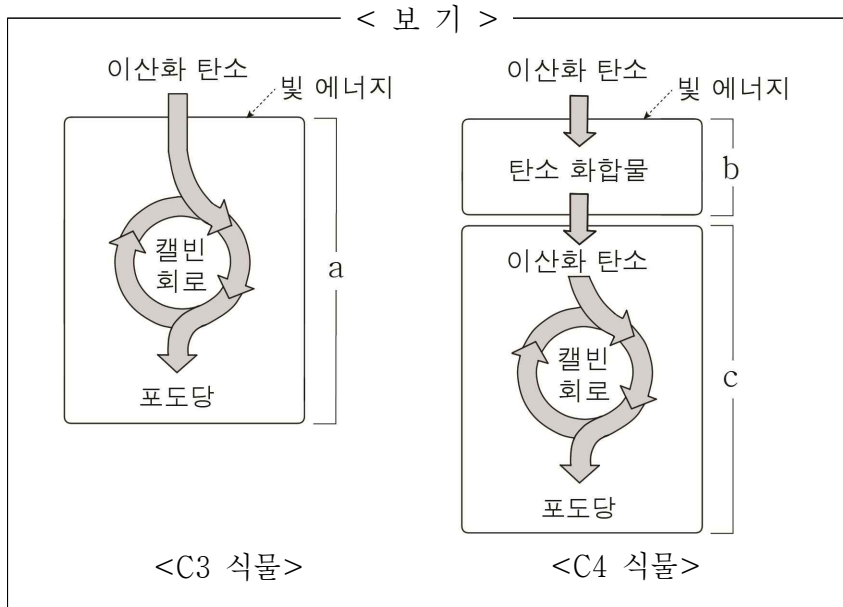
3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이산화 탄소를 필요로 한다.
- ② ㉡은 ㉠과 달리 산소를 활용한 물의 분해가 진행된다.
- ③ ㉠은 산소가, ㉡은 물이 반응의 부산물로 생성된다.
- ④ ㉠은 물을, ㉡은 RuBP를 재생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 ⑤ ㉠과 ㉡은 모두 빛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반응이 활성화된다.

32. ㉢의 원인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광합성에 필요한 빛 에너지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 ② 대기 중 이산화 탄소의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 ③ 기공을 통하여 배출되는 산소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 ④ 광합성에 사용되는 탄소보다 저장되는 탄소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 ⑤ 캘빈 회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산화 탄소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33. <보기>는 'C3 식물'과 'C4 식물'의 광합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와 b는 엽육 세포에서, c는 유관속초 세포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 ② a에서는 3탄당이, c에서는 b에서 이동한 4탄당이 포도당 생성에 기여한다.
- ③ a와 b에서는 빛 에너지를 활용하여 화학 에너지를 생성하는 반응이 진행된다.
- ④ a의 캘빈 회로에서는 RuBP가, c의 캘빈 회로에서는 PEP가 이산화 탄소와 결합한다.
- ⑤ a와 c에서는 포도당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화합물을 만들 때 루비스코라는 촉매가 필요하다.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질서 아래에서는 관계의 종류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의 분야가 달라지는데, 법의 대표적인 두 분야는 형사법과 민사법이다. 형사법은 국가와 범죄자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며 민사법은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으로 인정되는 법인\*과의 관계에 적용된다.

형사법의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로, 공익을 위해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한다. 여기서 형벌은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에 관한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민사법은 개인 간 분쟁 해결 및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사건 당사자들이 평등한 관계임을 전제하고 손해와 이익을 조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수평적 균형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송이 진행될 때, 형사법과 민사법의 소송 당사자와 소송 내용은 ㉠ 상이할 수밖에 없다.

형사 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으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피고인으로 기소하며 소송이 시작된다. 이때 기소란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이다.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검사가 담당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반박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의 입증과 피고인의 반박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죄 성립 여부 및 잘못의 정도를 따진 후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린다. 이때 어떤 두 사람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기소되었다더라도 범죄 동기와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여부 등을 ㉡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므로 두 사람의 최종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 규율하지 않기로 정한 폭행죄, 모욕죄 등의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민사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원고가 되고,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은 피고가 된다. 이때 각 당사자는 모두 소송 대리인인 변호인을 쓸 수 있다. 민사 소송의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규를 근거로 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입증해야 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민사 소송은 형사 소송과 달리 두 당사자가 손해와 이익을 ㉢ 적절하게 타협하면 바로 소송이 종결된다.

형사법과 민사법은 서로 다른 분야인 만큼 하나의 사건이더라도 그중 한 분야에서만, 또는 두 분야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만약 갑이 을에게 맞아 갑이 다쳤다는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검사가 법원에 을을 상해죄라는 법규로 처벌해 달라는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갑이 을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 소송마다 입증해야 하는 사실 관계가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증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형사 소송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강한 입증을 요구한다. 즉, 증거가 기소 내용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이 부족하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즉 형사 소송법 제275조의2에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법규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 소송에서는 100을 기준으로 검사의 유죄 입증 정도가 51이라면 유죄가 될 수 없

다. ㉠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서 흉악한 범죄를 범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는데, 여기서 무죄는 반드시 피고인의 결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면, 민사 소송에서는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요구한다. 이는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로 해석된다.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증거를 바탕으로 ㉡ 신뢰할 만한 증거를 누가 더 많이 제시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일 원고와 피고의 입증 정도가 51 대 49 라면 원고의 손을 들어 주게 된다.

\* 범인: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단과 재단.

34. 밑글에서 사용된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규범 내용을 인용하여 특정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문체 상황을 가정하여 서로 다른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 ④ 예외적 조건을 제시하여 원칙과 다른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
- ⑤ 서로 다른 견해를 절충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35.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사법에서는 형벌을 가함으로써 사회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고자 한다.
- ② 민사법에서는 당사자들이 타협을 하면 수평적 균형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형사 소송은 검사의 기소로 시작하며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하여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한다.
- ④ 형사 소송에서의 최종 선고형에는 범죄의 종류 외에도 피고인의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⑤ 민사 소송에서는 특정 사실이 있었을 개연성을 증명하는 증거를 많이 제출하는 당사자가 유리할 수 있다.

36. ㉠의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타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무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겠군.
- ② 재판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국가는 사회 질서 유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겠군.
- ③ 잘못된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와 관련된 법규가 없다면 검사가 해당 내용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겠군.
- ④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겠군.
- ⑤ 범죄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받아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겠군.

37. <보기>의 ㄱ과 ㄴ은 동일한 사건을 바탕으로 제기된 소송이다.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ㄱ. 운전 중이던 A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B를 밟고 지나갔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검사는 A가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을 범해 B를 밟았다고 판단하고 A를 기소했다. 하지만 구조가 복잡하여 도로 환경이 열악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났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ㄴ. 이후 B는 A가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 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A의 형사 소송 판결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 사건은 손해 배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A가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었고, 제출한 증거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 ① ㄱ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규명하여 처벌하기 위한 소송에, ㄴ은 피고와 원고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에 해당되겠군.
- ② ㄱ에서 A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ㄴ에서 A의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입증해야 하는 사실 관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겠군.
- ③ ㄱ에서는 A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ㄴ에서는 B가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은 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ㄱ에서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의 과실이 크다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ㄴ에서는 A가 도로의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겠군.
- ⑤ ㄱ에서는 법관이 열악한 도로 환경을 근거로 A의 유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품었지만, ㄴ에서는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근거로 피고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겠군.

38.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서로 다를
- ② ㉡: 따져
- ③ ㉢: 견주어
- ④ ㉣: 나오지
- ⑤ ㉤: 믿을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향암\*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제1수>

보리밥 뽕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럴 줄이 있으라

<제2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말져  
다만당 다툼 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제5수>

- 윤선도, 「만흥(漫興)」 -

\* 띠집: 풀의 일종인 띠로 지붕을 이은 집.  
\* 향암: 시골에 사는 건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나)

모계위가 한여름에 들에 나가 김을 매다가 틈이 나자 우뚝 서 있었다. 밭두둑 사이에 큰 나무가 있었다. 아침에 그들이 서쪽으로 지자, 사람들이 다투어 그 아래로 가고, 얼마 뒤에 해가 옮겨 가자 모두들 떠들썩하게 동편으로 몰려갔다. 뒤처져 온 이들 중에는 신발을 잃거나 발꿈치를 상한 자도 계속 이어졌다.

계위를 돌아보고는 꾸짖는 자가 있었다.  
“저번에 그대는 동편에 있더니 이제 그대는 서편에 있군요. 군자라는 이가 진정 이다지도 지조가 없는지요?”

계위는 기가 막혀 ㉡ 웃으며, 세 번의 질문에도 대꾸하지 않았고, 말하던 자가 비로소 움찔하더니 얼마 있다 말하였다.

“내가 지나쳤군요. 그대의 자리는 종일토록 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자리를 정하지 못한 것을 도리어 그대의 정해진 자리를 의심하였으니, 내가 참으로 망령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름에 벼옷 입고 겨울에 털옷 입으며, 비 오면 도롱이 입고 별 나면 가리는 천성은 성인도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자님께서도 사람은 새, 짐승과는 함께 살 수 없고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요? 그대는 이제 항상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고, 또 그것을 지켜 꼼짝 않는데, 도리를 알고 때를 안다는 사람도 진정 그러합니까?”

계위가 말했다.

“그렇군요. 저는 농부인데 어찌 도를 알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일찍이 서유자에게 농사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봄에 밭 갈고 여름에 김매다 가을에 이르면 수확을 한다고 하니, 나는 이것으로 때를 따라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릇 비 오고 가물고 바람 불고 별이 내리 쬐는 것은 하늘에 달린 것이고, 밭 갈고 씨 뿌리고 김매고 뿌리를 북돋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하늘에서 이루어 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내 힘을 다 쓰고 내 일이 이미 갖추어지면, 나는 안으로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이 없고, 밖으로 외물에 휘둘리는 것이 없습니다. 해하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아 이해관계에도 불꽃이 튀지 않으니, 물에 파도가

[A]

일지 않는 것처럼 담담하고 물이 사방으로 통하여 막히지 않는 것처럼 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사탕수수 즙을 마시는 것 같으니 높은 평상에 열음을 쌓아 놓는다고 해도 내 상쾌함을 알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홀로 나무 그늘에 구구히 얽매이겠습니까?

저는 하늘의 때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은 혹 서로 다른 사람과 시간을 다룹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나무 그늘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나와 달리한 것이지, 내가 어찌 사람들을 떠나기를 좋아했겠습니까? 그렇다 해도 눈과 열음 속에서 숨을 입고 있는 자도 여우 담비 털옷을 덮어 주면 사양하지 않는 법입니다. 내가 그들을 싫어하여 도망쳤다고 하면 그것도 인정(人情)이 아닐 것입니다.

그대는 어찌 생각해 보지 않으십니까? 그대가 이 그늘로 들어갔을 적에 과연 조용하고 넉넉하게 노닐며 태연하게 스스로 얻은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다툰 다음에야 그늘에 들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 누가 무릎을 부딪치면서 발을 뻗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 누가 그대의 팔을 움츠려서 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 누가 그대에게 한 발자국 남짓한 자리를 마음대로 차지하지 못하게 하여, 마치 철창 속에 갇힌 원숭이처럼 답답하게 하였습니까? 그 누가 그대와 사람이 서로 꺼리게 하여 도적을 보듯 흘겨보며 행여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내 자리를 너르게 하여 주기를 바라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하여 그늘에 들어가는 것은 차라리 뜨거운 햇볕 아래 홀로 서 있는 것만도 못합니다. 그대는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시 김을 매야겠습니다.”

물어봤던 사람이 머리를 숙였고 부끄러운 낮빛이었다.  
- 홍석주, 「전간대(田間對)」 -

3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점층적 표현을 활용하여 부정적인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과장적 표현을 활용하여 상황의 해학성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대조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연 친화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40.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죽대 없는 행위에 대한, ㉡에는 염치없는 말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담겨 있다.
- ② ㉠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에 대한, ㉡에는 원망하는 말에 대한 비하의 의도가 담겨 있다.
- ③ ㉠에는 공감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담겨 있다.
- ④ ㉠에는 자신을 평가하는 행위에 대한, ㉡에는 자신을 조롱하는 말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담겨 있다.
- ⑤ ㉠에는 열등감을 숨기려는 행위에 대한, ㉡에는 선입견을 지니고 있는 말에 대한 질책의 의도가 담겨 있다.

41. (나)의 [A]에 나타난 ‘모계위’의 생각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순리에 따라 자신의 일을 다하여 외부 상황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있군.
- ②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군.
- ③ 하늘의 도움을 받으려면 절기에 맞추어 남들보다 더 농사일에 힘써야 한다고 여기고 있군.
- ④ 적절한 때를 알고 행동하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기고 있군.
- 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이어가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군.

4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에서는 분수에 맞는 삶의 태도를 지향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가)의 화자는 자연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떳떳한 일이라 여기며 소박한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나)의 모계위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여기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① (가)의 화자가 자연에서 ‘띠집’을 짓고 사는 것과 (나)의 모계위가 때에 따라 ‘밭 갈고 씨 뿌리’는 것에서 분수에 맞는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② (가)의 화자가 ‘보리밥 푹나물을 알맞게 먹’으며 ‘그 남은 여 남은 일’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에서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가)의 화자가 ‘하늘’이 자신의 ‘성이 게으’름을 알고 ‘강산을 지키라 하’였다는 것에서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을 떳떳한 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나)의 모계위가 ‘눈과 얼음 속에서’는 ‘여우 담비 털옷을 덮어 주면 사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에서 타인과 다른 삶의 방식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나)의 모계위가 ‘다른 사람과 다’투며 ‘그들에 들어가는 것’은 ‘햇볕 아래 홀로 서 있는 것만도 못’하다고 말한 것에서 타인을 해하는 삶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43~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제후국인 남만국이 명나라 변방을 침범하자, 천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경을 남만국에 안무사로 파견한다. 서경이 사신으로 떠난 후 남만국에 잡혀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들 서천홍은 아버지를 구하고 국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원수로 출정한다. 이때 남만 태자는 섬으로 유배된 서경을 극진히 대접한다.

어느 날 태자가 근심하는 빛이 얼굴에 가득하여 말했다.  
 “그사이에 부왕께서 명나라와 전쟁하셨는데, 우리의 장수와 군사들이 죽은 것이 이루 셀 수가 없다 하나이다. 듣자니 명나라 장수 가운데 대원수는 공의 아드님이란 말이 있나이다. 부왕께서 이를 아시고 대인을 군중에 데려다 볼모로 삼아

아드님으로 하여금 귀순케 하고자 하시나이다. 그래서 소자에게 대인을 군중으로 데려오라고 명하셨지만, 아무리 **부왕의 명**이라도 소자가 이를 차마 행하지 못하오리다. 소자가 심복으로 하여금 천리마 두 필을 준비하게 하였사오니, 산골짜기의 좁은 길로 남모르게 **명나라 진영으로** 가옵소서. 그 후에 부왕의 목숨을 구하여 만국이 아주 망하게 하지 마소서.” 서 안무사가 위로하여 말했다.

“내 어찌 그대의 인정 어린 마음을 잊으랴.”  
 그러고는 작별하였다. 곧바로 천리마를 타고 종자와 함께 명나라 진영을 향하였다.

이때 서 원수가 길협을 놓아 보낸 뒤로 또 싸우러 나아가 **적장 수십 명을 죽이며 승승장구하여 잃었던 고을들을 회복**하고 남만국의 수만 병사들을 죽이니, 위엄이 만국에서 크게 떨쳤다. 만왕은 군영의 문을 닫고 서 안무사 잡아 오기를 기다렸다.

서 원수가 여러 날 싸움을 돋우었지만 만왕이 끝내 안전한 곳에 들어앉아서 나오지 않으니,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승전한 표문(表文)\*을 천자에게 보낸 뒤 여러 장수들과 묘책을 의논하고 있었다. 갑자기 비밀스레 한 병사가 들어와 고했다.

“군영 바깥문 밖에 우리나라 사람 한 명과 만국 사람 한 명이 와 서찰 한 통을 전해 달라고 하기에 바치옵니다.”

서 원수가 그 서찰을 떼어 보니, 서찰은 이러하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명으로 십여 년 동안 만국에서 치욕을 감내하던 안무사 서경이라.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서 목숨을 보전하여 달아나 왔나니, 오신 대원수는 뉘신지 몰라도 바빠 만나 보기를 바라오.’

서 원수가 서찰을 다 읽고 나서 마음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하였지만 바빠 군영의 문밖까지 나아가 맞으니, 서 안무사의 머리가 백발이었고 모습이 수척하였으나 뚜렷한 부친이었다. 서 원수가 부친을 한 번 부르고는 몹시 슬프고 가슴 아파 정신이 혼미하여 까무러쳤다. 서 안무사가 서 원수를 보니 사신으로 떠날 때에는 6세 어린아이였거늘 지금은 엄연한 대장이니 어찌 알아보리오. 서 안무사는 서 원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따라 역시 통곡하였다. 그리고 서 원수를 안아 보니 호흡이 멎었는지라 크게 놀라 주물렀다. 이윽고 서 원수가 눈을 뜨니, 서 안무사가 어루만져 위로하며 말했다.

“살아서 서로 만났으니 기쁘기 그지없다만, 이롭지 못한 시름과 슬픔을 드러내지 말거라.”

모든 장수들이 또한 위로하며 축하하는 소리가 떠들썩하였다. 서 원수가 조용히 부친을 모시고서 서로 그간의 고난과 재앙을 슬퍼하며 근심스럽게 말했다.

(중략)

이때 남만의 태자가 서 안무사를 보낸 뒤 꼭 승상과 의논하였다.

[A] “아무 때라도 아군이 반드시 패할 것이오. 서 원수는 장수로서의 지략이 손무, 오기와 제갈량에 버금가요.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은 병졸로서 어찌 당할 수 있으리오. 이 때문에 서 안무사를 살려 보내어 은혜를 끼친 것이라오. 대왕께서 만일 봉변을 당하실지라도 서 안무사는 인자하고 후덕한 어른이오, 서 원수는 충성하고 효성스러운 군자이니, 필시 구하여 줄 것이오. 경(卿)과 함께 나아가 부왕께 귀순하시도록 간하여 보사이다.”

그러고서 명나라의 군영을 향해 떠났는데, 도중에 패잔군을 만나 만왕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태자가 목 놓아 슬프게 울며 말했다.

“부왕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시더니, 이 봉변을 당하신 것은 국운이 불행함이다.”

급히 길을 재촉해 명나라 군영에 다다르자, 태자가 윗옷 한 쪽을 벗고 등에 형장을 진 채로 손가락을 깨물어 항복 문서를 쓰고서 통곡하였다. 명나라의 선봉 군대가 태자를 잡아 중군(中軍)에 아뢰니, 서 원수가 명을 내려 ‘태자를 진중으로 들이라.’ 하였다. 태자가 코를 땅에 대고 엉금엉금 무릎으로 기어가 항복 문서를 올렸다. 서 원수가 항복 문서를 받고는 태자가 부친 서 안무사를 후하게 대접한 은혜를 생각하니 어찌 감격하지 않으리오. 군사에게 명하여 큰 칼과 옥새를 빼앗고 장막 안으로 불러올리니, 태자가 두 번 절하며 말했다.

“부왕의 죄는 마땅히 면치 못하려니와 **부왕의 본심**이 아니라 간신의 충동질에 말미암은 것이니, 원수는 다시 살려 주는 은혜를 내리고자 천자께 아뢰어 부왕의 목숨을 살려 주시면, 대대로 황제의 은혜에 감사하고 원수의 덕을 잊지 않으리다.”

이렇게 말하며 눈물이 얼굴에 가득하였다. 서 원수가 태자를 보니, 언사가 부드럽고 온화한 데다 기상이 활달하여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천승(千乘)\*의 국왕다움이 외모에 나타나는지라 아무렇지 아니한 듯이 말했다.

[B] “만왕의 죄악은 천벌을 면하기 어렵고, 내가 또한 남만의 씨 하나라도 남기지 않아 후세 사람의 근심이 없도록 하려 했었는데, 그대를 보니 하늘이 오히려 남만에게 복을 주심이다. 내 어찌 하늘의 뜻을 거역할 것이며, 가친(家親)\*께서 십여 년 동안 그대의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 당연히 천자께 아뢰어 만왕의 목숨을 구할 것이로다. 그리고 즉시 군대를 돌이킬 것이니, 그대는 어진 사람을 얻어 남만의 백성을 살피고 어루만져 다른 근심이 없게 할 지어다.”

태자가 거듭거듭 절하며 고마워하고 마음속으로 칭송하였다. ‘내 서 안무사가 오늘날에 제일로 알았더니, 그 아들은 젊었는데도 풍채가 갑절이나 더 낫도다.’

서 원수가 표문을 올렸으니, 만왕을 사로잡고 남만의 태자가 귀순해 왔는데 태자는 인자한 데다 효성스러워 가히 남만의 왕이 될 직하나 만왕은 용렬한 데다 어리석어 비록 죄를 용서할지언정 다시 나랏일을 맡게 할 수 없으리니, 태자를 봉하여 대대로 **천자의 은혜를 감사하도록 하게 하자**고 아뢴 것으로 황제의 명을 기다렸다.

— 작자 미상, 「쌍주기연」 —

\* 표문: 마음에 품은 생각을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는 글.

\* 천승: 제후(諸侯)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르는 말.

\* 가친: 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43.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 안무사는 재회 전에 서 원수에게 서찰을 먼저 보냈다.
- ② 서 안무사는 서 원수를 보자마자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차렸다.
- ③ 서 원수는 만왕을 잡기 전에 승전한 표문을 천자께 보냈다.
- ④ 태자는 패잔군으로부터 부왕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 ⑤ 태자는 항복 문서를 직접 작성하여 서 원수에게 올렸다.

4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객관적 근거를 들어 현실에 대한 기존의 판단이 바뀐 과정을 언급하고 있다.
- ② [B]는 [A]와 달리 초월적 권위를 명분으로 삼아 자신의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 ③ [A]는 신의에 어긋난 행동을, [B]는 사회적 지위에 어울리는 행동을 할 것을 상대에게 요구하고 있다.
- ④ [A]는 타인의 힘을 빌려, [B]는 자신의 역량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는 방법을 활용하여 상대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쌍주기연」은 서천홍이 천자 중심의 위계 질서를 회복하고 충효의 가치를 구현하는 내용의 영웅 소설이다. 이 작품의 인물들은 전형적인 영웅 소설과는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영웅과 적대국 인물이 충효의 가치를 각자의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 적대국 인물이 영웅의 효 실천에 일조하는 것, 위기 상황에서 적대국 인물 간의 현실 대응 태도가 다른 것 등이다.

- ① 태자가 서 안무사를 볼모로 삼으라는 ‘부왕의 명’을 거역한 것에서 적대국 인물 간의 현실 대응이 다름을 알 수 있군.
- ② 태자가 서 안무사를 ‘명나라 진영으로 가’도록 풀어 준 것에서 적대국 인물이 영웅의 효 실천에 일조함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서 원수가 ‘적장 수십 명을 죽이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고을들을 회복’하는 것에서 영웅적 활약상을 알 수 있군.
- ④ 태자가 ‘부왕의 본심’을 서 원수에게 전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되어 부왕의 목숨을 구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한 것에서 충효를 실천하려는 모습을 알 수 있군.
- ⑤ 서 원수가 태자를 만왕으로 봉하여 ‘천자의 은혜를 감사하도록 하게 하자’고 아뢴 것에서 천자와 제후 간의 위계 질서를 회복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